

2024년  
세계환단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상고사의 재조명

2024. 12. 13(금)

장소: 사단법인 대한사랑 서울사무실

Youtube 생중계  
“2024년 세계환단학회 추계학술대회”

주관 | 세계환단학회(World Society of Hwandan History and Culture)

후원 | 사단법인 대한사랑, STB 상생방송



# 환영사

세계환단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학회 창립 이래 11번째 맞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병들어 있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은 『단군세기』 서문에서 “國猶形史猶魂”이라 일갈하여, 혼탁한 역사의 병독이 나라의 정신과 혼을 파괴하는 병인으로 작용함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오랜 중화주의 사관의 타성은 고유의 뿌리정신과 주체성,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근세 일제 식민사관은 지난 백 년 동안 우리의 정신세계와 역사의 혼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한민족은 동방문명의 새벽을 열었던 문화의 종주이며, 아울러 한민족사의 여명기에 환인, 환웅, 단군 삼성조가 개창한 나라역사는 엄연한 실존역사이자 황금문명시대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2014년 6월 세계환단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환국-배달-고조선의 환단시대와 고대사의 역사, 문화, 철학, 사상, 종교, 지리, 경관, 과학 및 풍속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2024년 발행된 세계환단학회지 11권 2호까지 121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상고사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애국시민들과 학회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단기 4357(2024)년 12월 13일

세계환단학회장 이강식

## 학술대회 진행순서

◎ 개회사 및 축사 10:30-10:50

---

◎ 강연 10:50-12:10

---

### 기조강연

고구려 시조 주몽의 외조부 하백은 중국 하북성 역수유역의 통치자였다

강연: 심백강(민족문화연구원장) 10:50-11:30

### 특별강연

기후변화와 인류문화

강연: 오성남((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이사) 11:30-12:10

◎ 점심식사 12:00-13:00

---

### ◎ 학술발표 ◎

---

Session 1. 환단시대의 철학과 문자 13:30-14:50

사회: 정우진(상명대학교)

천부경과 역학 13:30-14:10

발표: 양재학(상생문화연구소)

토론: 윤창열(대전대학교 명예교수)

가림토와 훈민정음 자형의 기원에 대한 고찰 14:10-14:50

발표: 박덕규(인하대학교 대학원)

토론: 박찬화(순천향대학교)

◎ 휴식 14:50-15:10

---

Session 2. 환단사서의 역사적 의의

15:10-16:30

사회: 정우진(상명대학교)

『환단고기』는 어떤 사서인가

15:10-15:50

발표: 전재우(중원대학교 대학원)

토론: 안병우(충북대학교)

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교과서

『倍達族歷史』 발간과 그 역사적 의미

15:50-16:30

발표: 임찬경((사)국학연구소)

토론: 송옥진(인하대학교)

◎ 휴식

14:40-15:00

◎ 종합토론 ◎

16:40-17:40

좌장: 남창희(인하대학교)

토론: 윤창열(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안병우(충북대학교)

박찬화(순천향대학교)

송옥진(인하대학교)

◎ 폐회 및 기념 촬영

## 목 차

환영사 .....	3
• 고구려 시조 주몽의 외조부 하백은 중국 하북성 역수유역의 통치자였다 / 심백강 .....	7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영향과 탄소중립 / 오성남 .....	14
• 천부경과 역학 / 양재학 .....	50
• 논평문 / 윤창열 .....	74
• 가림토와 훈민정음 자형의 기원에 대한 고찰 / 박덕규 .....	76
• 논평문 / 박찬화 .....	93
• 『환단고기』는 어떤 사서인가? / 전재우 .....	96
• 논평문 / 안병우 .....	143
• 1922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교과서 『倍達族歷史』 발간과 그 역사적 의미 / 임찬경 .....	145
• 논평문 / 송옥진 .....	164
세계환단학회 논문 공모 .....	167

# 고구려 시조 주몽의 외조부 하백河伯은 중국 하북성 역수易水 유역의 통치자였다

심백강\*

- I. 머리말
- II. 고주몽의 외조부 하백
- III. 하백에 대한 한·중 학계의 견해
  - 1. 한국 학계의 견해
  - 2. 중국 학계의 견해
- IV. 고주몽의 외조부 하백은 하북성 남쪽 보정시 역수易水 유역의 통치자였다
- V. 맺는 말

## I. 머리말

고구려 이전의 역사는 고구려에 귀결되고 고구려 이후의 역사는 고구려에서 근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척추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구려 시조 주몽의 출생시기, 건국연대, 건국위치 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고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 외조부 하백과 관련한 현대 한, 중 역사학계의 인식은 하백을 물의 신, 유화를 지모신 등으로 간주하며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백이나 유화를 실재 인물로 해석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고주몽의 탄생은 단군신화와 함께 주몽신화로 널리 알려져 신화적인 이야기로 취급되고 있는데 식민사학의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은 바로 이런 논리가 바탕이 된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고주몽의 외조부 하백이 물의 신이 아니라 중국 하북성 역수 유역에서 통치자로 활동했던 실재 인물이며 따라서 그 어머니도 신녀가 아닌 역수 유역에서 성장한 유화라는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구려의 초기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고주몽의 외조부 하백

고구려는 광개토태왕시대에 이르러 광개토경廣開土境이란 시호가 시사하는 것처럼 영토를

\* 민족문화연구원장

만리장성의 안과 밖으로 크게 확장했다.

광개토태왕비문에는 시조 추모왕의 탄생설화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천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다(天帝之子 母河伯女郎)”라고 하였다. 이것이 아마도 하백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 될 것이다.

하백은 모두루묘지명(牟頭婁墓誌銘),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등 추모왕을 언급한 고구려 금석문에는 대체로 그 이름이 등장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조에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다른 이름은 추모라고 하는데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와 하백의 따님 유화(柳花)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였다.

광개토태왕비문은 간단명료함을 모토로 하는 비문의 특성상 단지 추모가 “천제의 아들, 하백의 따님 아들이다.”라고 간단히 언급했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 아버지 해모수와 어머니 유화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주몽의 탄생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 기이(紀異) 제1, 고구려조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전재하고 있다. 다만 『삼국유사』는 주석에서 “『단군기』에는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아들 부루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에서는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주몽을 낳았다고 하였으니 해부루와 주몽은 이복형제간(異母兄弟)이다.”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승휴의 『제왕운기』 권 하 「인분차지위사군(因分此地爲四郡)」에서는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부여왕이 비서갑(非西岬) 하백의 따님과 혼인하여 사내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 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제왕운기』 고구려기에서는 고구려 시조가 주몽인데 “아버지는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유화이다(父解慕漱 母柳花)”라고 말하고 주석에서 “하백이 세 딸이 있었는데 유화는 하백의 장녀였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상의 금석문과 문헌 기록을 종합해 본다면 고구려 시조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서하 하백, 또는 비서갑 하백의 장녀 유화부인으로서, 하백은 고주몽 어머니의 친정아버지이자 고주몽의 외할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부루는 해모수와 유화의 정식 혼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 반면 주몽은 해모수와 유화의 사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다. 그래서 일연은 해부루와 고주몽을 이복형제라고 말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단지 하백이라고 표현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단군기』를 인용하여 서하(西河)의 하백이라고 말하고 『제왕운기』에서는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비서갑(非西岬)의 하백이라고 하였다.

지금 서하나 비서갑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지명에 모두 서방을 가리키는 서(西) 자가 들어 있는 것을 본다면 하백(河伯)에서 가리키는 하(河) 즉 강은 중국 대륙의 동쪽이나 남쪽, 북쪽이 아닌 서쪽에 위치한 강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백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문헌 자료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뿐만 아니라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동명왕본기,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단종실록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중국 자료에는 『산해경』 『죽서기년』 등 선진先秦사료를 위시해서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 고구려조, 『위서』 열전 고구려조, 『주서』 이역열전 고구려조, 『북사』 열전 고구려조, 『수서』 동이 열전 고구려조, 말갈조, 『통전』 동이조, 『태평환우기』, 동이 고구려조, 『책부원귀』 외신부 종족조, 『태평어람』 동이 고구려조, 『한원』 번이부 고구려 조 등에 모두 하백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한국의 자료보다도 중국 자료에 오히려 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속일본기』 환무천황조에도 하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하백은 한, 중, 일의 고대 사료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에서 하백이야기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당시 동양 삼국에 널리 알려진 공인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Ⅲ. 하백에 대한 한·중 학계의 견해

#### 1. 한국 학계의 견해

한국 역사학계의 하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이병도는 『국역삼국사기』(을유문화사 발행) 고구려본기의 해모수에 대한 주석에서 “환웅, 해모수는 신남神男이요 하백녀, 웅녀는 신녀神女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해모수를 남신, 하백녀를 여신으로 인식했다. 이병도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한국 반도사학의 단군신화, 주몽신화를 만들고 유행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본다.

이재호는 『삼국유사』(명지대출판부 발행) 고구려 조항의 하백에 대한 주석에서 “하백은 황하黃河의 신, 곧 물을 맡은 신이다”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황하의 하백 이야기 (莊子 河伯欣然自喜)”를 인용했다.

이기동은 『한국사강좌』 고대편에서 고구려의 하백녀는 곡령穀靈 신앙과 조상신의 의미가 동시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철준과 노태돈은 고구려의 시조모 하백녀를 지모신地母神 내지는 그와 같은 농업신으로 주목했다. <김철준 『한국고대사연구』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37쪽>

한국 학계는 하백을 물의 신 즉 수신水神으로 규정하고 그의 따님 하백녀는 신녀, 또는 지모신 내지는 농업신으로 간주함으로써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를 인간이 아닌 신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2. 중국 학계의 견해

중국의 진고응陳鼓應은 『장자금주금역莊子今註今譯』(대만상무인서관 발행) 추수편에서 당나라 성형영成玄英의 주소에 근거하여 “하백은 황하의 신(河神)이다. 백은 장자長者의 칭호로서 하백은 강의 어른을 뜻한다.”라고 말하였다.

황금횡黃錦鉉은 국립대만사범대학 교수로서 장자학의 대가이다. 필자도 대만사대에 유학할 때 그의 강의를 들었다. 황교수의 장자 백화문白話文 번역은 『신역장자독본』이란 이름으로 삼민서국三民書局에서 발행되었는데 황교수 역시 하백을 황하의 신으로 풀이했다.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하백은 장자가 가치판단의 상대성을 설파하기 위해 발해의 신 해양海若과 황하의 신 하백이라는 두 가공의 신을 등장시킨 것으로서, 황하의 신 하백은 구구려 시조 주몽의 외조부 하백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한국의 이재호가 고구려의 하백을 황하의 물의 신 하백으로 오해한 것처럼 중국의 장벽파張碧波 또한 이 양자를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다.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장벽파는 중국 동북방사 연구의 권위자로 『중국고대북방문화사』 등을 저술했는데 고구려의 주몽설화에 등장하는 하백이 황하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황하문화의 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황하의 신 하백을 외조부, 그 따님을 어머니로 둔 주몽에 의해 건국된 고구려의 민족과 문화는 중국 한족, 한문화의 아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IV. 고주몽의 외조부 하백은 하북성 남쪽 보정시 역수易水 유역의 통치자였다

필자는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황하의 신 하백과 고구려의 건국 시조 주몽의 외조부인 하백은 서로 확연히 다른 존재인데 이를 동일한 존재로 파악한 데서 한, 중 역사학계의 혼란이 야기되게 되었다고 본다.

하백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산해경』 대황동경에 나오는 다음 기록이다.

“왕해가 유역국有易國 하백에게 의탁하여 소 떼를 길들이며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유역국에서 왕해를 살해하고 그가 기르던 소 떼들을 탈취해갔다. 은나라의 군주가 왕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유역국의 군주를 살해하자 하백이 유역국과의 옛정을 생각하여 유역국 사람들을 몰래 도망칠 수 있게 도왔고 유역국 사람들은 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에 새로운 나라를 건립했다(王亥託于有易河伯僕牛 有易殺王亥 取僕牛 河伯念有易 有易潛出 爲國于獸)”

여기에 등장하는 하백에 대하여 진짚나라의 곽박郭璞은 『산해경』 주석에서 “하백은 사람 이름이다(河伯 人名)”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북경 상무인서관에서 발행된 풍국초馮國超가 역

주한 『산해경』에서도 “하백은 사람 이름이다(河伯 人名)”라고 말하고 있다.

『산해경』에서 말한 하백은 지금의 중국 하북성 보정시 역현易縣의 역수, 고대의 유역국 역수 유역에서 활동했던 하백이란 역사적 인물을 지칭한 것이고 고구려 주몽의 외조부 하백은 바로 이 『산해경』에 나오는 유역국의 하백을 가리킨 것이다.

고주몽의 외조부인 하백은 『장자』에 나오는 황하강의 물의 신 하백이 아닌 『산해경』에서 말한 역수 유역의 통치자 실존 인물 하백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산해경』 대항동경에는 소호의 나라, 예맥의 나라, 군자국, 백민국, 흑치국, 해뜨는 골짜기 양곡陽谷, 치우천왕 등에 관한 기사가 두루 실려 있는데 여기에 유역국의 하백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등장한다.

소호, 예맥, 군자국, 백민, 흑치국, 양곡, 치우 등은 우리민족의 상고사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낯익은 명칭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백이 등장한다면 이 『산해경』의 하백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고주몽의 외조부 하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산해경』에 나오는 하백은 황하의 수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로서 고구려 고주몽의 외조부인 것이며 그래서 광개토태왕비문을 비롯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 등에 그 기록이 전해 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중 학계가 실재했던 『산해경』의 하백이란 인물을 『장자』 추수편의 수신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고주몽의 외조부가 물귀신으로 둔갑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하백이 활동했던 하북성의 역수는 요수遼水의 다른 이름으로서 고조선, 고구려시대의 서쪽 경계가 역수였던 것이 최근 『사고전서』에 의해 밝혀진 점을 감안한다면 역수 유역의 통치자 하백이 고주몽의 외조부일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그리고 역수의 하백이야기는 『산해경』뿐만 아니라 『죽서기년竹書紀年』에도 실려 있어 역사적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죽서기년』에는

“은나라 제후 아들 해亥가 유역국에 손님으로 가서 있으면서 음행이 있었다. 이에 유역국의 임금 면신緜臣이 살해하여 그들을 내쫓았다. 그러므로 은나라의 군주 상갑미上甲微가 하백에게 군대를 빌려서 유역국을 멸망시키고 드디어 그 군주 면신을 살해하였다.(殷候子亥賓于有易而淫焉 有易之君 緜臣殺而放之 故殷上甲微 假師于河伯 以伐有易滅之 遂殺其君緜臣)”라고 말하여 『산해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산해경』과 『죽서기년』의 내용을 종합검토해보면 은나라의 왕해가 소 떼를 몰고 가서 유역국의 하백에게 의탁하여 상업 내지는 무역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역국과 충돌이 발생하여 유역국 임금 면신으로부터 살해당했는데 뒤에 왕해의 아들 상갑미가 유역국에 복수하기 위해 하백의 힘을 빌어 유역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기사에서 은나라의 군주 상갑미가 하백에게 군대를 빌려서 유역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하백은 강대한 군사력을 소유한 통치자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자

료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 등장하는 왕해는 상나라의 개국 군주 탕왕湯王의 7세조이다. 상나라시대 초기 왕실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면 설契, 왕해, 상갑미, 타왕湯王 네 분을 들 수 있다. 설은 상나라의 시조이고 탕왕은 상나라의 국조이며 왕해와 상갑미는 부자지간인데 이들이 상나라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특히 왕해는 중국 최초의 상인商人으로 인정되어 오늘날 화상華商의 시조로 추앙된다. 상나라가 부락 단계에서 국가단계로 발전하는데 그의 상업활동을 통한 경제발전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상나라라는 국호 또한 그가 벌인 최초의 상업활동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다.

왕해에 관한 기록은 갑골문 『산해경』 『죽서기년』 『초사』 천문은 물론 사마천 『사기』의 은본기에도 나타난다. 왕해, 상갑미가 모두 실재 인물인데 그와 함께 활동했던 하백은 실재인물이 아니고 황하의 물귀신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는가.

고구려 시조 주몽은 부여의 천제 해부루, 유역국 역수 유역의 통치자 하백의 따님 유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불과 2,0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2만 년 전의 일이나 되는 것처럼 신화화하여 천제를 하느님, 하백을 수신 즉 물귀신, 하백녀를 지모신, 곡물신, 농업신 등으로 해석한 것은 우리의 고대사연구가 얼마나 엉터리 수준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 V. 맺는말

최근 중국 공산당은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동북공정 이론을 대학교재(『중화민족공동체 개론』 고등교육출판사 발행)에 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이론이 초기에 등장하였을 때 그것은 일부 학자의 견해일 뿐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다.

그런데 신진핑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하여 동북공정 이론을 중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선전함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재에 동북공정 이론을 게재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서 저들의 시커먼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내용을 대학교재에까지 실어가면서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키려고 안달하는 진정한 속셈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 몇 줄이 중국 대학교재에 실렸다고 해서 당장에 한국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중국의 국력이 훨씬 더 강화된 뒷날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배운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역사 주권을 들고 나온다면 한반도는 중국의 여러 성 중의 하나의 성이 되고 한국민족은 중국의 57개 민족의 하나

의 민족으로 귀속되고 한국역사는 중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활동해 왔던 압록강 서쪽 발해유역의 동북방 역사를 한국의 반도사학이 방기하고 돌아보지 않은 책임이 크다.

지금 비록 늦었지만 한국 사학계는 바른 역사회복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하고 그 첫걸음은 식민사학이 날조한 단군신화, 주몽신화에서 신화의 굴레를 벗기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고주몽의 외조부 하백은 황하의 물의 신이 아니라 하북성 역수 유역을 통치했던 하백이란 실재 인물이었다는 것을 『산해경』의 기록을 통해서 최초로 밝힌 본 발표는 주몽신화를 실재 역사로 재해석하는데 그리고 식민사학의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불식시키고 고구려의 바른 역사를 확립하는데 하나의 받침돌이 될 것이다.

2024년 11월 7일

심백강, 역사학박사·민족문화연구원장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영향과 탄소중립

오성남\*

- I. 들어가는 말
- II.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영향
- III.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중립
- IV. 기후변화와에 의한 적설지역 감소와 가뭄, 산불 그리고 수자원
- V. 기후변화와 인류의 건강(질병 발생)
- VI. 중세 소빙하기 기후변화가 인류문화에 미친 영향과 교훈
- VII. 마무리

**【주제분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주요용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적응과 완화, 소빙하기, 산불, 가뭄, 폭염과 질병, 기후와 문화.

**【요약문】** 두 문명 이전에 사람(homo)이라 불릴만한 생명체들의 첫 흔적들은 3백만BP 경에 아프리카 올두바이에 나타났고, 최초의 농사는 1만 1,000BP 시기에 남서 아시아 아부후리라 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첫 문명은 5,500BP 쯤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지난 3백만 년은 빙하기가 적어도 17-19번이나 나타났던 격동적인 기후는 마지막 빙하기는 영저 드라이어스<sup>1)</sup>와 함께 1만1,500BP에 끝났다. 이 과정에 당시 온난한 티벳 지역으로 이주 하여 신석기 시대 천산(天山)을 중심으로 환국을 이루었던 역사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소빙하기(LIA)는 900AD에서 1,300AD기간의 약 400년간의 기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던 중세 온난기(MWP)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난 기후가 불안정한 한랭기였다. 소빙하기의 불안정적인 기후의 변동은 혹한의 겨울, 몹시 찌는 여름, 극심한 가뭄, 폭우, 풍년 그리고 온화한 겨울과 따뜻한 여름들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났고, 유럽인들은 이러한 불규칙적인 기후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860AD 쯤에 추위가 더위로 바뀐 다음부터 지금까지 현대인은 “지구 온난화(地球溫暖化 global warming)”라 불리는 전대미문의 기후변화를 맞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북반구 연평균 기온의 증가율은 1.0℃/100년로써 지난 1천년 기록에서 유일한, 가공할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가 분명하여 단순한 채집으로는 경제 활동을 이루어 나가기 힘들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물의 축적은 강력한 상층 계급에 의해 독점되었다. 양반들의 농업 생산 물을 확보와 정신노동 승배로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취약한 문화의 참담한 ‘선비정신’의 양반

\* (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이사

1) 영저 드라이어스는 12900-11500BP 쯤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나타났던 추운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을 끝으로 지구에 찾아온 것은 충적세(Holocene)라 불리는 오늘날의 간빙기이다.

문화 형성 배경에는 기후의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D1300년 초에서 시작되어 1900년 초까지 지속된 일련의 소빙하기 가뭄이 아시아를 황폐화하였다. 특히 조선 현종 때 1670년(경술년)과 1671년(신해년)에 발생한 경신 대기근(庚辛大飢饉)은 한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파멸적 기아 사태였다. 조선 8도 전체의 흉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당시 1200만명 인구에서 최대 100만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으며, 환경 파괴를 넘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례로, 아프리카와 같은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이주이다. 이른바 기후 난민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해결하여야 할 복잡한 도전 과제로서,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Green Swan이다.

산업발전과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은 인류의 자원 활용으로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은 보다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매년 약 95억 톤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삼림 벌채 및 기타 토지 이용 등 지구피복의 변화를 통해 15억 톤을 더 방출하고 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삼림 등 식생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매년 약 32억 톤이 흡수되는 반면, 바다는 매년 약 25억 톤을 흡수한다. 이에 따라 인류가 생산한 탄소 순 50억 톤이 매년 대기 중에 남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간 약 2.3ppm씩 증가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198개국 이 참가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2024년 11월 11일(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COP는 국제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책을 의논하는 연례 회의로, 1995년 이후 29번째 기후변화 회의이다. 주요 의제는 (1)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및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분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 (2) 선진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영방안, (3)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논의 등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기의 탄소 저감 방법은 탄소를 배출원에서 포집하여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CCUS) 방법과 대기에서 직접포집하여 탄소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방법인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 DAC) 방법이 있다. 이들은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변혁을 추진하면서 모든 국가와 기타 주요 경제국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해 글로벌 순 제로에 도달하며 2050년 또는 그 이후까지 온실가스의 순 마이너스 배출로 글로벌 이점표를 세우고 에너지 사용을 재정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와 연관된 경제, 에너지, 건강, 도시 건축, 생명과학 등에 기후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사고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겠다.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하여 검증 가능한 관측과 과학적인 제거 방법을 계속 추구하여야 한다.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인류의 활동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지구의 대기 온실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의 열 포집 기체의 증가로 1900년 부터 지구 평균기온이 1.8°F(1.0°C) 상승한 주된 원인라는 연구결과에 이의가 없다. 대기의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오존(O<sub>3</sub>) 및 염화불화탄소는 모두 인류의 활동에 의하여 배출하는 열 포집 기체이다.

지구 대기의 구성요소에서 수증기는 지구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구로부터 방사되는 장파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적효과를 나타내는 온실기체로서 다른 온실기체보다 크게 높다. 그러나 수증기의 대기 중 양은 시간적으로 항상 일정하다. 수증기의 응결로 발생하는 강수 현상은 대기의 수증기양을 감소시키지만 해양과 식생으로부터 증발되어 대기중의 수증기는 일정하게 넷 제로(Net zero)현상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효과가 없이 산업화 등 인류의 활동으로 계속 증가된 이산화탄소는 지구대기의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으로 기후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화석 연료를 태워 매년 약 95억 톤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삼림 벌채 및 기타 토지 이용 등 지구피복의 변화를 통해 15억 톤을 더 방출하고 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삼림 등 식생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매년 약 32억 톤을 흡수되는 반면, 바다는 매년 약 25억 톤을 흡수한다. 2023년 경우 인류가 생산한 탄소 순 50억 톤이 매년 대기 중에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간 약 2.3ppm씩 증가되고 있어 하와이 마우나로아 지구대기간측소에서 측정된 지구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PPm에 근접되고 있다. 1850년 제1차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거의 50% 증가시켜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해양기상청(NOAA)을 비롯하여 각국에서는 이 분자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대기 중의 농도를 정량화하는 저감 방법과 발생원을 추적하려고 시도해 왔다. CO<sub>2</sub>분자는 탄소 순환(The Carbon Cycle)이라고 하는 복잡한 일련의 흡수 및 발생과정을 통하여 탄소분자는 여러 다른 자연 저장소 사이를 이동하며 태양에너지를 받아 더욱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탄소가 저장소 사이로 이동함에 따라 대기 중으로 CO<sub>2</sub>를 방출하는 과정을 소스라고 하고 대기탄소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저장소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재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일 또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 변동에서부터 수억 년에 걸쳐 발생하는 매우 장기적인 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도로 발생한다.에서 CO<sub>2</sub>를 제거하는 과정을 싱크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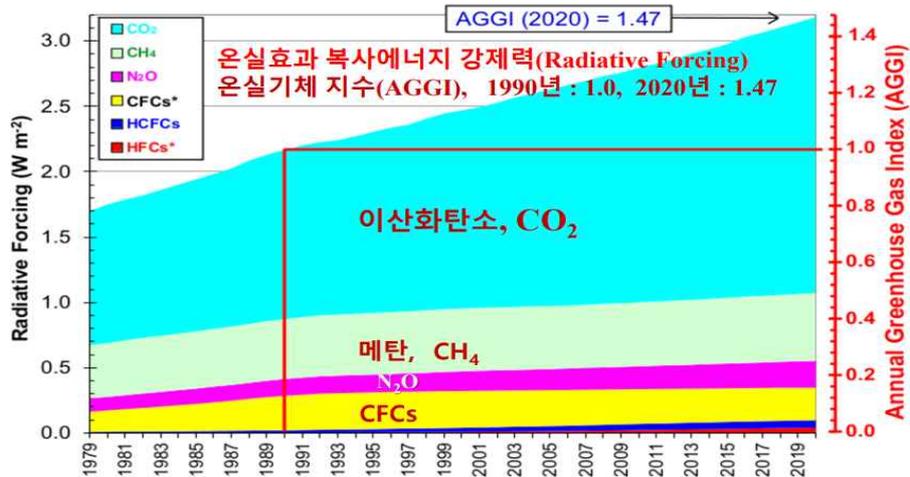


그림 1. 대기의 각 온실기체의 열적 온실효과와 1980년-2020년 기간의 농도 변화

탄소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저장소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재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일 또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 변동에서부터 수억 년에 걸쳐 발생하는 매우 장기적인 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도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식물이 성장기 동안 광합성 작용으로 대량의 CO<sub>2</sub>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의 CO<sub>2</sub> 농도는 명확한 계절적 주기가 있다. 동 식물의 호흡과 잎, 뿌리 및 유기 화합물의 분해는 CO<sub>2</sub>를 대기로 다시 방출한다. 수십 년에서 수세기에 걸친 규모에서 CO<sub>2</sub> 수준은 해양의 혼합(표층수와 심층수 사이)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표면수가 대기와 CO<sub>2</sub>를 교환함에 따라 해양과 대기 저장소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변동한다.



그림 2. 지구의 녹색 바이오 생태계(좌측)와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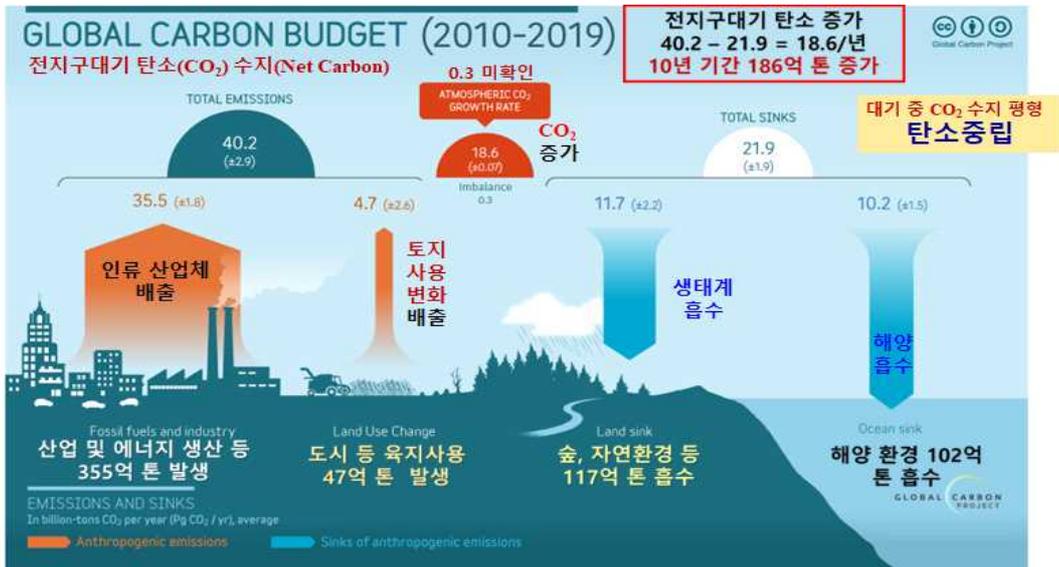


그림 3. 2010~2019년 기간 대기로 배출 및 흡수되는 이산화탄소(CO<sub>2</sub>) 순환

인간 활동으로 인한 CO<sub>2</sub> 배출량이 자연에서 방출되는 양에 비하면 작은 양이다. 지구에는 엄청난 양의 CO<sub>2</sub>를 대기로 이동시키고 방출시키는 자연적 CO<sub>2</sub> 순환이 있다. 바다와 육지 식물은 매년 2,000억 톤 이상의 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고 흡수한다. 순환이 균형을 이루면 대기 중 CO<sub>2</sub>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인간 활동은 현재 매년 약 70억 톤의 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고 있어 이는 지구대기의 열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하다. 바다와 육지 식물은 인류가 배출한 양의 약 절반을 흡수하고 나머지 절반은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남아 있다. 이것이 CO<sub>2</sub>의 빠른 축적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이 축적은 자연적인 기후변동을 증가하게 한다.

최근의 극한적인 날씨 변화가 기후변화의 하나의 결과로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적응을 감안할 때, 우리는 더 잦은 더운 날과 가뭄, 덜 잦은 추운 날, 더 많은 강수량(추운 지역에서 더 많은 눈이 내리는 것 포함)과 더 극한적인 날씨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극한 기상현상이 지구 온난화로부터 기인함을 단언하기에는 아직은 과학적 능력의 한계 밖에 있다.

지구 기후 자연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엘니뇨(El Nino)와 라니냐(La Nina) 현상이다. 엘니뇨는 수세기 동안 발생해 온 자연 현상이지만 항상 같은 규칙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현재는 약 2~7년마다 발생한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강한 온난화의 주 원인을 제공한다.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구 기후의 상호 접합 특성을 보여준다. 최근의 엘니뇨 현상은 매우 강력했고 1990년대의 기록적인 기온상승을 유도하여 엘니뇨 현상이 지구의 일부 지역의 기온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기 중 온실 가스가 축적되면 태평양에 충분한 열이 유입되어 엘니뇨 현상이 더 빈번하고 격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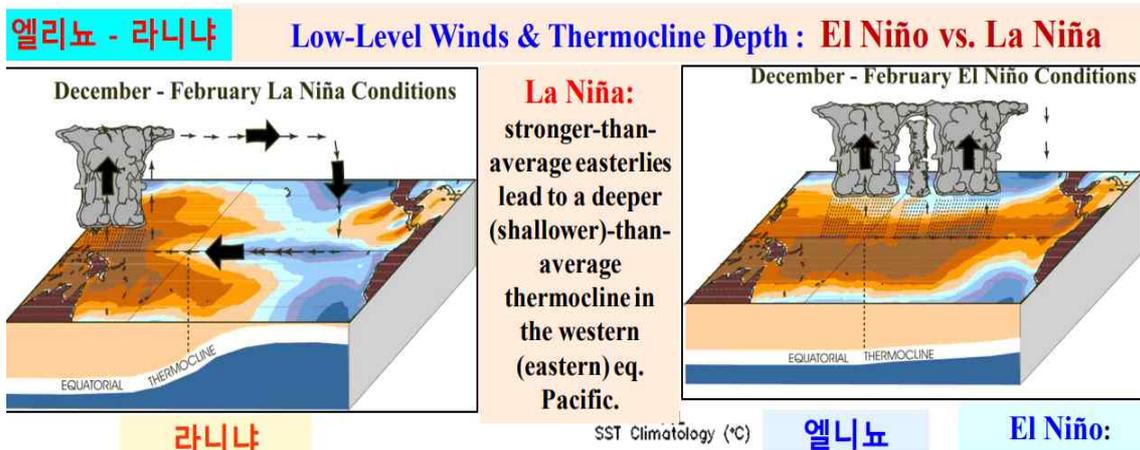


그림 4.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 II.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영향

지구 온난화가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지구 온난화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인류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구 기온상승,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가뭄 등으로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폭염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쾌적한 생활은 물론 인간 건강은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특히 어린이, 고령인,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겨울에는 기온이 더 온화해질 수 있다. 여름에는 에어컨 에너지 요금이 더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난방 요금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특히 건조한 지역인 내륙에 거주하는 경우 물 부족이 더 자주 발생하여 물 사용에 대한 제한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경우 해수면 상승과 폭풍 강도 증가로 인해 주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농업 생산과 식품 산업이 새로운 기후 패턴에 적응함에 따라 식품 비용의 변동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즐기는 야외 활동은 해변 침식 증가, 적설량 감소, 빙하 후퇴, 숲과 야생 동물의 손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연 생태계의 종은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이 어렵게 된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가 경제활동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후변화는 경제 사업주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원가와 판매 비용, 경쟁 및 사업계획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중 보건 부문에서 더위와 기후변동과 관련하여 사망률 및 질병 증가로 인해 의료 비용과 보험비의 증가가 따를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경제 사업자에게 에너지 비용은 여름에는 더 많은 냉방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비용이 덜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가뭄과 홍수가 더 잦아지고 폭풍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재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사업이 해안을 따라 위치한 경우 해수면 상승도 재산 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양의 산성화는 어류의 생태계를 변화시켜 해양 양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 운송을 수로에 의존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강물 흐름이 감소하고 호수 수위가 낮아져 운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북부 지역에서는 얼음이 없는 기간이 길어져 운송 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 임업과 농업이나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작물의 성장기 기후조건이 변하면 적응을 위한 특별한 비용이 요구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중 일부는 적응 능력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심각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 기후의 변화하는 본질을 고려하여 적응과 완화에 노력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 III.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중립

#### 1. 지구온난화 원인과 영향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인간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영향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그 강도도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세운 목표로서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C 제한값”이 2030년대에 2°C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IPCC 종합보고서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1000여명이 작성하고 검토한 내용을 각국 정부가 상세하게 검토한 합의문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C 상승할 때의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1.5°C 상승하는 때의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극도로 더운 날은 중위도(극과 열대 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1.5°C에서는 기온효과가 3°C 더 더워지는 데 비하여 2°C 상승 온난화에서는 평균기온이 4°C 더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
- 해수면 상승은 1.5°C 때 보다 0.1m 더 높아 최대 10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 해양의 산호초가 1.5°C에서는 70~90%가 사라지는 데 비해 99% 이상이 손실된다.
- 2050년에는 1.5°C보다 수억 명의 더 많은 사람들이 2°C 평균기온 상승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노출되고 빈곤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IPCC에 따르면 약 33억~36억 명의 사람들이 2°C 상승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은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 적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이러한 저개발 국가는 일반적으로 애초에 기후변화를 일으킨 온실가스 배출에 작은 비율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지역의 영향은 모든 지역에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량 이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작으로 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 2.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탄소 중립의 의미

인간 활동으로 야기된 인위적 탄소 배출량은 2014년 2040Gt에서 2400Gt으로 증가했다. 연간 탄소배출량은 2010년 기준  $49 \pm 4.5$ Gt CO<sub>2</sub>(이산화탄소 환산 Giga ton을 전체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에서 2019년 기준  $59 \pm 6.6$ GtCO<sub>2</sub>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보고서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기온 상승률은 지난 AD2000년 대에 가장 높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어도 200만년 안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IPCC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류에게 앞으로 허용된 탄소배출량은 500Gt 뿐이다. 상승 제한폭을 2도로 늘린다고 해도 탄소 배출 허용량은 1,150Gt에 불과하다. 2019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 8년~최대 23년이면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보고서는 7년 뒤인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도로 범위를 넓혀도 27%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현재 추세라면 2030년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은 2019년보다 2Gt 정도 줄어든 57Gt 정도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인류가 지표면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해수면 상승, 남극 빙산 붕괴,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리라 전망했다. 1.5도 목표를 달성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의 온난화를 저지하려면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포함한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이 '순 제로(Net zero)' 상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Net zero는 실질적으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화없이 유지되는 대기로의 배출량을 흡수량과 같게 하는 방법이다.

보고서는 1.5도나 2도 제한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 평균 투자비가 현재보다 3~6배 늘어나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IPCC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국가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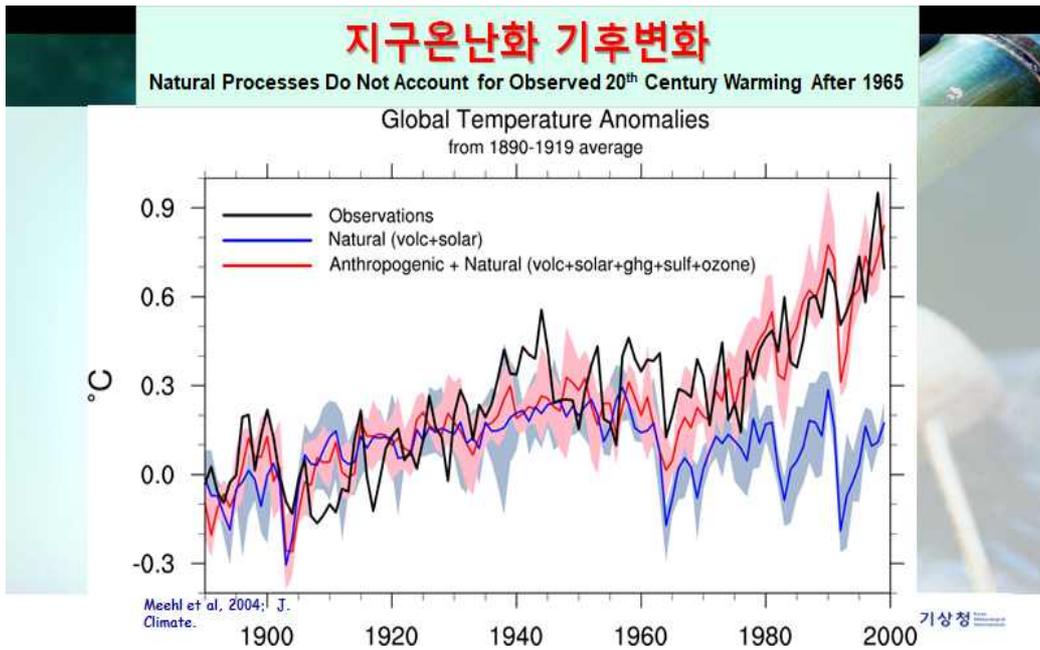


그림 5. 1850년부터 2000년까지의 지구대기 평균기온의 변화

### 3. 대기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 1) 공기 직접 포집(Direct Air Capture, DAC)

현재 탄소의 포집과 저장활용을 위한 전 세계적 전문기업들은 총 18개의 DAC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단계적 기술이 적용된다.

첫째, CO<sub>2</sub>를 대기 또는 배출구에서 포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 있다. 발전소나 제조업과 같은 산업 시설에서 포인트 소스 캡처, 또는 직접 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 기술을 사용하여 대기 중 CO<sub>2</sub>를 기계적으로 직접 뽑아낼 수도 있다. 일단 포집되면 CO<sub>2</sub>는 정화되어 가스와 액체의 특성이 결합된 상태인 초임계 단계로 압축된다.

둘째, 이 CO<sub>2</sub>는 무결성이 높은 우물을 통해 지표면 아래 깊숙이 주입된다. 지하 저수지 - 종종 5,000피트 이상 아래로 내려간다. CO<sub>2</sub>가 저장소에 도달하면 포집 메커니즘을 통해 안전하게 격리된다.

#### 2) 지질학적 격리를 통한 대기의 CO<sub>2</sub> 저장

지층 격리란 CO<sub>2</sub>를 지하 깊은 암석층에 주입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검증된 지하 이산화탄소 (CO<sub>2</sub>) 저장 방법이다. CO<sub>2</sub>를 포집하여 바다 또는 저수지에 저장함으로써 CO<sub>2</sub>가 대기로 방출

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기의 탄소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지질학적 격리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지질학, 지진학, 유체 특성화, 유정 공학 및 저수지 모델링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와 실제 적용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대규모로 CO<sub>2</sub>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검증된 도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포집된 CO<sub>2</sub>를 포항 앞 바다 1,500m 사암 암반에 주입하는 기술을 다음 4가지로 개발 중에 있다.

Caprock(유체역학적 트래핑) : 이산화탄소를 밀봉하여 비 다공성, 불투과성 암반이 거대한 뚜껑 역할을 하며 그 아래에 주입되는 모든 CO<sub>2</sub>를 격리한다. 이 암석층은 두께가 수백 피트로서 CO<sub>2</sub>를 안전하게 가두어 준다.

모공에 갇힘(잔류 트랩) : CO<sub>2</sub>의 지질학적 격리에는 강철 케이싱과 시멘트 등 여러 층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로 설계된 우물이 사용된다.

포집된 CO<sub>2</sub>를 저장할 저수지는 크고 속이 빈 공간이 아니다. 그들은 다공성 암석의 거대한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굴이라기보다 스펀지에 가깝다. 잔류 트래핑이 발생하면 CO<sub>2</sub>는 암석 자체의 작은 기공 내에 포함되어 움직이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는 비다공성, 불투과성 암반이 거대한 뚜껑 역할을 하여 그 아래에 주입되는 모든 CO<sub>2</sub>를 격리한다. 이 암석층은 두께가 수백 피트에 달할 수 있으며 CO<sub>2</sub>를 안전하게 가두어 준다.

형성된 유체에 용해됨(용해성 트래핑) : 주입된 CO<sub>2</sub>는 저수지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염수에 용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자 확산 과정은 다양한 농도 구배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용해는 염수의 밀도를 증가시켜 염수를 지층에서 훨씬 더 낮게 가라앉게 만들어 CO<sub>2</sub>의 상향 이동을 줄이고 저수지 저장 용량을 증가시킨다.

광물로 전환(미네랄 트래핑) : 이러한 형태의 트래핑을 통해 CO<sub>2</sub>는 일련의 지구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자 수준에서 암석층에 존재하는 미네랄과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새롭고 단단하며 안정적인 탄산염 광물이 형성된다. CO<sub>2</sub>는 실제로 암석의 일부가 된다. 영국 켄트주 도버의 백악절벽은 탄산칼슘(CaCO<sub>3</sub>)의 미네랄 초크 성분의 미네랄 트래핑의 한 사례이다.

### 3) CCS와 CCUS 기술

대기의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포집 및 저장(CCS) 또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격리(CCUS)는 IPCC가 설정한 기후변화 완화 경로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포집 기술은 재생 에너지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CCUS는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이다. CCUS는 연소시스템의 굴뚝, 산업 공정, 공기 등 다양한 흐름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농축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 4. 블루카본(Blue Carbon)의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

블루카본(Bluecarbon)은 대기에서 흡수되어 바다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를 일컫는다. 따라서 바다의 "파란색"은 이 카본 저장소로서의 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블루카본의 대부분은 바다에 직접 용해된 이산화탄소(CO<sub>2</sub>)이다.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이 수중 퇴적물과 해안해역 식생 및 토양에 저장된다. 고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이르는 해양 생물 등에서 추출되는 DNA 및 단백질과 같은 탄소 함유 분자가 이에 속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약(IPCC 등)은 연안의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 지구적인 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해안 생태계(염습지, 맹그로브, 해초 초원)는 발자국은 작지만 깊고 물에 잠긴 토양은 열대 우림보다 에이커당 몇 배 더 많은 탄소를 매장할 수 있다.

해안 블루카본 생태계의 탄소저장 잠재력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염습지, 맹그로브, 해초 초원을 의미한다. 해초 층은 염분이 많은 해양환경에서 자라는 꽃식물로 구성되어 있고 맹그로브는 밀물 때 바닷물에 의해 범람하기 쉬운 해안 늪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 관목 또는 야자수 등을 포함한다.

해안 생태계의 역할로서 토양과 식물은 전체적으로 100억~240억 톤의 탄소를 저장한다. 또한 매년 그들은 토양에 3천만에서 7천만 톤을 추가 저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양인 것처럼 보이나 이는 실제로 지구적 이산화탄소의 양(40조 톤)에 비하면 매우 작은 양이다, 세계 영구 동토층에 얼어붙은 탄소(1조 7천억 미터톤)양과 전 세계 숲과 기타 식물에 존재하는 450조 톤의 양에 비하여 바다에 직접 용해되는 탄소의 양(6500억 톤)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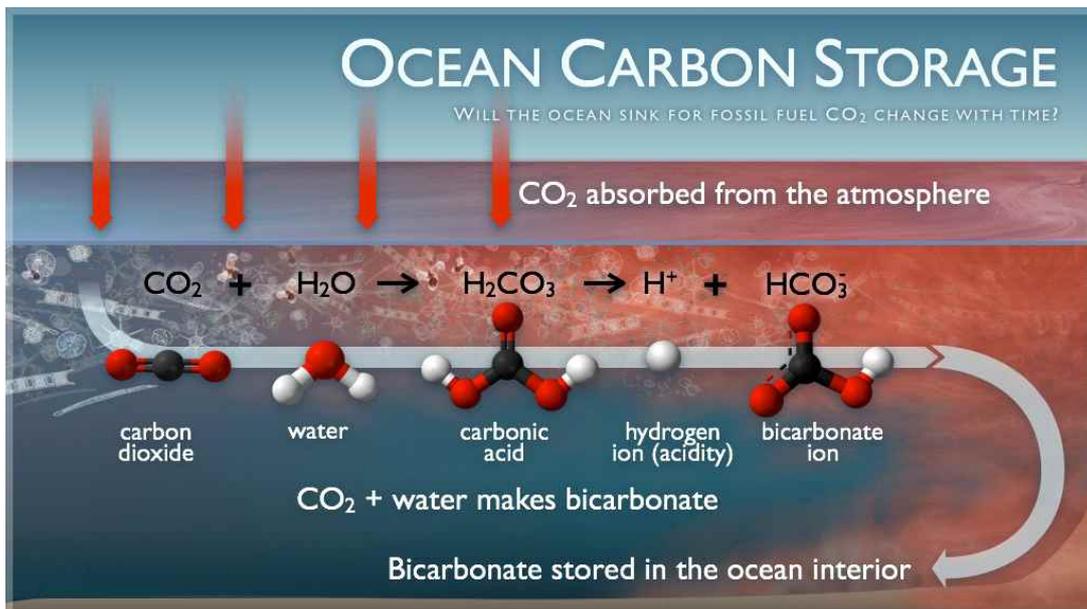


그림 6. 해양의 탄소 저장 모식도

그러나 국부적으로 매장된 탄소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식생 지역 외부의 해안 퇴적물에 묻혀 있는 상당량의 탄소는 해류가 유기물을 해안 선반에서 더 멀리 운반하기 때문에 청색 탄소 생태계에서 나온다. 식생되지 않은 퇴적물로의 탄소 수출은 1억 2천 6백만 톤에 달한다. 따라서 다시마와 기타 대형 조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청색 탄소 생태계는 매년 연안 해양 지역에 매장 되는 총 탄소의 약 절반을 담당한다.

## 2) 블루카본의 이점과 역할

미국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기상청 NOAA의 기후 프로그램 사무소가 이끄는 Blue Carbon Inventory Project는 미국 환경 보호국(EPA), 미국 농무부 산림청(USDA/FS), 스미 소니언 환경연구 센터 등은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 그룹은 탄소 저장 및 해안 복원력을 위한 해안 블루 카본의 이점을 평가하고 많은 해안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있다.

블루 카본 생태계는 탄소 저장 혜택 외에도 지역 경제에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건강한 어업을 지원하고 해안 보호를 제공한다. 맹그로브는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한다. 해안선을 안정화하고 파도 에너지를 줄여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지역 사회에 가해지는 홍수 위험을 줄인다. 해초 초원은 뿌리에 부유 퇴적물을 가두어 빛 감쇠를 증가시키고 수질을 개선하며 침식을 줄인다. 또한 해안 습지는 오염물질(예: 중금속, 영양분, 부유 물질)을 흡수하여 수질을 유지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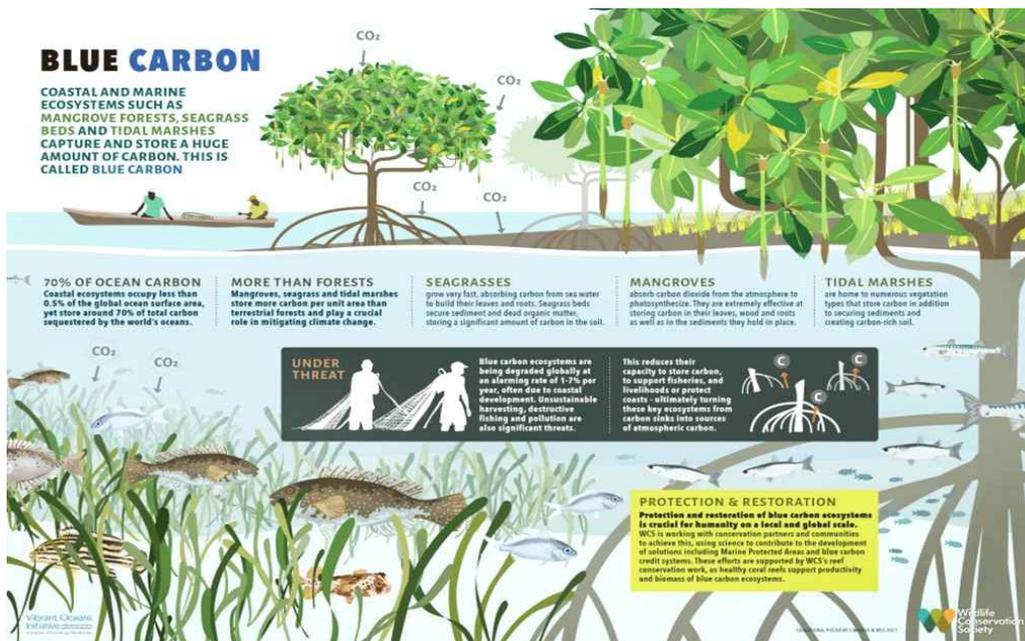


그림 7. 블루카본(Blue Carbon) 흡수체, 해인의 맹그로브

## IV. 기후변화와에 의한 적설지역 감소와 산불 그리고 수자원

### 1. 하천 수로와 담수의 수자원

지구상의 물은 약 96.3%가 염분이다. 만년설, 호수, 강, 지하수, 토양 수분 및 대기의 수증기를 포함한 육지의 담수(freshwater)는 다만 지구 표면의 2.7%에 해당된다. 하천에 의한 담수는 지구 전체 물의 0.0002%에 불과하다. 하천은 에너지, 물질 및 종의 흐름을 위한 중요한 자연통로이며 생물다양성과 경관 유지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인구 증가와 가뭄에 대하여 하천의 담수는 국가의 식량 공급, 물 수요, 산업개발 및 국가 안보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 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대규모 댐과 저수지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대형 댐의 수는 세계적으로 1950년에 5,000개 였으나 2017년 약 50,000개로 증가하였고 관개면적도 1억 4,000만 헥타르에서 두 배로 늘어나 2억 8,000만 헥타르로 확장되었다. 공공 관개시설과 수력발전 및 관련된 댐의 개발은 냉전시대 지정학적으로 광범위한 국가정책의 핵심이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 물은 환경 및 식량 안보 문제와 중요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역 안보협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대를 망라하여 국가는 물을 정치적 영향력의 수단이자 권력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왔다.

오늘날 지구 지표면의 거의 절반을 덮는 전 세계 담수 흐름의 약 60%를 생성하는 263개 이상의 국제 수로가 있다. 이들 수로는 145개 국가의 영토를 횡단하며 세계 인구의 약 40%가 수로 주위에 살고 있다.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강은 수자원 공유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분쟁을 제기한다. 공유 하천 수역에 대한 갈등은 권력 관계와 경쟁하거나 충돌하는 국가의 상류-하류 위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해석될 수 없다. 중동과 같은 건조 및 반 건조 지역에서 물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며 물 부족은 개발을 바탕으로 한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유 강물에 대한 갈등은 상태의 업스트림 - 다운스트림 위치 지정의 중요성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 관계와 경쟁 또는 충돌하는 주요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예로서, 터키와 이란의 티그리스 강 상류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약 100개의 대형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여 운영한 지 4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강의 흐름을 크게 저하시켰고, 2012년에 습지의 건조함을 비롯한 심각한 토지와 환경 파괴를 초래하였다.

수천 년 동안 오늘날의 이라크 영토로 유입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메소포타미아(두 강 사이의 땅) 지역은 물 부족과 사막화에 직면해 있다. 터키와 이란의 상류개발과 기후변화의 심화 현상과 분쟁의 중심지로서 환경파괴와 더불어 2018년에 UN 환경 프로그램은 이라크가 약 25,000헥타르의 경작지를 잃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 2. 적설지역 감소와 수자원

지구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인류가 가장 많이 수자원을 사용하는 중위도 지역 국가들의 수자원 원천은 겨울철 쌓여있는 스노우 팩(적설)이다. 적설은 자연 생태계, 농업, 레크리에이션 및 인류의 생계를 유지하는 담수 자원을 제공한다. 기후변화 예측 수치모델 결과에 따르면 북반구의 적설량은 금세기 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의 물 안보 및 생태계 기능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적설의 양이 수자원 가용성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생태학적 가변성이 높은 잠재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금세기에는 광범위한 적설지역의 감소, 보다 빠른 눈 녹는 시기, 길어진 농사 재배 기간, 더 건조한 토양, 산불 화재 위험이 증가 됨이 예측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감소하는 눈덩이는 신뢰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을 잃어 하천 유출수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이는 생태계 스트레스 및 수자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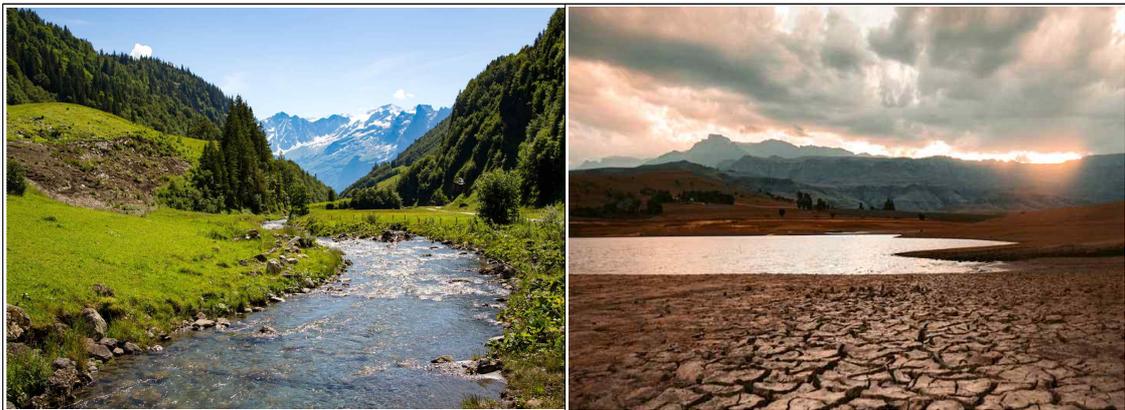


그림 8. 적설에 의한 풍부한 하천의 유출(좌)과 가뭄 지역(우)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연구팀은 매년 거의 같은 양의 강수량을 계속 받는 지역에서도 하천의 흐름이 더 가변적이고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발견하였다. 수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원천인 눈 쌓임(Snow Pack)이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미래에 신뢰할 수 있는 유출수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수자원의 양과 가용 시기는 비 정기적인 강수에 점점 더 의존되고 있다.

“물 관리자”는 적설이 녹아 하천 유출수로 흐르는 것을 예측하는 데는 4~6개월의 리드 타임이 요구된다. 관측에 따르면 지구의 적설은 이미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 감소는 세기말에 더욱 두드러져 북미지역의 경우 록키산맥 일부 지역은 겨울이 끝날 때 적설에 의한 수자원의 양이 평균 거의 80%까지 급락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밝혔다.

유출수와 하천 흐름의 변화는 적설에 의한 안정적인 수분공급에 의존하는 생태계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립기상과학연구원(NCAR) 연구자는 경고한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지만 눈이 내리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생육기간이 길어지면 서 수자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많은 지역의 토양이 건조해지고 산불 발생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지구대기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비율로 계속된다는 가정(SSP3-7.0 기후예측 시나리오)에서 Wieder는 모든 국가가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면 적설량, 하천 유출 수 및 생태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영향을 피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저수지 및 기반 시설 계획에는 겨울철 적설의 변화와 특성 그리고 그에 따른 하천의 흐름에 대한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한다.

### 3. 산불과 수자원

금세기 미국 서부는 최근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에 폭우로 범람시킬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토석류, 산사태 및 돌발 홍수를 포함하여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황폐한 자연환경은 많은 수분을 쉽게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 1년 이내에 극심한 산불화재와 이에 따른 극한의 폭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8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세기말까지 태평양 북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연구팀이 집중한 3개 지역(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태평양 북서부 포함)에서 발생한 극한적 화재 사건의 90% 이상이 5년 이내에 최소 3번의 발생과 이어 극한 강우가 뒤따를 것이다.

화재 피해지역에 내리는 폭우는 종종 예측이 용이하지 않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짧고 강렬한 강우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2년 콜로라도 글렌드캐년의 집중 호우로 인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여 I-70도로가 폐쇄되어 100명 이상의 주민들은 몇 주 동안 협곡에 머물렀다.

산불화재 발생 후 토석류의 위험은 3-5년 동안 지속되고 돌발 홍수의 위험은 5-8년 동안 지속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최소 1.6년의 시간이 요구되며 지표 피복과 식물의 잔뿌리가 회복된 후 식생이 다시 자라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둘째 주 캐나다 동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의 공기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된 후에도 유독성 스모그로 인해 목구멍 뒤쪽 부분은 화상과 심한 따가움을 느낄 수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아침에 눈이 부어오르며 기분이 상쾌하지 않았다. 뉴욕시에서는 대기오염과 건강 안전 위험도를 측정하는 대기질 지수(AQI)가 수요일(6월7일) 저녁 484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500까지 측정한계 최대 지수) 필라델피아도 400을 넘어섰다.

온난화된 기후에서 극심한 산불 이후 극심한 강우 현상의 빈도를 연구하기 위해 강력한 컴퓨터인 NCAR 기반 커뮤니티 지구 시스템모델을 비롯한 여러 기후 및 날씨 모델에 의한 앙상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모델의 대상으로 미국 서부지역의 기후변화 가능성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세기말까지 극한의 기상조건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대부분 지역에서는 향후 수십 년 이내에 극한의 산불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V. 기후변화와 인류의 건강(질병 발생)

### 1. 기후환경과 질병

기후는 생태계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특정 질병의 발병 시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질병의 환경적 노출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집단과 장소의 민감도에 따라 적응 능력 취약성이 나타난다. 환경과 사회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극심한 열, 대기오염, 공기 알레르기 항원, 곰팡이,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질병, 인플루엔자, 설치류 매개 질병 등이 포함된다(그림 1). 따라서 기후에 민감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 백신, 진단에 대한 연구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인류의 보건과 건강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23년 ‘기후위기는 건강위기’라고 경고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긴급한 기후행동(climate action)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가 아닌 현재 인류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기후위기는 비전염성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보건의로 인력과 인프라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건강위기”라고 피력했다.

WHO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150,000명의 생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질병, 홍수 및 영양실조에 대한 결과의 부분 목록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이다. 이러한 사망자 중 많은 수가 세계 열대 지역의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HO는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와 연관된 열 스트레스, 영양실조, Dengue, 말라리아 및 기타 매개체 매개 질병으로 인해 연간 약 250,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학계도 2021년 대규모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 보건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NEJM, The Lancet, BMJ 등 전 세계 200여개 보건의학 학술지는 지구 기온

상승과 생물 다양성 파괴는 인류 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될 수 있어 기후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위협하고 있음을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새로운 의료체계 필요성을 예측하고 기후위기 원인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미래의 영향은 극적일 수 있다. 특히 일부 열대성 질병이 이전의 온대 지역으로 확장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누가 영향을 받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효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기후변화가 깊어가는 현실을 직시하여 기후에 따른 질병 전파와 유병률의 변화하는 패턴을 잘 파악하여 탄소 배출량이 의약품 개발 및 제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초래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이며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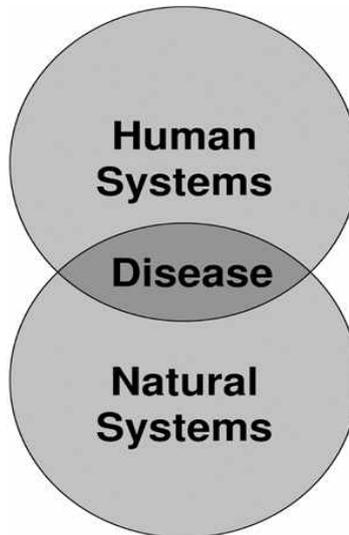


그림9. 자연과 인간 시스템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질병시스템

## 2. 폭염과 추위에 의한 질병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은 평균 기온보다 10% 이상 높은 사망률을 초래한다 (Huynen et al. 2001). 일반적으로 날씨 스트레스는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다. 대신, 심장이나 폐 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약자는 직업을 통해 열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예: 야외 노동자)과 마찬가지로 열사병 및 저체온증 등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의 한파 영향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열섬효과와 호우의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열파의 영향은 일반적인 온도에 의한 영향과는 상대적이다. 한 도시의 기록적인 더위는 저위도의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정상일 수 있다. 열 스트레스는 거주

자가 냉각 부족, 불리한 건물 설계 및 물리적 허용 오차로 인해 비정상적인 조건에 적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사례로서, 미국 시카고 시는 1995년 7월에 높은 폭염으로 예년에 비하여 4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한 사건의 전형으로 매우 높은 기온과 그에 따른 사망자 수 사이에는 2-3일의 지연 시간이 나타났다(Patz et al. 2001). 2003년 여름에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5,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파리에서는 약 10일 동안 기온이 평균보다 10°C 높게 나타나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였다(Kalkstein et al. 2007). 유사한 폭염이 뉴욕시에 투영되면 거의 3,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Epstein and Mills 2005).

온난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도시열섬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특히 하룻밤 사이에 도시가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는 도시화의 열섬 기후효과가 일일 최저 기온이 5°C 이상 더 높아질 수 있다. 즉, 겨울 서리가 적어지고 봄철이 더 빠르게 도래하며 여름에는 야간 최저 온도가 더 높아진다. 도시와 습도 수준에 따라 후자는 주간 고온의 완화를 줄이고 날씨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야간의 최저 기온에 대한 기후모델 예측에 의하면 도시의 연중 가장 더운 밤이 약 10°C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 열섬 효과를 고려하기 전에 지역 조건으로 이러한 예측을 더 높거나 더 낮게 조절할 수 있지만 열적 사망의 증가에 대한 전반적인 잠재력은 높다.

## 2. 대기 오염

대기의 특정 오염물질의 정확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Pope et al. 2002) 대기질과 건강 사이의 관계는 과거부터 잘 알려져 왔다. 연기 오염농도가 오늘날보다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높았던 1950년대의 악명 높은 런던 스모그에서 수천 명이 사망(1952년 12월 약 4,000명 추정)했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Harrison 2006).

'스모그'라는 단어는 '연기'와 '안개'의 축약된 용어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면 수준의 오존 오염(광화학적 스모그)을 포함하기 위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사건은 1950년대 중반 영국의 대기청정법(Clean Air Acts)과 미국의 유사한 법령 발전으로 이어져 현대 환경운동의 단초로서 일부를 구성하였다. 미국의 획기적인 1970년 대기 청정법(Clean Air Act)과 같은 이러한 법률과 이후 수십 년 동안 극적인 대기질 개선을 가져와, 이는 환경 규제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더 높은 온도는 지표면의 오존 오염을 증가시킨다. 전구체 오염물질로 부터 오존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더 따뜻한 조건에서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구름이 없는 조건이 증가하면 더 많은 태양복사가 오존 수준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지상의 오존이 미치는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호흡 문제, 기도 염증 및 감염에 대한 저항 감소가 포함된다. 기후변화 예측은 매년 더 길고 더 심각하고 더 광범위한 고 오존 시즌의

가능성을 나타낸다(Hogrefe et al. 2004). 상대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기후변화 영향에는 미립자 물질로 인한 먼지 오염이 포함될 수 있다. 온난화는 수분 증가가 기온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서 건조기 상태를 초래하고 토양 건조로 인해 더 높은 먼지 농도와 장거리 먼지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미립자 오염은 조기사망, 호흡기 질환, 천식 악화, 만성 기관지염 및 폐 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다.

#### 4. 공기 알레르기 항원과 곰팡이 영향

대기에 증가된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미치는 직접적인 비료 효과는 바이오매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효과는 또한 꽃가루 생산을 크게 증가시킨다. Ragweed는 일반적인 공기 알레르기 항원이다. 2배의 이산화탄소에서 키울 때 식물의 높이는 9% 증가하지만 꽃가루는 61% 더 많이 생성된다. 꽃가루의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봄 계절이 일찍 시작함으로써 이미 많은 알레르겐을 생산하는 식물의 성장 기간이 연장된다. 사례로, 유럽에서 Sambucus(장로)의 첫 꽃가루 날짜는 1970년대 6월에서 3주 이상 빨라진 5월 중순으로 이동했다(Van Vliet et al., 2002).

대기의 미립자 에어러졸과 관련하여 대기의 온도와 습도 패턴의 변화는 곰팡이와 곰팡이의 공간 분포와 시기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북미와 남미의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는 병원성 토양 균류 계곡열(Coccidioides 진균증)이라는 질병을 발생시킨다. 고고학 탐구나 건물 건설과 같은 직업은 토양 교란을 수반하므로 곰팡이 포자에 대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기후는 토양 수분의 변화와 포자의 후속 분산에 의해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과 관련이 있다. 주요 계절에 토양의 습윤 및 건조의 순서는 곰팡이 성장에 이어 건조 및 먼지가 많은 포자 형성으로 이어진다. 포자의 분산은 형성 이후 발생할 수 있다.

#### 5.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질병

강수와 기온 변동은 물과 식품의 병원체와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두 가지 예가 이러한 결과를 잘 보여준다. 자연적인 홍수 사건은 수위가 상승하고 잔해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분변 박테리아(*Escherichia coli*)의 증가를 유발한다. 박테리아는 초기 수위 상승 및 유실이 발생함에 따라 처음 몇 시간 동안 스파이크를 계산한다.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월간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다(WHO 2003). 여기에는 대부분 부적절한 냉장 및 식품 오염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

수인성 병원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일부 예에는 지아디아, 콜레라, 크립토스포리디움, 로타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사이클로스포라, A형 및 E형 간염 바이러스

가 포함된다.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써 상처 감염에서 설사, 장기 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보다 복잡한 기후변화 영향은 플로리다의 조개 중독(굴의 *Vibrio vulnificus*)을 사례가 잘 설명된다. 감염과 사망의 명확한 여름 피크는 수년에 걸쳐 나타나며, 병원균은 부분적으로 강어귀의 계절적 온도와 염분에 의해 제어된다(Rose et al. 2001). 강우 및 유출수의 기후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염분 및 온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오염 사건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콜레라는 주요 수인성 질병으로서 해양 및 하구 요각류(동물성 플랑크톤)에 부착하는 박테리아 비브리오 콜레라에 의해 발생된다. 담수는 이전 감염의 분변 오염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1854년 전염병이 유행하던 기간동안 런던에서 콜레라 사례를 매핑한 John Snow는 획기적인 초기 지리 및 역학 연구를 수행통하여 Broad Street의 특정 공공 수도 펌프 주변에 사례가 집중된 것을 감지하고 그 펌프의 물이 오염되었다고 추론하였다. 콜레라-기후 연결은 해양 온도, pH 및 염분의 변화로 인한 동물성 플랑크톤 변성을 통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콜레라 유행률은 인근 해수면 온도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이는 강우와 유출수를 통해 pH와 염도에 추가로 미치는 기후변화의 단계적 영향과 연결된다.

## 6.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계절성이 강한 질병이지만 계절성에 대한 근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해마다 인플루엔자의 발병과 독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순환하는 바이러스 아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매년 겨울 발병의 시기는 부분적으로 항공 여행 등으로 급속한 전염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많은 경우에 며칠 이내에 국가 간에, 심지어 반구에 걸쳐 현저하게 동기화된다(Viboud et al. 2004a). 남반구 피크는 6개월 동안 북반구와 위상이 다르며 일관되게 앞서거나 뒤쳐지지 않는다. 열대 지방에는 혼합 패턴이 있다. 분명히 어떤 종류의 계절적 통제가 작동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겨울에 실내에 붐비는 것 또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 등 어느 것도 정확한 증거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제한된 증거가 프랑스에서 조사되었다(Viboud et al. 2004b).

인플루엔자의 계절성에서 기후의 역할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있지만 그 중 다수는 주어진 현재 건강 데이터를 조사하기 어렵다. 한 가지 가능성은 생태학적 계절성이다. 바이러스의 토착 숙주는 오리와 같은 야생 물새이지만 돼지, 소, 고양이 및 닭과 같은 가축을 포함하여 다른 새와 동물이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이다. 계절성은 새로운 바이러스 아형, 연간 섭식 또는 번식 주기 또는 이동에 대한 발원지에서 증가된 인간과 동물의 접촉을 통해 도입될 수 있다.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은 계절적일 수 있다.

## 7. 설치류 매개 질병과 곤충 매개체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흑사병은 선 페스트의 전염병이었다. 전염병은 설치류의 벼룩이 옮기는 박테리아(*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한다. 사회적 조건은 14세기에 쥐 서식지와 인간 사이에 강한 중첩을 가져왔다. 오늘날, 흑사병은 미국과 아프리카 일부,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를 포함하여 훨씬 더 낮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인간과 동물사이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이다. 기후는 설치류 생태를 통해 전염병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중앙 아시아(카자흐스탄)의 따뜻한 봄과 더 습한 여름은 쥐벼룩의 개체수 증가로 이어지며 온도가 1°C 증가하면 *Y. pestis*가 50% 증가한다(Stenseth et al. 2006).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대변에 옮겨져 사람에게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킨다. 미국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매년 거의 500건의 사례가 발생하지만 주로 남서부의 Four Corners 주에서 발생한다(CDC 2006b). 기후 변동성이 높은 이 지역에서 겨울이 습하면 일반적으로 이듬해 봄에 풍부한 초목과 설치류 식량 공급이 이어져 설치류 개체수가 증가하고 감염된 설치류의 수가 증가하므로 집 안팎에서 설치류 대변 및 소변과의 인간 접촉도 증가한다. 이 순서는 1992-1993년 이 지역에서 엘니노와 관련된 습한 겨울 이후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1993년 여름에 주요 한타바이러스 폐 증후군이 발생하였다.

라임병은 처음 발병한 코네티컷주 라임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것은 사슴과 생쥐에서 발견되는 사슴 진드기 *Ixodes scapularis*가 옮기는 박테리아 *Borrelia burgdorferi*에 의해 발생한다. 미국 동부의 숲 가장자리 확장으로 사슴과 쥐의 서식지와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슴 진드기에 물릴 사람들의 노출도 증가하였다. 라임병은 많은 동부 및 남부 주에 걸쳐 만연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겨울이 더 따뜻해지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적절한 서식지의 범위가 향후 수십 년 내에 중서부 주와 캐나다 남동부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이다.

말라리아는 원생동물 기생충 *Plasmodiums*에 의해 발생한다. 인간 숙주 사이에 질병을 옮기는 암컷 *Anopheles*모기에 의해 옮겨진다.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막대한 질병 부담을 안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건의 임상 사례와 1-3백만 명의 사망자(많은 어린이 포함)가 있다(CDC 2006c). 기후는 모기 생활사를 통해 말라리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수량의 변동과 습도는 번식을 위한 고인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반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는 속도가 증가하고 유충이 더 빨리 발달하고 종의 범위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초 모잠비크 마푸토의 주요 강우 사건은 3-8주 후에 말라리아 발병으로 이어졌다(Epstein and Mills 2005).

Dengue열은 또한 모기를 통해 인간과 영장류 숙주 사이에서 전염된다. 4개의 바이러스 균주가 있으며, 하나 이상의 균주에 감염되면 Dengue 출혈열(DHF)로 알려진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간 Dengue열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건이 발생하며 연간 DHF 발병 건수는 250,000건

이다. DHF의 발병률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몇 배 증가하였다. 덩기열 위험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은 열대 지방의 핵심 고유 지역에서 아열대 지방으로 확장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 VI. 중세 소빙하기 기후변화가 인류문화에 미친 영향과 교훈

인류의 많은 사건(인류의 진화, 갈등, 전쟁, 질병, 산업과 과학의 발전)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되었다. 1만년 전 영거드라이아스(YD) 1000년 기간의 짧은 빙하기 하인릿히 기후변화 사건은 인류를 진화시켜 오늘날 현대인 크로마뇽인(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을 탄생하게 하였고 중세 기후변화 소빙하기(Little Ice Age, LIA)는 종교혁명과 문예부흥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소빙하기(LIA)"는 기후학자들의 용어로서 46억년 전 지구의 탄생 이래 수많은 장기간의 빙하기에 비하여 극히 짧은 차가운 기후 시기였다. 기후학자들은 온난한 기후 기간에 짧게(1000년 이내) 나타난 차가운 기간을 하인릿히 사건이라 명한다.

기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던 중세 온난기(AD800~1300) 직 후 발생한 소빙하기(AD1350~1850년) 약 500년 동안 기후가 매우 불안정한 한랭한 시기였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였다. 고고학자인 브라이언 패건에 따르면 소빙하기 기후의 제일 큰 특징은 '불안정'으로서 20세기와 비교할 때 소빙하기 동안의 겨울철 기온변동 폭은 40~50%가 더 높았다.

소빙하기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고흐 등 유명화가에 의한 2만 여점의 그림과 함께 많은 증거가 남아있다. 당시 발트해를 중심으로 유럽의 강과 호수는 대부분 얼어 빙상(Ice Pack)이 되었고 Ice Pack은 대서양 먼 남쪽으로 확장하여 아이슬랜드와 그린란드로의 배송 운항을 몇 달 동안 불가능하게 하였다.

소빙하기(LIA)는 2개의 기후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첫 기간은 1290년경에 시작하여 140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가 1500년대에 다소 온난한 시기가 계속되었고, 이후 두 번째 기간으로서 1645년에서 1715년 사이의 가장 추운 기후로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짧은 빙하 기간이었지만 북반구의 평균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2℃ 정도 낮았다는 증거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LIA 기간은 기아와 수많은 전쟁, 역병 등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기후변동의 시기였고 제1차 산업혁명의 단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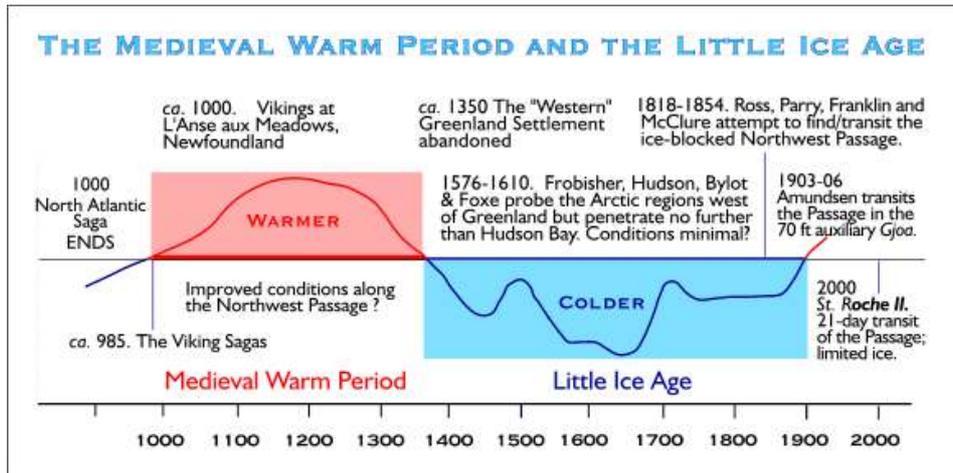


그림10. 중세 온난기(MWP)와 소빙하기(LIA) 기간의 지구 평균기온의 변동

### 1. 소빙하기의 원인

중세 온난기(MWP)(1000~1300년)는 약 300년간 동안 온화한 기후와 적당한 강우 등으로 부흥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기울기가 줄어들어는 마운드극소기(Maunder Minimum)를 맞이하여 1300년 이후 매우 추운 기후가 시작된 것이다.

지구대기의 평균 기온이 1℃정도 낮았고 특히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북대서양지역은 편서기류의 북극진동 폭이 크게 남하하여 평균기온이 5℃정도 낮은 시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태양 활동의 감소와 LIA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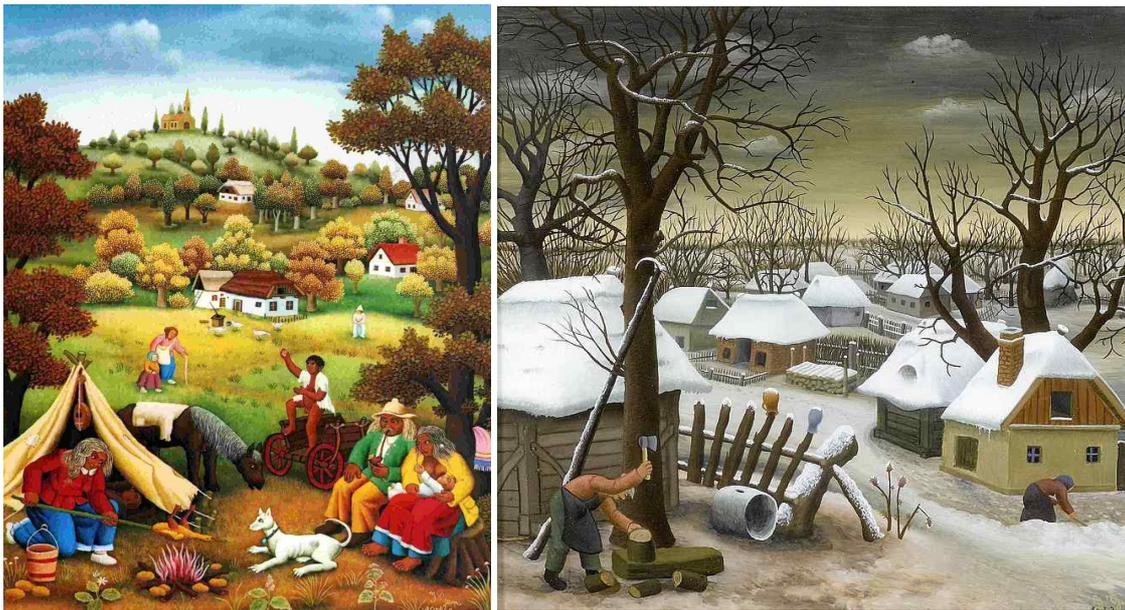


그림 11. 중세 온난기(MWP)의 풍요로움(좌측)과 중세 소빙하기(LIA) 시대의 추운 날씨(우측)를 표현한 미술품

LIA 기후변화에 대하여 화산 활동은 LIA 기간동안 매우 높았으며 화산 폭발에서 발생한 화산재 미세먼지(aerosol)는 수년 동안 성층권 하부에 부유하여 태양복사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기후에 강력한 냉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빙하기 발생 원인으로서 거대한 화산 폭발로 방출한 SO<sub>2</sub>기체와 수증기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 입자 에어로졸은 성층권 하부 층에 오랫동안 남아 태양복사에너지를 반사한다. 실제로 1883년에 있었던 크라카타우 화산과 1815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은 북반구의 대륙권 평균 기온을 약 0.3~0.4℃ 낮추었다. 그보다 더 큰 화산 폭발로 알려진 7만 4천년 전의 토바 화산폭발은 북반구의 온도를 3~5℃나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된다.

## 2. LIA기후의 영향과 사회적 혼란

중세온난기(MCA) 동안에는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이 강화되어 이와 관련된 국지적 호우현상으로 홍수 혹은 하천의 범람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세온난기(MCA)가 끝나고 LIA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동아시아 몬순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몬순의 약화는 이 기간 동안 심각한 가뭄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LIA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따라서 소빙하기(LIA)의 영향으로서 국지적으로 호우와 폭풍이 잦았다. 극 전선 Jet 기류가 급속히 남하하여 강력한 저기압 시스템이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독일에서는 13세기 해안지역의 바다홍수로 100,000명이 사망하였고 중세온난기(MWP)동안 해빙의 녹음으로 상승한 해수면에 의하여 대 홍수가 발생하였다. 1421년, 1446년, 1570년 해수의 범람으로 10만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유럽 각처에서 혹독한 한파에 이어 갑작스런 도래한 혹서로 대부분의 가축들이 절멸되었다. 바닷가 해안의 극심한 모래 폭풍과 침식으로 농토는 폐허화 되었다. LIA 기간 동안 굶어 영양 실종된 사람들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 수가 수백만이 넘었고 특히 그린랜드와 아이스랜드의 바이킹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소빙하기(1350년-1850년)는 우리나라 조선의 개국 시기(1392년-1910년)와 일치한다. 이 조 500년 역사는 가뭄과 기근 그리고 전란에 시달려 종내에는 망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소빙하기 동안 춥고 가뭄이 계속되는 혹한으로 기근이 극심하여 허덕였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뭄이 없었던 일본은 힘의 발로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고 이것이 임진·정유왜란이다.

중세온난기의 풍요로움으로부터 강력해진 몽고의 징기스칸은 갑작스런 추위와 기근에 못이겨 유럽을 침략하게 되었지만, 오랜 전쟁의 결과로 흑사병이 창궐하여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인 4,000만명이 사망하였다. 더욱이 마녀사냥 등 종교적 갈등도 극심하여 견디지 못한 유럽인들은 새로운 세계를 찾아 항해를 시작하게 된 대항해 시대의 개관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다. 그러나 이주 초기 이들은 풍토병 등으로 신대륙에 정착하지 못하였다.

소빙하기 말기 기후의 극소는 더욱 극심하였고 AD1800년 이후 추위에 지친 유럽인들은 겨울용 모피를 선호하게 되었고 일차대전 직전 미국은 모피를 대량 생산,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추운 계절 땀감을 구하지 못한 유럽인들은 석탄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대량 수송을 위한 기관차의 이용과 강철의 발명 등 영국에서 제1차 산업혁명의 단초가 되었다. 과학문명의 발전이나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후의 변동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차가운 기온과 가뭄은 농업과 어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당시 유럽의 경제는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습한 기후로 인해 곡물에 곰팡이가 생겼으며 곡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곰팡이까지 같이 섭취하여 곰팡이의 독으로 인한 경련, 환각, 히스테리, 심하면 에르고틴 중독으로 인해 사지가 떨어져나가는 병까지 걸렸다. 기독교인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기후를 마귀가 지구를 장악한 결과로 생각하여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차고 습한 날씨에 조밀한 생활 환경으로 악화된 위생 상태와 부족한 영양과 빈약한 난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 대구잡이 어획량도 급속히 크게 줄었고 알프스 지역에서 금을 채광하는 것도 연이은 습한 여름 탄광의 나쁜 환경으로 어렵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세계의 경제는 나빠졌다. 1400년대 후반에 수산 시장은 급락하고 차가운 해류로 인하여 수산 어장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해안의 어부들은 고기잡이와 농사를 포기하고 큰 배를 제작하여 목재 등을 운반하는 상인으로 변모하였다.

소빙하기 동안의 사회적 불안은 갖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1709년 겨울에 대하여 Angers에 있던 한 교회 사제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혹독한 추위는 24시간 내내 계속되었고 곡식은 바닥이 났으며 그나마 키우던 닭장의 닭들은 추위에 죽었다. 마구간은 먹이를 찾는 야생 짐승들의 출입으로 폐허화 되었고 집안의 가금류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농장이나 길이나 모든 곳이 빙판으로 변하여 포도나무를 포함하여 모든 과수는 얼어 버렸다. 1709년 이듬해 3월 상인들이 남겨놓은 적은 양의 밀을 사기 위하여 도시 도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1436년에는 기후에 억눌린 사람들의 기습이 많았다. 영국의 왕 James 1세는 사냥 중 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Edinburgh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 1455-1485년 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장미전쟁을 위하여 굶고 가난한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참가하면 많은 혜택을 주었다. 결국 부자와 영주들은 양민들의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 1739-1740년은 더욱 악화되어 봄도 없어지고 습기찬 추운 여름이 있을 뿐, 곡물은 모두 썩어 버렸다. 정부는 부자들에게 폭동을 일삼는 가난한 천민들에게 총을 쏘아라 하였고, 그들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해산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소빙하기 대부분 기간을 유럽인들은 공포와 불안을 떨기 위한 명목하에 재산을 빼앗는 목적으로 이웃을 마녀라는 거짓으로 희생양을 삼았다.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전통적 사고와 생활 방식에서 조금만 이라도 벗어나면 마녀(witch)라 의심하였다. 프랑스를 구한 잔다크의 죽음은 당시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빙하기라 해서 항상 추운 것만은 아니었다. 1788년 프랑스에서는 몹시 추운겨울(Bad Winter)이 지난 다음 해 여름 5~7월은 지독한 폭서였다. 날씨가 너무 더웠지만 농작물의 생육은 좋았다. 그러나 수확하기 직전 엄청난 우박과 호우가 내려 농작물이 파괴되고 폭우에 휩쓸려 내려갔다. 흉작으로 시민들의 Bastille 폭동이 1789년 일어났다. 당시 기아와 질병에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 국민을 걱정한 루이14세 왕비 Marie Antoinette는 억울한 누명으로 결국 루이 14세와 함께 단두대의 처형을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약 1760년에서 1840년 기간의 새로운 제조공정(new manufacturing processes)으로의 전환이었다. 이 변화는 가내 수공업생산 방법에서 기계에 의한 새로운 화학 및 철의 생산, 공정과 수력을 이용한 증기동력의 사용, 공작기계의 개발 및 공장시스템의 발전, 혁신적 섬유산업 그리고 귀족 중심의 지배적 고용관계에서 자본 중심의 인간관계로 변화되는 새로운 인간문화의 변화로서 근대적 산업생산 방법을 처음 사용한 혁신이었다.

산업 혁명은 역사상 중요한 의미로서 당시의 유럽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사회였다. 식량 결핍과 물가상승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빈곤을 초래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정치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빵의 원료가 되는 곡식을 소유한 사람들과 중간상인들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이득을 보았던 계층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엘베강 동쪽의 대지주와 중부유럽 또는 서부유럽의 일부 봉건귀족들을 들 수 있다. 임마뉴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 종속이론을 유럽의 역사에 적용한 이래 강조되듯이, 사회 전반의 전환은 계층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유럽이나 스페인의 식민지처럼 유럽의 주변부에서 곡물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2차 농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럽이라는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서는 상인계급이 정치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게 된다. 네덜란드인들의 황금시대는 정확히 유럽 대륙의 다른 지역들이 주기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찾아왔다. 신성로마제국과 이탈리아를 필두로 유럽의 곳곳에서 곡식 소유주들과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했다. 독일 북부에서 형성된 베서 르네상스(Weser-Renaissance)의 부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는 치솟는 곡물 가격과 증가하는 식량 수요로 많은 이득을 누렸던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3. 혼란의 시대 소비하기와 중세 르네상스

르네상스(Renaissance)는 문예부흥(文藝復興) 또는 학예부흥(學藝復興)으로서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부터 16세기 즉 소비하기 기후변화 결과로 발생한 문화혁신 운동이다. 구체적으로 14세기에서 시작하여 16세기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재 수용으로서 문학, 사상, 예술을 본받아 인간중심(人間中心)의 정신을 되살리는 일종의 시대적 정신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르네상스 운동이 과학기술에 근거

한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 중세와 근세를 이어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유럽은 르네상스의 시작과 더불어 지나간 중세시대의 막을 내렸으며, 동시에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세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정신, 혹은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비롯되었지만 곧장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나라들은 이 운동에 거의 영향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세기 초 이 운동의 인문주의자들의 종교개혁 원동력이 되어 교회의 개혁과 종교의 학문적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소빙하기의 르네상스 시대는 밝은 시대가 아니라 흑사병이 유행하거나 거짓의 정치적 싸움, 마녀 사냥, 전쟁이 계속된 시대였다.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것은 궁정과 교황청 등 극히 일부에서 뿐이었고 일반적으로는 허구의 미신과 마술이 믿어지던 시대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유럽의 근대를 이끈 역할을 하였지만 그 시기 이탈리아 국내 정치는 엉망이었다. 교황령을 비롯한 여러 소국들로 갈라지고 외국으로부터 간섭받아 국가의 통일이 늦어져 정치, 사회적 근대화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시기였다.

1600년에 우주의 무한성을 발견한 조르다노 브루노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고 갈릴레이가 지동설로 종교재판을 받은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탈리아에서 자유로운 과학연구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미 16세기 후반, 미술에서도 형식주의의 매너리즘(manierismo)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창조력은 북유럽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17세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심이 된 바로크 미술의 시대가 되었으니 문화적 불모의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다.

프랑스 경우 1495년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정복 후에 들어왔다. 《수상록》을 작성한 미셸 드 몽테뉴와 프랑수아 라블레 같은 작가들이 등장했고, 루브르 박물관도 이때 건축되었다.

독일에서는 이탈리아와 가까운 바이에른에서 시작이 되었다. 독일 르네상스는 르네상스적 요소와 후기 고딕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독일에 르네상스적 요소가 늦게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 4명의 사도 등의 미술 작품을 완성한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가 선두이다. 알브레히트 뒤러 외에도 많은 독일 르네상스 화가들이 있다. 15세기 슈테판 로흐너 〈최후의 심판〉 〈성전봉헌〉 〈장미정원의 성모마리아〉, 미하엘 파허 〈성 볼프강 제단화〉 〈그리스도의 탄생〉 등 수 많은 작품들이 있다. 또한 당시의 지식인들이 라틴어 성서를 연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바탕이 만들어졌다.

반면 대륙으로 이식된 르네상스는 그 나름대로 각국의 토양에 문화가 융성하게 꽃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철학자, 인문학자, 예술가, 건축가들이 출현할 수 있었다. 특히 15세기 이탈리아 못잖게 상공업과 개방성을 중시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자체적으로 회화 예술이 봄을 일으켰다. 당시에 확산된 금속 활자 인쇄술 덕분에 15세기말부터 유럽 널리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전파되지만, 유럽 전체가 균일하게 르네상스를 경험하지 않았다.

또한 종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주었고, 군주론이라든가 인문주의에

서 파생된 사회계약설은 훗날 유럽 각국의 절대왕정 체제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로마 시내에서는 르네상스풍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코 디 로마는 사실상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종결지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이탈리아의 부는 고갈되고 문화는 생명력을 상실하는 한편, 대부분 지역이 외세의 지배에 놓이고 만다. 이 시점을 흔히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건너간 분기점'이라 칭한다. 이후 결국 교황을 포함한 모든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카를 5세 지배하에 굴종하는 처지로 전락했으며, 이탈리아는 지난 세기의 영화를 대륙에 내어주고 3류 세력으로 전락하고 만다.

#### 4. 팬데믹의 발생

소빙하기(LIA)는 각종 생명체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실종으로 이어져 다양한 질병이 유행하게 되었다. 1557-1558년 기간에는 전 가족이 몰사하는 사건이 빈번하였다. 흑사병(Black Death, 일명 Bubonic Plague)은 결국 유럽인의 영양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흑사병은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서 “선 패스트와 폐 패스트”로 두 가지 병형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 피부로 전염되어 출혈성 화농성으로 변하는 것을 선패스트라하고, 흡입에 의하여 감염되어 급성기관지 패렴으로 급사하는 병을 폐 패스트라한다.



그림 12. 르네상스 건축물, 초기 성베드로 대성당(좌)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우)

춥고 흐린 기후에 의하여 식량을 찾아 전쟁을 일으킨 징기즈칸 후에 킵차크 한국(1243-1502) 몽골군은 흑해 연안 크림반도 카파와 키에프지역의 점령을 포기하고 아쉽게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되었다. 추위와 가뭄으로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여 굶어 죽는 군사들이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철수하는 야니의 군사들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 성안으로 던져 넣었다. 영양실조에 죽은 성안의 시체들을 뜯어 먹은 쥐들은 페스트균을

보유하게 되었고 페스트균에 노출되었던 성안의 수많은 제노바 상인들은 몽골군이 물러나자 유럽 각지로 흩어져 가족을 만나거나 상행을 위하여 원행을 하였다. 그 결과 페스트균은 유럽 각지로 전파되어 방방곡곡 퍼져나갔다. 1년 만에 신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에 전파되어 당시 세계적으로 4,200만명(추정)이 사망하였고 그중에 2,500만명이 유럽인이었다.

흑사병(黑死病, Black Death)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팬데믹 유행병 사건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소빙하기 초 1346년-1353년 사이에 범유행이 절정에 달했으며, 이 범유행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최저 7500만, 최고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흑사병의 병원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이설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2010년-2011년 남유럽 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DNA 분석 결과 페스트균이 병원균임이 밝혀졌다.

흑사병 이전의 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14세기를 거치며 3억 5천만 명-3억 7500만 명 정도로 거의 1억 명이 줄었다. 흑사병으로 인해 줄어든 세계 인구가 흑사병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17세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후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페스트가 산발적으로 유행했는데(런던 대역병 등), 흑사병의 병원체를 페스트균으로 확정한다면 흑사병이란 1345년에서 1840년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계속된 제2차 페스트 범유행의 일부로서 14세기 유럽의 범유행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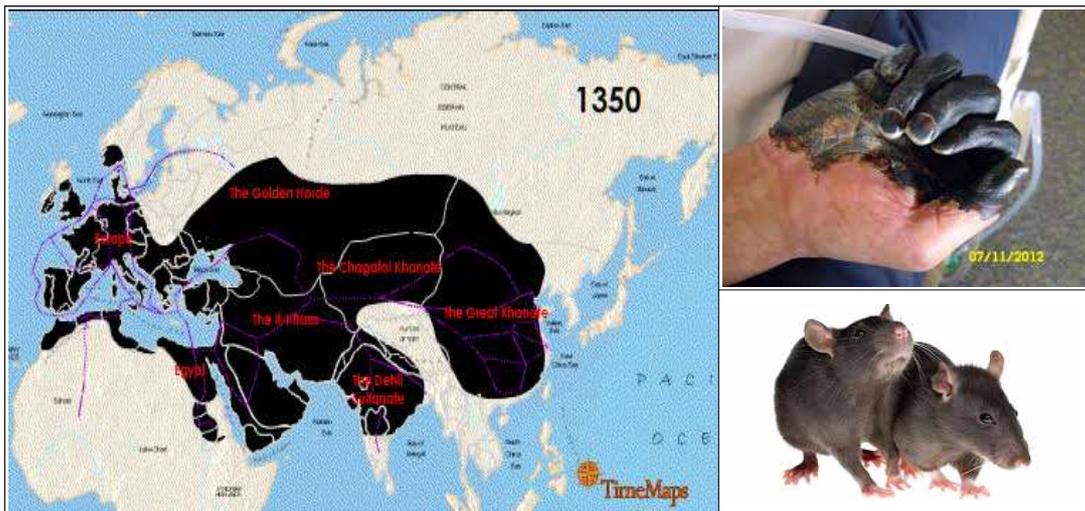


그림 13. 중세 LIA 기간 동안 확산된 유럽지역 흑사병 영향.

14세기의 페스트 유행은 유럽사에 있어 종교사, 사회사, 경제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분명 유럽 대륙의 정세가 혼란하고 지중해 무역이 성행하던 15세기까지는 나뉘대로의 군사력과 재력, 정보망을 틀어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여러모로 유리한 입지에 있었다. 도시국가의 군주들이 무식한 힘싸움 보다는 문화와 부의 과시를 통해 자존심 경쟁을 벌인 것도 한몫하였다.

영국의 윌리엄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는 1564-1616 기간 그의 희곡에서 8번이나 학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이때 저술되었다. Olive Cromwell은 1658년 LIA기간 중에 가장 추웠던 시기에 학질에 걸려 사망하였다. 소금기를 좋아하는 모기는 혐기성있는 질병 즉 마라리아를 옮긴다. Mala aria는 나쁜 공기(Bad air)라는 뜻이다.

## 5. 한반도 가뭄과 기근

소빙하기의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조선의 경우 가뭄과 기근은 기록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3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하였다. 연례행사처럼 겨우 숨돌릴 만하면 어김없이 기근이 찾아왔고, 잇을 만하면 한 번씩 대기근이 전국을 휩쓸고 갔다. 기근은 전염병(역병)을 동반하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했고, 특히 대기근은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17세기 중엽 후반기 소빙기(小氷期, 1600년-1800년 중반까지 250년 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기후의 변화는 극에 달하였고 가뭄은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뭄과 기근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가뭄을 이기기 위한 노력과 발명은 새로운 대응책인 블루오션(Blue Ocean)을 낳기도 하였다.

경신 대기근(庚辛大飢饉)은 조선 현종 재위 기간인 1670년(경술년)과 1671년(신해년)에 있었던 대기근이다. 1350년부터 시작된 지구 소빙기(Little Ice Age, LIA)로 기후변화로 인한 17세기의 범세계적 기상이변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20여년 뒤 숙종 재위기인 1695년의 을병대기근 때 다시 심각한 가뭄의 기근 재난 피해를 입는다. 당시 굶주린 사람들은 농사기구인 소를 관청에 신고하지도 않고 도살하였으며, 더욱이 인육을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는 처벌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파멸적인 기아사로서 조선 8도 전체의 흉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당시 조선 인구의 1200~1400만명 중 1년에 약 최소 15만에서 최대 85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이었다.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등을 살펴보면 1670년 극심한 온갖 자연재해가 집중해서 발생하였으며, 이듬해인 1671년에 조정에서 구휼에 적극적으로 나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죽어갔음을 알 수 있다.

1669년 기준으로 조선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516만 명이나 실제 인구는 최대 1500만~1600만 내외로 추산되었다. 즉, 대기근 2년 동안 인구의 절대다수가 기아를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그 중에 최소한 1.5%, 많으면 5% 가까이 죽어나간 것이다. 가히 현세에 도래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 시대를 "임진년 병란도 이것보다 참혹하지는 않았다." 하는 평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 VII. 마무리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는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대기 중에 과잉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자연녹지, 해양환경 등)또는 제거(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CCUS) 함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순 수치(Net Budget)를 zero가 되게 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되는 양을 같게 함으로써 탄소 순 배출을 zero 수준으로 맞추는 탄소중립 개념이 “넷-제로(Net-Zero)이다.

국제기후변화협약체(IPCC) 및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제정된 대기 이산화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 IPCC 5차 평가 보고서와 1.5°C 지구 온난화에 관한 IPCC 특별 보고서는 모두 CDR기술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목표 값(지구 평균기온 상승값을 1.5°C 이하로 함)을 달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1.5°C 지구 온난화에 관한 IPCC 특별 보고서에 보고된 네 가지 대표적인 감축경로는 모두 배출 감소율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CO2 제거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토지 이용 관리 및 조림만을 사용하여 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BECCS)가 예시하는 CDR에 크게 의존하는 P4(화석 연료 경로)까지 1.5°C를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100년에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확률이 최소 50%인 90개의 개별 시나리오 중 18개만이 에너지 부문 및 산업 공정 CO2 배출량을 포함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 탄소수지(Net Zero)를 제로로 달성하는 것이다.

IPCC에서 평가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의 2050년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을 사용하여 포집할 중앙값은 약 CO2 15Gt 이다. 이는 Net Zero 시나리오 수준의 두 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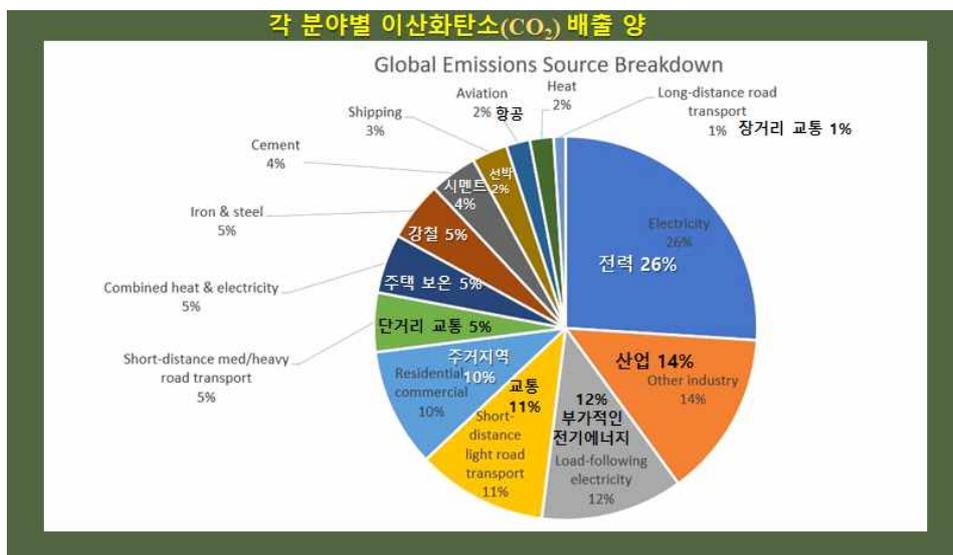


그림 14. 인류활동에 의한 분야별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 비율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 전략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 세계 원전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프랑스 전력공사는 지난 2020년 수소 자회사 하이나믹스를 설립, 저탄소 수소 생산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였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운영 중인 58여 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값싼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1MW급 알카라인 수전해 시스템과 1MW급 PEM 시스템을 도입해 시험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35년까지 550MW의 수전해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220,000kg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써 현재 영국 시즈웰 원전에 2MW급 수전해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국 - 미국은 글로벌 변혁을 추진하면서 모든 국가와 기타 주요 경제국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해 글로벌 순 제로에 도달하며 2050년 또는 그 이후까지 온실가스 배출, 이후에는 순 마이너스 배출로 글로벌 이정표를 세우고 글로벌 에너지를 재정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 관측된 지구기온 순(Net) 온난화 상승값은 1.0°C의 약 0.5°C를 차지하는 메탄(CH<sub>4</sub>)에 특히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자연 기반 및 기술적인 이산화탄소 제거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NET-ZERO 2050 목표는 야심적이다. 2030년 국가 결정 기여(NDC)를 이행하면 미국이 순 제로(NET-0)로의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줄이기 위한 야심차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약속하여 2030년에는 2005년 수준 이하로 정하였다. 이는 기존 배출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10년 기간이다. 미국의 국가 기후전략은 2030년 미국 NDC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이다. 이는 미국이 2030년에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52% 감소시키고 늦어도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즉각적인 정책과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 독일의 탄소 포집 정책은 연간 130만 톤 이하의 CO<sub>2</sub> 저장 용량과 연간 최대 400만 톤의 CO<sub>2</sub>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CO<sub>2</sub> 저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한 전략은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과 새로운 기후 행동법(Klimaschutzgesetz)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 생산에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녹색당의 압력에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한 것을 크게 후회하여 현재 재건에 힘을 쏟고 있다. 독일은 2045년까지 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50년 이후 배출량이 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독일 정부, 2021c, 2022). 배출 범위에 대한 독일의 목표는 모든 GHG 배출과 경제의 모든 부문(국제 벙커 제외)을 포괄한다.

영국에서 발표된 최근 Harbour Energy 프로젝트는 새로운 Viking CCS 육상 CO<sub>2</sub> 운송 파

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약 55km이며 Immingham 산업지역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Lincolnshire 해안에 위치한 오래된 Theddlethorpe 가스 터미널 부지로 직접 수송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산화탄소는 사용되지 않고 고갈된 바이킹 가스전에 도달할 때까지 140km를 더 이동하게 된다. 일단 그곳에서 포집된 CO<sub>2</sub>는 해저 2.7km 아래에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기후변화 적응은 가능한 행동 과정이지만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린란드나 서남극 빙상의 급속한 용해 및 붕괴와 같은 재앙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전략이 아닐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 예측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미래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겹쳐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확산 및 발생은 폭염과 도시 온난화, 더 길어지고 더 심각한 오존 계절이 예상되면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온난시대가 일찍 시작되면서 꽃가루 알레르겐 생산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 변동과 극한 기온으로 인해 곰팡이 및 곰팡이 성장의 변화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기후의 극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켜 홍수와 수온 상승을 통해 수인성 병원균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질병에는 자연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무관한 집단 간에 차별적인 취약성이 발생한다. 거기에는 질병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 있다. 우리의 민감성과 심지어 적응 능력을 변경하여 질병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또한 대기과학 및 지리학자들이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환경 매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오늘날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도 과거와 같은 많은 인간적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날의 소빙하기 기후변화의 참담한 시기와 이를 극복한 산업혁명의 지혜를 잊어버린 것 같다. 소빙하기의 비극적인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 흑점이 적은 기간 태양에너지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소빙하기로부터 인류를 구한 것은 농도가 상승하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CO<sub>2</sub>라 주장한다.

CO<sub>2</sub> 증가는 또한 지구를 녹색화하는 유익한 비료 효과가 있다. 20세기 온난화는 자연적이든 CO<sub>2</sub> 농도 상승으로 인한 것이든 농작물 생육 기간을 연장시켰다. 기근이 제거되고 나무 줄은 후퇴를 멈추고 나무는 이제 지난 500년 동안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게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1300년대 대기근과 선페스트 전염병이 끝날 무렵, 지구는 3억 5천만 명의 인류가 유지되었다. 1300년 초에서 시작되어 1900년 초까지 지속된 일련의 소빙하기 가뭄이 아시아를 황폐화시켰다. 그로 인한 기근은 인도,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내에서 인류의 문화적 정치적 격변을 일으켰다.

약천후로 인해 1315-1317년에 발생한 세계적 대기근은 극심한 수준의 범죄, 질병, 대량 사

망, 식인 풍습 및 영아 살해를 유발하여 유럽을 거의 멸망시켰다. 하나의 증거로 북미 나무의 나이테는 서늘한 1500년대 기후의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대규모 가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876년부터 1878년까지 빅토리아 시대의 대 가뭄은 인도가 가장 황폐화되면서 열대 지방의 많은 지역에 큰 고통을 가져왔다. 당시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난민 - 소비하기의 가뭄과 기근은 사회적으로 큰 격변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 난민들은 더 나은 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대양의 항해시대는 열렸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또한 끔찍한 전염병을 퍼뜨렸다. 거친 기후변화는 중앙 아시아에 춥고 건조한 날씨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몽골인들은 더 나은 방목지를 찾아야 했다. 그들이 새로운 영토를 침략함에 따라 그들은 세계를 황폐화시킨 선페스트를 퍼뜨렸다. 1300년대에 몽골인들은 전염병을 이탈리아 상선에 넘겼고 이탈리아 상선은 그것을 유럽으로 가져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순식간에 사망하게 하였다. 새로운 무역로를 찾던 유럽 탐험가들이 천연두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져와 작은 원주민 부족을 멸종시켰고 더 큰 부족의 25~50%를 죽였다. 도입된 질병은 멕시코의 인구를 3천만 명에서 3백만 명으로 빠르게 줄였다.

1700년대에 이르러 우발적인 저체온증이라는 새로운 살인자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실내 온도가 장기간 48°F 아래로 떨어지면 인체는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일련의 반응을 시작한다. 1960년대 영국에서는 중앙 난방 장치가 없는 노인과 영양실조 환자 20,000명이 우발적인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 1700년대에 열악한 사람들이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을 때 우발적인 저체온증이 만연하였다.

오늘날의 기술 발전과 온화한 재배 조건으로 기록적인 높은 농작물 수확량은 이제 76억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 따라서 지구의 기후변화는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갈등과 전쟁, 질병과 기근, 등 자연재해에 대한 극복은 기후변화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예측 그리고 적응과 완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 해법이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오성남 외, 2011, 기후와 문화, 시그마프레스, 392PP.
- 《조선왕조실록》〈현종실록〉 18권.
- Daniel Kennedy, Flavio Lehner, <https://orcid.org/0000-0003-4632-9701>, +4,
- P. Epstein, and E. Mills(eds) (2005). Climate change futures: health, ecological and economic dimensions. The Center for Health and the Global Environment. Cambridge, MA: Harvard Medical School, p.142.
- Hogrefe, C., et al. (2004). Simulating regional-scale ozone climatology over the eastern United States: model evaluation results. *Atmospheric Environment* 38, pp.2627-2638.
- Patz, J. A. et al. (2001). Potential consequence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for huma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Chapter 15 in National Assessment Synthesis Team, Foundation document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pp.437-458.
- Ryohei Yamaguchi, <https://orcid.org/0000-0002-7800-5798>
- Rogers, D., and Randolph, S. (2000). The global spread of malaria in a future, warmer world. *Science* 289, pp.1763-1766.
- Stenseth, N. C., et al. (2006). Plague dynamics are driven by climate vari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America* 103, pp.13110-13115.
- Van Vliet, A. J. H., et al. (2002).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and climate change on the timing of pollen release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22, pp.1757-1768.
- Viboud, C., et al. (2004a). Influenza epidemic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Australia, 1972-1997.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0, pp.32-39.
- William R. Wieder, Daniel Kennedy, Flavio Lehner and Ryohei Yamaguchi, 2022, Pervasive alterations to snow-dominated ecosystem functions.
- EARTH, ATMOSPHERIC, AND PLANETARY SCIENCES. 21PP.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3).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risks and responses. [online]. Retrieved on 14 December 2006.
- <http://www.who.int/globalchange/climate/summary/en/index.html>

## 연사 소개



- 미국 The University of Oklahoma 기상학 박사
- 미국 The University of Maryland 대기과학과 교수
- KIST/SERI 지구환경정보연구부장
- 기상청 연구실장,
- 환경부 지구환경연구소장.
-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초빙교수 / 송실대 특임교수
- 기상항공기 운영 본부장, Sunny Air 기술고문
- (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이사
- (사)과학의 전당 연구위원/ MECONOMY사 칼럼니스트

# 천부경과 역학

양재학\*

- I. 머리말
- II. 『천부경』과 『주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 III. 『천부경』의 3극과 『주역』의 천지인 3재
- IV. 『천부경』의 ‘일적십거一積十鉅’와 하도낙서(10수와 9수)
- V.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특성
- VI. 환역, 천문과 옷을 채용의 철학으로 융합하다
- VII. 맺는말

## I. 머리말

한민족 사유의 원형은 무엇일까? 유교인가, 불교인가, 도교인가, 아니면 유불선 삼교의 융합인가? 만약 유불선 삼교가 외래에서 유입된 것이라면, 한민족 사상의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실마리를 최치원崔致遠(857-908?)의 『난랑비서鸞郎碑序』는 한민족의 고유하고 현묘한 도를 ‘풍류風流’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치원은 풍류도가 유불선의 뿌리이지, 외래 종교인 유불선에 의해 풍류도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sup>1)</sup> 전자는 풍류도가 유불선의 원형인 까닭에 풍류도에 의거하여 유불선이 각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얼굴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풍류도가 유불선 통합의 무엇이라면, 과연 풍류도의 전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인류 최초의 국가였던 한국의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천부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천부경』과 풍류도의 직접적 연관성 또는 풍류도의 원형이 곧 『천부경』이라고 증거할 만한 구체적 문헌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천부경』에는 유불선의 흔적이 담겨 있다. 유교의 대표적 경전 『주역』의 천지인 삼재(삼극)를 비롯하여 『노자老子』의 핵심인 ‘무無’와 이 ‘무’에 대한 해석을 주로 불교의 종지인 ‘공空’으로 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상생문화연구소

1) 『三國史記』「新羅本紀」眞興王條「鸞郎碑序」,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을 베푸는 바탕은 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은 유·불·도 삼교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뜻 생명을 교화한 것이다. 우선 집 안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인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처신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노자 사상의 핵심이다. 어떠한 악도 실행하지 않고 모든 선을 행함을 받드는 것은 석가모니의 교화이다.[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 備詳仙史。實內包含三教, 接化群生。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2) 『桓檀古記』「蘇塗經典本訓」, “천부경은 천제 환인의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天符經은 天帝桓國口傳之書也라]”

『천부경』과 『주역』은 공통으로 천지인 3재에 기초한다. 천지인 3재란 인간이 하늘과 땅의 창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우주의 구성원이라는 뜻이다. 소우주 인간을 포함한 대우주 곧 천지인 3재 역시 2수 음양으로 양분화하여 움직인다는 것이 『주역』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역』은 천지인 3재의 구조와 음양의 변화에 입각하여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고전이다. 고대인의 하늘에 대한 신앙과 천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의 사유가 천지인 3재로 응축되어 있다. 그것은 점占과 계시와 합리적 사유가 분리되기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우주의 신비를 읽어내는 통로를 제공했던 까닭에 『주역』은 사서삼경의 으뜸가는 텍스트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환단고기』에는 『천부경』의 천지인(3재)과 3극을 비롯해 『주역』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환역(桓易)과 희역(羲易)과 금역(今易)’이 있다. 지금까지는 『천부경』과 『주역』의 연관성을 주로 3재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환단고기』에만 등장하는 ‘환역·희역·금역’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논의는 거의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그것은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존재를 몰랐거나, 혹은 『주역』의 권위에 억눌려 공개적인 토론을 회피했던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심지어 『환단고기』에 대한 문헌 검증의 수준에 매달린 채, ‘환역’ 자체를 연구 과제로 삼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천부경』의 수리철학과 한국의 오랜 전통이 빚어낸 환역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환역과 희역 및 금역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피기로 한다. 따라서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역학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역학과 명료하게 구분되는 한민족 고유의 역학(桓易)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II. 『천부경』과 『주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천부경』은 숫자를 포함해 81자로 구성되어 환국 시대로부터 전승된 인류 최초의 경전이다. 『천부경』은 유불선의 근거로서 한민족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본체와 작용)과 수학(기하학, 대수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문명의 발전에 고급 영양분을 제공한 문서이다. 한마디로 『천부경』은 하늘의 의지를 읽어낸 우주의 창조와 진화 원리를 밝힌 경전이라 하겠다.

『천부경』은 가로 아홉 글자, 세로 아홉 글자로 이루어진 정방형의 형식을 띠고 있다. 81자로 구성된 『천부경』은 31자가 수數로 쓰여 있다. 31자의 수를 통해 우주의 생성 과정과 상호 관계를 밝힌 『천부경』은 우주의 수학 원전, 우주 창조 수학의 원형 틀이자 하느님이 내려 주신 계시록의 성격을 지닌다.<sup>3)</sup>

『주역』은 예로부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과 더불어 동양학의 뿌리가 되는 경전으로 자리 잡았다. 나중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과거시험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자, 『주역』

3) 안경진, 『증산도의 진리』(상생출판, 2014), 272쪽 참조.

은 더욱더 사서四書의 원형이 담긴 책으로 평가되었다.

『주역』의 역사는 두 길을 걸어 왔다. 하나는 학술서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과 밀착된 운명을 감정하는 점서占書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지식층의 ‘최고 이론서’로 이름을 날렸으며, 후자는 재야 학술의 사상적 전거로서 종종 신의 의지를 헤아리는 ‘신서神書’로 불리기도 했다. 지식층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는 『주역』에 대한 모독이요, 재야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사변철학을 대변하는 특수서로서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도덕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역』의 역사는 학술과 점술이라는 평행선을 타고 전개되어 왔다. 『주역』은 세계를 구성하는 수학의 질서를 시공의 형식으로 형상화한 상수학象數學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침을 내린 지혜의 가르침으로 간주하는 의리학義理學이 학술계의 주류를 형성했다.<sup>4)</sup> 이밖에도 상수와 의리의 학술적 근거로서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중시하는 도서학파圖書學派가 있다.

동아시아의 형이상학과 우주론에 미친 『주역』의 영향은 서양에서 플라톤(Platon: BCE 427-BCE 347)의 영향과 비견된다. 화이트헤드(Whitehead: 1861-1947)가 진술한 것처럼 만일 모든 서구 철학이 플라톤의 주해에 불과하다면, 대부분 동아시아의 철학들은 『주역』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5)</sup>

그만큼 『주역』은 다른 어떤 고전의 위상을 뛰어넘는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런 배경 아래 『주역』의 논리와 흡사하면 정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당하거나 외면받는 불편한 진실이 아직도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한민족 사상에서 『천부경』처럼 다양하고 수많은 해석을 낳은 경전은 없을 것이다.<sup>6)</sup>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환단고기』의 위작 여부를 둘러싼 술한 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를테면 『환단고기』의 일부로 편집된 『천부경』은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까닭에 한국사상에게만 유효하다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함정에 빠져 시종일관 부정하거나, 한편으로 『천부경』의 역사성에 매몰되어 가끔은 신앙으로 믿는 경우처럼 양극단을 걷는 양상을 띤다. 다른 하나는 『천부경』을 『주역』의 음양오행으로 이해하는 것에 너무도 익숙한 까닭에 한민족 고유의 수학을 『주역』의 상수학으로 혼동하거나, 심지어 『천부경』은 유불선의 영향을 받아 후대에 재구성한 작품으로 오해하는 학자도 없지 않는 실정이다.

전자의 문제는 진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후자는 비록 똑같은 숫자를 사용했는지라도 ‘본체’를 강조하는 수의 구조와 질서를 중시했는가, 혹은 변화의 ‘작용’을 중시했는가에 따라 범주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장

4) 양재학, 『주역과 만나다(1)』(상생출판, 2021), 18-19쪽 참조.

5) 이정용 지음/이세형 옮김, 『易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98), 12-13쪽 참조.

6) 삼신일체의 신관, 수행론, 천지인 3재의 우주론, 하도낙서의 수리철학을 비롯해 올바른 민족사관의 형성 등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점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수 중심의 『천부경』과 2수 중심의 『주역』은 각각 한국사상과 중국사상의 특징이라는 비평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천부경』이 자연의 생성 변화를 설명한 『주역』의 수리 체계와 동일한 체계라고 단정하는 성급한 판단은 옳지 않다. 『천부경』과 『주역』의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역』 이전의 『천부경』 자체에 내재된 수리 철학을 중심으로 ‘환역·희역·금역’의 분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업을 통해 ‘환역’의 실체는 물론 한국학이 중국학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환단고기』와 『천부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천부경』과 『주역』은 공통으로 3수 천지인과 2수 음양을 우주관 성립의 근거로 삼는다. 흔히 『주역』은 천지인 3수(삼재)와 음양 2수로 세계의 구성과 만물의 생성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장차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고자 함이니, 하늘의 도를 세움은 음과 양이요, 땅의 도를 세움은 유와 강이요, 인간의 도를 세움은 인과 의로서 3재를 거듭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이 여섯 획으로 괘를 이루고, 음과 양으로 나뉘며, 유와 강을 차례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역이 여섯 위상으로 문장을 이루었다.<sup>7)</sup>

천지인 3수와 음양 2수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가? “천지인 3재를 음양 법칙으로 두 번 곱한다[兼三才而兩之]”는 문맥에서 보면, 논리적 선후 관계에서 3재가 음양보다 오히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거듭한다[兩]’는 개념은 변화의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우주에 대한 생물학적 진화 방식을 압축한 말이다.

그래서 ‘ $3 \times 2 = 6$ ’이라는 여섯 개의 효가 완성되어야 유형 무형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음양과 강유의 운동은 분리와 결합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반영한 것이 소성괘 小成卦라면, 이들은 각각 음양 짝으로 나뉘어 작용하는 대성괘 大成卦를 이룬다. 예를 들어 중지곤괘 重地坤卦(☷) 맨 위의 두 효는 천도[陰陽]를, 아래의 두 효는 지도[剛柔]를, 가운데의 두 효는 인도[仁義]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섯 효에서 홀수의 위치에 있는 초효와 3효와 5효는 양, 짝수의 위치에 있는 2효와 4효와 상효는 음을 뜻한다.

한국 이래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한 『환단고기』는 수학과 철학의 형식으로 표현된 우주관보다는 삼신일체의 신관과 역사관으로 관통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천부경』에 나타난 3재에도 삼신일체의 사유가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8)</sup> 삼위일체 사유는 『환단고기』

7) 『周易』「說卦傳」2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 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 六位而成章.”

8) ① 『桓檀古記』「蘇塗經典本訓」, “[大矣哉라 三神一體之爲庶物原理하고]” ② 『桓檀古記』「三韓管境本紀」, “此乃三神一體上尊之遺法也라” ③ 『三韓管境本紀』,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옵니다.[道之大原이 出乎三神也로이다.]”

전체에 걸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삼신일체의 논리는 천지인 3재의 근거라 할 수 있는 ‘3극’에 숨겨져 있는 까닭에 『천부경』은 ‘3’극과 ‘1’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천일일天一, 지일이地二, 인일삼人三”에서 ‘천일天一, 지일이地二, 인일삼人三’의 하나[一]는 세계를 구성하는 포괄적 근원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은 천지인의 세 요소를 갖춘 분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하늘은 1, 땅은 2, 사람은 3이라는 의미는 천지인 3재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생기는 위치를 구분짓는 질서, 혹은 가치의 등급과 척도를 매긴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천지인의 구성을 논리 차원에서 ‘앞뒤’를 지적한 말이다. 여기서 바로 천지인에 대한 규정 이전에 이미 삼위일체의 논리가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천부경』의 3극과 『주역』의 3재

『천부경』은 우주 구성의 하늘, 땅, 인간의 삼자가 처음부터 끝까지[一始, 一終]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한다고 했다. 다만 천지인 중에서 하늘이 가장 앞서고[一], 그 다음은 땅[二]이며, 마지막이 사람[三]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중요도에 대한 가치를 일정한 순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하늘은 위, 땅은 아래에, 사람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존재한다는 천지인의 ‘구조’를 뜻한다. 앞의 「설괘전」 2장이 밝힌 괘 구성의 원칙에서 보면, 『주역』의 근거는 바로 『천부경』에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셈이다.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도표 1)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도표 2)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도표 3)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도표 4)

그림 1. (도표 1)에서 (도표 4)의 도시

『천부경』은 우주의 구성 문제를 비롯해 만물의 생성과 인간 삶의 방향 및 목적[人中天地一]을 제시하고 있다. 상경은 천지인의 구성에 대한 보편성을 수의 질서로 다룬다. 중경은 우주가 천지

인의 기틀을 갖추어 동시에 시공으로 펼쳐지는 자연의 변화와 작용을 다루고 있다. 하경은 인간의 자아 완성을 통해 천지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위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1[-]'은 우주를 구성하는 공통의 삼 요소(도표 1)를 대변한다. 그럼에도 하늘은 '1', 땅은 '2', 인간은 '3'으로 규정한 것(도표 2)은 천지인의 본성에 대한 조직 차원의 위계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천지인이 '2[二]'를 공통으로 삼는 것은 음양陰陽(도표 3) 작용의 보편성을 얘기한 것이며, '3[三]'은 만물이 아무리 음양으로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우주 구성의 3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도표 4)는 것을 뜻한다.

상경上經과 마찬가지로 중경中經도 천지인이 각각 둘로 나뉘어 작용한다는 3수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3이 천지인을 형성하는 기본 틀이라면 2는 하늘에서는 음양陰陽으로, 땅에서는 강유剛柔로, 인간으로는 인의仁義로 나뉘어 생성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우주의 본체[-]가 음양으로 분화한 다음에[二] 다시 인간이 참여하는 경계에 이르러야[三] 비로소 천지인의 조화 틀을 갖추고 역사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주역』에 3재와 3극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용례가 있다.

성인이 괘를 만들어 상을 살피고 말을 매어서 길흉을 밝혔으며, 강유가 서로 밀어 변화를 생겨나게 한다. 이런 까닭에 길흉은 잃고 얻는 형상이요, 회린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형상이요, 변화는 나아가고 물러나는 형상이요, 강유는 낮과 밤의 형상이요, 6효의 움직임은 3극의 도이다.<sup>9)</sup>

괘효는 『주역』의 진리를 표상하는 고유한 형식이다. 괘효는 천지와 인간을 연결시키는 최상의 코드라는 뜻이다. 『주역』이 3재와 3극의 공통점을 6효의 움직임에서 파악했다면, 『천부경』에는 천지인을 3재라고 호칭한 구체적 술어가 없다. 『주역』은 3재와 (음양) 2수를 통틀어 천지인 3재라고 불렀을 뿐이다. 넓은 의미에서 3재는 『주역』과 『천부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천부경』의 3극과 『주역』의 3극이 동일한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같을 수는 없다. 『주역』의 3재는 6효가 전제되어 있으나, 『천부경』의 3극은 3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무無'에서 비롯된 '무(극)'의 조직 구조, 곧 3극의 역동적 움직임<sup>10)</sup>을 '무'의 삼위일체적 통일성에서 찾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무'는 문자적 의미에서 먼저 유한(limited)에 대한 무한(limitless), 유형(formed)에 대한 무형(formless), 유(something)에 대한 무(nothing)를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는 사실의 존재인가, 혹은 의미 차원의 개념에 불과한가? 무는 분명 존재한다. 『천

9) 『周易』「繫辭傳」2장, “聖人이 設卦하여 觀象繫辭焉하여 而明吉凶하며 剛柔相推하여 而生變化하니 是故로 吉凶者는 失得之象也오 悔吝者는 憂虞之象也오 變化者는 進退之象也오 剛柔者는 晝夜之象也오 六爻之動은 三極之道也라”

10) 한동석은 3극 차원의 올라가 곧 우주 정신이라 표현한다. “우주정신이라는 것은 純粹 陰陽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의 본원인 무극과 작용의 본체인 태극 사이에서 왕래하는 올라작용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2001, 320쪽 참조.)

부경』의 무는 절대무(nothingness)가 아니라, 존재하는 무(emptiness)이기 때문에 유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무가 유의 근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동양적 견지에서 모든 현상들을 떠받치고 있는 실재는 어떠한 형체도 초월하고 있으며, 어떠한 묘사와 상세한 설명으로도 불가능하다. 그것은 종종 무형無形, 공허 또는 허虛로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무(nothingness)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형태들의 본질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불교인들은 궁극적 실재를 수냐타(Sunyata) - 공허(Emptiness) 혹은 허虛(Void)라고 부르며, 이 세상에서 모든 형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살아 있는 ‘공’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도가철학자는 이와 유사한 무한하고 끊임없는 창조성을 ‘도道’ 또는 ‘허虛’라 불렀다.<sup>11)</sup>

『천부경』에서 말하는 무의 차원은 ‘근본[無盡本]’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듯이, 이 세상을 수학적 패턴으로 존재하게 하는 최상의 원리인 동시에 만물의 변화와 생성을 가능케 하는 무한성(Infinity)을 뜻한다. 한마디로 『천부경』은 무無와 텅빈 상태[虛]로 존재하는 만물의 본성을 포함해 온갖 생명체의 수수께끼를 전체 81자의 구성 안에 온전히 품고 있는 ‘무한의 철학’이라 하겠다.<sup>12)</sup>

삼신일체의 논리가 투영된 ‘삼극지도三極之道’에 대한 풀이는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천지인 3재의 6효 중심으로 풀이하는 교과서 같은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3재 6효의 근거에 해당되는 하도낙서의 관점에서 풀이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천부경』에서 말하는 3극의 주어는 무엇일까? ‘1’인가? ‘무’인가? 그것은 무한[無] 자체의 본성을 뜻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인 3극이라 할 수 있다.

『천부경』은 “1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한 하나이다. 그것은 3극으로 나뉘어 그 근본은 헤아릴 수 없다[一始無始一, 析三極, 無盡本]”고 했다. 그것은 “하나는 셋으로 분화하고[執一舍三], 셋은 하나로 통일된다[會三歸一]” 논리로 귀결되어 나타난다.

(우주의) 하나의 조화기운에서 세 가지 신령한 변화가 생겨난다. 이 기운은 실로 지극한 존재로서 그 지금함이란 곧 무를 뜻한다. 무릇 하늘의 근원 천·지·인 3극을 관통하여 비어 있으면서[虛, voidness] 텅빈 상태를 가득 채우면서도 공허(emptiness)하므로 안팎을 겸비하는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sup>13)</sup>

하나의 조화기운이 스스로 움직여 유형무형의 사물을 만들고 조화, 교화, 치화라는 세 가지 원리를 지닌 신이 되었다. 이 신은 곧 기요, 기는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은 곧 하나인 것이다.<sup>14)</sup>

11) 프리츠프 카프라 지음/이성범·김용정 옮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범양사, 1998), 236쪽 참조.

12) 양재학, 「무한으로 읽는 천부경」(대한사랑 2024 학술대회 발표문), 8쪽 참조.

13) 『桓檀古記』「太白逸史·蘇塗經典本訓」, “自一氣而析三하니 氣는 卽極也오 極은 卽無也라 夫天之源이 乃貫三極하야 爲虛而空하니 并內外而然也라.”

‘1기’가 자율 운동하여 조화신造化神·교화신教化神·치화신治化神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은 1기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원신元神의 세 가지 성격을 지적한 것이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은 천지인 3극에 천일신天一神, 지일신地一神, 태일신太一神으로 드러나므로 신이 곧 기이며, 그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삼용일체三用一體라는 것이다. ‘집일함삼’은 1기가 3신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회삼귀일’은 3신이 1기로 돌아가는 것이니, 1기 속에는 3신이 깃들여 있고 3신은 1기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19세기 말 조선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선비, 김일부金一夫(1826-1898)는 3극론을 창안하여 새로운 형이상학을 수립하였다.

(손을) 들어보면 문득 무극이시니 열이로다. 열하고 (손을) 곱히면 문득 태극이시니 하나로 구나. 하나가 열이 없으면 본체가 없는 것이고, 열은 하나가 없으면, 작용이 없는 것이니, 합하면 토라. 중앙에 거함이 다섯이니 황극이시다.<sup>16)</sup>

이 글은 진리 전달의 시각화(visualization)에 뛰어난 10진법의 수지도수手指度數(손가락 셈법)에 의거한 독특한 형이상학이다. 과거에는 태극과 음양이라는 본체와 작용의 2분법을 통해 만물과 생성변화를 설명했으나, 김일부는 3극론을 통해 선후천 전환의 새로운 존재론(3극론)을 정립했던 것이다. 그것은 『천부경』에서 비롯된 한국 고대철학의 부활이요, 포스트모던 시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희망의 철학이라 하겠다.

#### IV. 『천부경』의 ‘일적십거一積十鉅’와 하도낙서(10수와 9수)

『주역』은 꽤 구성의 근거를 천지인에서 찾았다. 비록 김일부가 『천부경』을 읽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으나, 음양 2수보다는 3극에 뿌리를 둔 점에서 『정역正易』은 한민족의 고유의 원형을 19세기 말에 복원한 걸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극과 음양오행을 결합하여 하나로 압축한 도표가 곧 하도河圖이다. 그 동안은 하도의 내부를 차지한 도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단지 외부의 음양오행만 분석 대상이었을 뿐이다. 3극은 원래 무한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10 무극의 품 안에 잠겨 있는 우주의 원초적 본성을 뜻한다.

하도가 우주 창조의 원리라면, 낙서는 창조의 설계도에 따라 유형무형의 생명을 낳아 일귀내

14) 『桓檀古記』「太白逸史·蘇塗經典本訓」, “一氣之自能動作하야 而爲造教治三化之神하시니 神은 卽氣也오 氣는 卽虛也오 虛는 卽一也라.”

15) 윤창열, 『桓檀古記 연구』(상생출판, 2023), 485쪽 참조.

16) 『正易』「十五一言」, “學便无極이시니 十이나라 十便是太極이시니 一이나라 一이 无十이면 无體요 十이 无一이면 无用이니 습하면 토라 居中이 五니 皇極이시니라”

는 진화의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다. 이 둘은 상호 소통의 관계를 갖는다. 하도와 낙서를 소통시켜주는 공통의 열쇠고리는 하도와 낙서의 중앙에 존재하는 황극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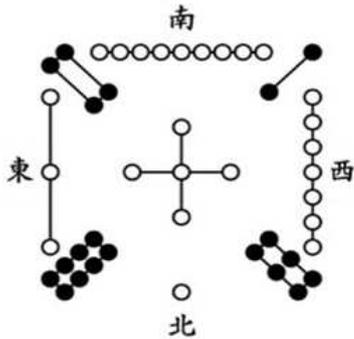


그림 2. 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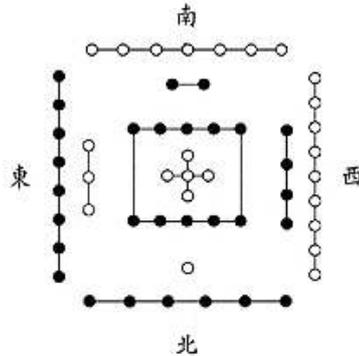


그림 3. 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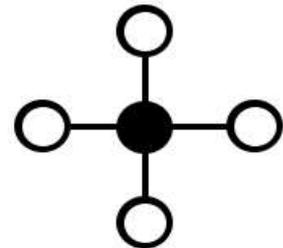


그림 4. 하도와 낙서의 내부

동아시아 철학의 최고봉을 이룬 주희朱熹(1130-1200)는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읽어야 하는 소중한 안내서를 지었다. 『역학계몽易學啟蒙』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역학계몽』 첫 편의 제목을 하도와 낙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도서本圖書」라는 명칭을 붙였다. 하도낙서를 근본으로 삼아 괘[三才]와 6효(3×2=6)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역학의 주제를 3재와 음양에서 하도낙서의 문제로 물꼬를 새롭게 텃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역』을 낱낱이 해체한 다음 재구성한 『정역』의 풀이가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3재라는 것이 『주역』의 입장이라면, 『정역』은 무극無極, 태극太極, 황극皇極의 3극이 우주의 핵심축이라고 주장한다.<sup>17)</sup> 전자는 괘효를 중심으로 삼으며, 후자는 하도낙서를 중심으로 삼은 점이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정역』은 하도낙서에서 시작해 하도낙서로 끝맺으면서, 그 결과를 정역팔괘도로 매듭짓는 체제를 유지했다. 또한 존재론과 생성론의 통합을 통해 1년 360일의 성립이라는 시간의 문제를 꼬집어내 선후천 교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 하도낙서를 중시한 상수론자들은 하도의 외부를 장식하는 음양오행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규칙성에 주목한 반면에, 김일부는 혁신적 사고를 통해 전통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 그는 하도의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는 10무극, 5황극, 1태극을 『정역』의 존재론으로 격상시켰고, 하도의 외부에 있는 음양오행설은 생성 차원으로 분류했다.

특히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이 태극 중심의 사유를 펼친 것에 비해, 김일부는 태극을 둘러싼 황극과 무극의 역동성을 강조한 ‘3극(3원)’의 사유로 세계화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다.

17) 우주를 3원 구조로 인식했다는 점은 『주역』과 『정역』이 거의 똑같다. 그러나 『주역』에서 선후천 전환의 발상을 찾을 수 없으나, 『정역』은 철두철미 선후천론이 중심 화두이기 때문에 시간론으로 직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정역사상이 비록 과거의 용어를 답습했으나, 그 콘텐츠(외연과 내포)는 과거와의 냉정한 결별로 나타났다.

그는 3극의 존재론과 음양오행의 생성론을 각각 하도와 낙서로 대비시키는 방법도 개발했다. 그렇다고 낙서가 생성 차원만 얘기하는가? 『천부경』은 낙서의 생성 측면을 중심으로 생명의 진화를 설명했으나, 10수 하도를 그 심층에 숨겨 놓는 장치를 마련하였다.<sup>18)</sup>

그러나 김일부는 존재 차원과 생성 차원을 하나의 도상으로 융합하는 이론을 기획했던 것이다. 즉 하도의 내부(존재 차원)와 외부(생성 차원)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부와 외부의 상호 교체(즉 겉과 속, 작용과 본체)를 통해 완수된다는 사실을 ‘올려가 음양을 조정한다[律呂調陰陽]’<sup>19)</sup>는 노래로 읊었던 것이다. 『정역』은 올려학이라는 뜻이다. 올려가 규정자라면, 음양은 피규정자이다. 올려가 주어라면, 음양은 술어이다. 올려가 주체라면, 음양은 대상이다. 그는 하도와 낙서의 중앙(☳☵)에 배치된 올려의 맥동을 통해 생명과 시간의 방향과 목적을 밝혔다. 그것은 예언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학의 코드로 떠오르는 테마가 되기에 충분하다.

『천부경』에는 하도낙서라는 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31자 숫자의 구성과 패턴 속에는 하도낙서의 유전자 정보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부경』은 『주역』의 논지가 겹으로 드러나 있으나,<sup>20)</sup> 하도낙서의 이치는 내부에 감추어진 질서로 은밀하게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sup>21)</sup>

왜 『천부경』을 하도낙서와 결부해서 해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일적십거-積十鉅’ 자체에 이미 하도낙서의 질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9×9=81’에 나타난 9수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일적십거’는 오류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일적구거-積九鉅’가 낙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천부경』은 하도와 낙서 중에서 주로 낙서 9수 체계의 진행 형식[積]을 취하고 있다. 그리니까 『천부경』은 현재 드러난 낙서의 세계상을 설명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일적십거’에서의 10은 9수의 배후에 존재하므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10’은 감추어진 질서인 셈이다.

둘째, 『천부경』은 1부터 10까지의 수를 모두 담고 있다. 그것은 10진법으로 세계상을 읽어내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하도와 낙서는 우주의 창조(Creation)와 진화(Evolution)라는 양면성을 함께 담고 있다. 하도와 낙서는 세계에 대한 두 가지 설명 방식인 까닭에 더욱 그렇다. 특별히 그것은 시간의 방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동양 고유의 도상인 것이다.

셋째, 하도와 낙서는 괘의 구성 근거를 수의 패턴으로 해명하고 있다. 예컨대 지천태괘地天泰卦(䷊)는 위에서 아래로(↓, 順) 방식에 의거해 ‘지천태’라는 명칭을 붙이며,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逆)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의 순서에 맞추어 풀이한다. 괘의 구성 법칙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낳는 이치를 본받은

18) 그러나 ‘9×9=81’자의 밑바탕에는 ‘-積十鉅’의 하도 ‘10수’가 은폐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9) 『正易』「十五一言亢角二宿尊空詩」

20) 乾卦「文言傳」은 “건원의 9로 작용하는 법칙에서 하늘의 이법을 알 수 있다.[乾元用九는 乃見天則이라]”고 했다. 한편 坤卦「小象傳」은 “6으로 작용함은 오래도록 올바르게 함이 이롭다.[用六은 利永貞하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역』은 ‘用九用六’의 학문인 셈이다.

21) 81자의 구성, ‘用變不動本’, 중앙에 숫자 ‘6’이 배치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올 때는 머리부터 나온다[順].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는 줄곧 하늘을 향해 짙어지고 살아가는 운명[逆]을 담고 있다. 순역順逆의 이치는 『증용』의 “하늘이 부여한 것을 본성이라 일컫는다[天命之謂性]”는 명제와 다르지 않다.

하도의 논리가 순順의 과정이라면, 낙서는 하도와 정반대로 역逆의 과정을 밟는다. 낙서는 하늘이 생명을 낳는 방식[順]과는 거슬리는 역생逆生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하늘의 이법에 대한 거꾸로의 방식으로 완수하는 것[倒成]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하도는 ‘도생역성倒生逆成[順]’을, 낙서는 ‘역생도성逆生倒成[逆]’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수의 공식으로 말하면 하도는 ‘10→9→8→7→6→5→4→3→2→1’의 길을, 낙서는 ‘1→2→3→4→5→6→7→8→9→10’의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는 서로가 뿌리를 이루면서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 반대 방향 즉 하도는 낙서를, 낙서는 하도를 지향하면서 만물을 낳아 길러서 성숙시킨다는 것이다. 하도와 낙서는 일종의 생명의 방정식이라 하겠다.

⊕→九→八→七→⊖→五→四→三→二→⊖	河圖(微分)	倒生逆成: 통일 → 분열[順]
⊖→二→三→四→⊕→六→七→八→九→⊕	洛書(積分)	逆生倒成: 분열 → 통일[逆]

그림 5. 하도와 낙서의 생성방향

『정역』은 하도낙서를 진리의 원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역』은 하도낙서 자체보다는 하도낙서의 출현에 대해 아주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꽤 구성의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음양오행설의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역』은 하도낙서의 조직을 분석한 천상의 학문이고, 『주역』은 천상을 모방한 지상의 학문이라는 구분은 꽤 타당하다고 하겠다.

왜 이런 평가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도낙서를 해석할 때 『주역』을 원천 배제시킨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태까지 『주역』이 천상의 학문이라고 인식했던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V.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특성

환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학을 말한다. 환역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환역의 연원은 『천부경』과 윗놀이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실상은 무엇이며, 이들은 『천부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들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환단고기』 전반에 해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역의 지은이<sup>22)</sup>와 환역이 형성된 배경을 「소도경전본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 『환단고기』 「삼성기전三聖紀全상」에는 환웅천황의 배달시대에 “괘를 그어 미래의 일을 아시고, 천지변화의 움직임을

“환역은 배달 시대의 우사라는 관직에서 나왔다. 당시에 복희께서 우사가 되어 육축을 기르셨다. 이때에 신룡이 태양을 따라 하루에 열 두 번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환역을 지으셨다. ‘환’은 밝을 ‘희羲’와 같은 뜻이요, ‘역’은 옛적에 쓰인 용 자의 원 글자이다.[桓易은 出於雨師之官也니 時에 伏羲爲雨師하야 以養六畜也라 於是에 見神龍之逐日하야 日十二變色하고 乃作桓易하니 桓은 卽與羲로 同義也오 易은 卽古龍本字也라]”

환역의 역사는 행정관의 업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역의 유래는 하루 12시간 마다 몸 색깔을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변신하는 신령한 용을 법도로 본받은 점에 있다. 환역의 핵심은 육해공陸海空을 뜻대로 넘나드는 용을 만물 변화의 모델로 삼은 것에 있다. 이런 까닭에 나중에 『주역』이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비스런 존재를 용으로 설정한 배경을 알 수 있다.

『주역』은 ‘용龍’ 중심의 체계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테면 중천건괘重天乾卦(☰)는 잠룡潛龍, 현룡見龍, 비룡飛龍, 항룡亢龍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물의 변화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용 문화의 뿌리를 환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는다.

또한 환역은 옷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마한세가馬韓世家 상」은 환역과 『천부경』과 옷 문화는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공공, 현원, 창힐, 대요의 무리가 찾아와서 모두 자부선생에게 배웠다. 그때 옷놀이를 만들어 환역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대체로 (초대 환웅 천황 때) 신지 혁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전하는 뜻이다.[公共軒轅蒼頡大撓之徒가 皆來學焉하니라 於是 作柶戲하야 以演桓易하니 蓋神誌赫德所記 天符之遺意也라]”

옷과 환역은 동아시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민족의 유산이다. 특히 옷은 『주역』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이론이기 때문에 옷 문화와 환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학이라 할 수 있다. 환역은 하도낙서 외에도 옷관의 구성 원리 및 천문학까지도 포용한 종합 형태를 갖추고 있다.<sup>23)</sup>

옷놀이의 유래를 「단군세기檀君世紀」는 천하天河에서 거북이 옷판을 지고 나왔다고 말한다.<sup>24)</sup> 옷놀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민속놀이인 동시에 우주만물의 변화 원리를 탐색할

파악하여 신명을 부리셨다.[劃卦知來하시며 執象運神하시니라]는 내용이 있다. 환웅천황이 ‘괘를 그었다’는 말에서 역학사의 진실도 중요하지만, 환웅천황의 괘와 환역의 체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더욱 필요하다.

23)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548-549쪽 참조. “『태백일사』에서는 옷놀이를 『천부경』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천부경』이 나온 뒤에 일반 대중을 위하여 옷놀이를 고안했고, 옷놀이를 통해 우주만물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는 환역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옷은 환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만든 민중역인 것이다. 신시 배달 시대의 우사인 복희가 환역을 만들고, 같은 시대의 선인인 발귀리의 후손 자부 선생이 옷놀이를 만들어 환역을 더욱 발전시켰다. 일월의 운행도수를 측정하고 오행의 수리를 미루어서 천문 역법을 발달시킨 것이다. … 뒷날 蒼其蘇가 자부 선생의 환역 사상을 계승하여 오행치수의 법을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옷판과 옷놀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역학체계를 잘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24) 『환단고기』 「단군세기」 “十世檀君 魯乙在位五十九年”, “丙午十六年이라 東門外十里에 陸地生蓮하고 不咸에 馭石自起하고 天河에 神龜가 負圖而現하니 圖如柶板이오”

수 있는 철학적인 성격을 띤 문화이다. 윗놀이는 천문 역법과 역학의 수리철학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윗놀이는 대동세계와 이상세계의 지향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sup>25)</sup>

**\*윗의 유래와 그 특성- 『천부경』과 28수 및 환역의 연관성**

“1648년에 간행된 김육의 『송도지』에는 金文豹(1568-1608)의 ‘사도설’이 실려 있다. 김문표는 윗판의 둥근 외곽은 하늘을, 네모진 속은 땅을 형상하고, 안팎으로 늘어진 점은 28수로서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뭇 별이 그것을 향해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 했다. 윗판은 북두칠성의 운행원리를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윗가락이나 말의 모양과 숫자에는 음양오행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 있다. 윗놀이는 天時를 점쳐 한 해의 풍작과 풍년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윗판은 하늘과 땅이 들어 있는 작은 우주이다. 윗판에서 큰 동그라미 모양의 방은 우주의 중심별인 樞星을 뜻하고, 주위 28점은 28수에 해당한다. 넷으로 나뉜 안쪽은 밭과 사계절을 뜻하고, 태양의 消長週期和 음양오행의 변화 원리를 뜻한다. ... 한국의 환역은 윗놀이라는 민족 고유의 놀이를 통해 천부경의 이치를 담아 표현되었다. ... 윗판은 중국의 하도 낙서와 가장 비슷한 배열을 보인다. 일단 하도와 낙서는 方形이라면, 윗판은 圓形이다. 하도낙서는 5수를 중심에 두고 덧셈을 기초로 4방에 1에서 9까지의 점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한다. 윗판은 북극성을 중심에 두고 북두칠성이 사방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혹은 북극성과 28宿를 대칭형으로 배열했다고 할 수 있다. 하도낙서는 비대칭이지만 윗판은 전후좌우로 완전한 대칭도형이다. 이 윗판의 수리를 연구하다보면 중국의 역학과는 다른 한국 고유의 철학 사상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임채우, 「윗의 기원문제와 말판의 철학적 의미」 『윗 문화 자료집』,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13, 323-327쪽 참조.)

환역은 배달 시대의 복희가 창안했으며, 희역은 동양 역학사의 원조로 추앙받는 복희의 사상이 후대에 확대 심화된 형태로 정착한 역학으로 추정되며, 금역은 「소도경전본훈」의 저자인 이매이 살던 때에 통용되던 역학의 명칭이라고 짐작된다.<sup>26)</sup> 이매의 시각으로 보면, 배달 동이 나라에서 흥성했던 역학이 『주역』 이전에 이미 유행했다는 것이다.<sup>27)</sup>

『환단고기』는 희역을 중심으로 희역 이전은 환역, 희역 이후는 금역으로 발전했다고 말한다.

25)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상생출판, 2016), 548쪽 참조.

26) 오늘날의 『주역』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 ‘금역’을 제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27) 희역과 금역은 각각 지금의 복희역과 『주역』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환역의 전체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환국에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던 고서였던 『천부경』에 연역하여 환역, 희역, 금역의 명칭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만은 분명하다.

「소도경전본훈」을 통해 복희, 문왕, 주공과 기자 이래로 공자가 집대성한 『주역』 이전의 역학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주역』은 복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환단고기』는 복희 이전에 이미 환역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의 역학사는 새롭게 씌여져야 마땅할 것이다.<sup>28)</sup>

한민족의 역학은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환역과 희역의 천원지방·체용, 금역의 체용과 ‘원·방·각’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소도경전본훈」은 ‘하늘의 보편성[天理]’과 ‘하늘의 객관성을 뜻하는 형체[天體]’와 ‘하늘의 보편성을 생명의 본성으로 내면화한 천명[天命]’으로 요약하였다. 이들은 만물이 생성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을 천리와 천체와 천명으로 형상화하여 『천부경』의 이치를 잘 드러내었다.

“환역은 둥근 하늘을 창조의 본체로 삼고, 땅을 변화의 작용으로 하여 모습이 없는 것[無象]에서 우주 만물의 실상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이치[天理]이다. 희역은 땅을 변화의 본체로 삼고, 하늘을 변화 작용으로 하여 모습이 있는 것[有象]에서 천지의 변화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실체[天體]이다. 지금의 역은 본체와 작용을 겸비하였다(체도 되고 용도 되어). 사람의 도는 천도의 원만(○)함을 본받아 원만해지며 지도의 방정(□)함을 본받아 방정해지고, 천지와 합덕하여 하나(천지인 삼위일체, △)됨으로써 영원한 대광명의 존재[太一]가 되나니, 이것이 하늘의 명령[天命]이다.[桓易은 體圓而用方하야 由無象以知實하니 是天之理也오 羲易은 體方而用圓하야 由有象以知變하니 是天之體也오 今易은 互體而互用하야 自圓而圓하며 自方而方하며 自角而角하니 是天之命也라]”

천원지방은 하늘이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문 현상의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천원지방설은 대수학(algebra)보다는 기하학(geometry)의 성격에 가깝다. 그림에도 문명사자들은 예로부터 서양은 기하학을 토대로 연역법을 중시하는 철학이 출현한 반면에, 동양은 계산(실용) 위주 대수학이 발전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천부경』에 은폐되어 있는 대수학, 그리고 환역의 천원지방에 투영된 기하학의 사유가 실재했다는 점에서 동서양 수학사의 연원은 반드시 새롭게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28) 전통의 주역사는 상징과 수학을 중시하는 象數易, 도덕적 형이상학을 중시하는 義理易,蓍草와 占을 중시하는 卜筮易이 주도권을 행사했다.

\*『환단고기』의 體圓用方과 體方用圓, 그리고 『정역』의 體方用圓과 體圓用方

『환단고기』와 『정역』은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지시 대상은 분명코 다르다. 전자가 옷과 천원지방설에 기초하여 체용을 얘기했다면, 후자는 하도낙서를 바탕으로 체용 전환에 의해 이룩되는 자연의 근본적 혁명을 얘기했다.

선천은 방을 본체로 삼고 원을 작용으로 삼으니, 27삭만에 윤달이 든다.

후천은 원을 본체로 삼고 방을 작용으로 삼으니, 360일이 바로 1년(돌)이 된다.

원천은 무량하다.[先天은 體方用圓하니 二十七朔而閏이니라 后天은 體圓用方하니 三百六旬而正이니라 原天은 无量이니라(「十五一言先后天正閏度數」)]

『환단고기』는 환역과 희역의 특성을 ‘체원용방’과 ‘체방용원’으로 구별했으나, 김일부는 원방(체용)의 교체에 근거한 새로운 역법의 출현에 중점을 두었다. 역법의 역사는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 19년에 일곱 번의 윤달을 두는 章法을 낳았다. 그러나 김일부는 천문학에서 말하는 ‘천원지방설’보다는 하도와 낙서를 본체와 작용 또는 ‘원’과 ‘방’을 구분하는 방법에 의거해 선후천 전환의 타당성을 검증했던 것이다.

## VI. 환역, 천문과 옷을 체용의 철학으로 융합하다

『천부경』은 본체(10수)의 영역과 작용의 영역(9수)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수학 원전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이 『환단고기』 「소도경전본훈」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을 본체와 작용으로 분류하여 환역桓易은 ‘체원용방體圓用方’으로, 희역羲易은 ‘체방용원體方用圓’으로, 금역금易은 체용을 겸비했다[互體而互用]고 말하여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공통점을 체용 문제로 압축하여 환국 이후의 역학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후대의 사상에 지대한 자양분을 제공함으로써 동양철학을 다양하게 꽃피우도록 만들었다.

환역은 천문학, 체용론, 옷판의 3자가 융합되어 있다. 일종의 종합 학문의 성격을 띤다. ‘원방圓方’은 천문 관측의 과학이며, 그것을 수학으로 말하면 기하학일 것이다. 천원지방의 기하학(수학)이 현실과 만나는 곳에 낙서의 적법積法(다자多者에서 일자一者의 방향으로 전개, ‘일적 십거一積十鉅’)과 하도의 미법微法(일자一者에서 다자多者의 방향으로 전개)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현대에서 말하는 적분법과 미분법이 동양 수학의 쟁점은 아니었을지라도 천원지방에서 극대와 극소의 접점을 찾는 수학의 원형<sup>29)</sup>이 숨겨져 있음은 주목할 만한 가

29) 비록 서양의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적분법과 미분법이 아니지만, 極大와 極小이 만나는 균형, 즉 하늘과 땅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는가라는 천원지방설을 통해 인간은 하늘의 의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치가 있다.

환역은 둥근 원을 본체로 삼고 네모의 사각형을 작용으로 삼았으며, 희역은 사각형을 본체로 삼고 원을 작용으로 삼았다. 환역은 하늘을 본체로 삼고 땅을 작용으로 삼으며, 희역은 땅을 본체로 삼고 하늘을 작용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본체 중심으로 보는가, 아니면 작용 중심으로 설명하는가의 차이 및 그 관계를 얘기한 것이다. 하늘 자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존재론이라면, 땅 중심으로 세상의 이치를 들여다보는 것은 생성론(혹은 인식론)이라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또한 이 둘의 절충형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본체와 작용은 상호 의거하여 존재한다. 본체 없는 작용 없고, 작용 없는 본체도 없다. 본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본체도 있다. 본체는 작용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체와 작용은 떨어질 수 없으므로 본체는 작용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작용은 본체에 근거하여 움직인다.

환역의 ‘체원용방’과 희역의 ‘체방용원’은 하늘 자체를 규정한 용어인가? 아니면 땅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변화를 아는 인식의 반영물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 존재 차원과 생성 차원을 논의하는 범주와 ‘원방’을 이어주는 열쇠고리는 ‘체용’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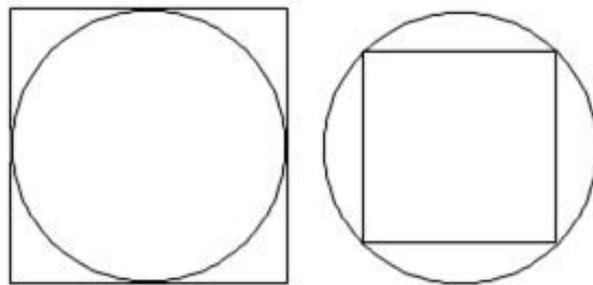


그림 6. 체원용방(좌)와 체방용원(우)

천원지방은 둥근 원 속에 네모가 들어 있는 형상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완전무결한 하늘을 모방하려는 의지를 천원지방설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천원지방설은 겉으로 보기에 하늘과 땅을 ‘1:1’ 대응 형식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 대응 관계가 과연 100%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 속에 네모가 있든, 네모 속에 원이 있든지 간에, 이 둘 사이는 완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늘의 섭리와 명령(天命)을 어떻게 받들어 할까의 고뇌가 성립한다. 이에 대한 전문적 논의가 바로 본체와 작용의 이론인 것이다.

체용이란 무엇인가? 체용은 본체와 작용(실체와 현상)의 합성어다. 체란 보통 ‘근본적인 것’ 또는 ‘제1차적인 것’이며, 용이란 ‘파생적인 것’ 또는 ‘제2차적인 것’으로 번역된다. 그렇다고

.....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 중에서 1차적인 본체가 우선이고, 작용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파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분법 혹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곤란하다. 그리고 본체와 작용을 주인과 손님으로 바라보는 인식 역시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다. 본체는 작용의 근거요 작용은 본체에 근거해 움직이는 까닭에 양자는 공존의 관계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천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물음 자체에 이미 ‘존재와 인식’의 문제를 동시에 전제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천지 자체에 대한 응답이 존재론적 사고라면,<sup>30)</sup> 천지에 대한 언어 규정은 인간 인식의 산물이다. 하지만 「소도경전본훈」에서 말하는 체용론은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를 추적하면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인과율因果律을 넘어설 정도로 본체와 작용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바람과 파도의 관계와 유사하다면, 본체와 작용의 관계는 물과 파도의 관계와 아주 흡사하다. 전자의 경우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일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까닭에 파도치는 원인은 바람이라는 외부 요인(내부 요인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에서 찾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서, 물과 파도는 철저히 내부 요인들이 얽히고 얽힌 관계를 형성한다. 파도는 물에서만 생기는 현상이고, 물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파도는 자연스레 생겨나기 때문에 파도는 물의 속성이며, 물은 파도라는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sup>31)</sup>

이러한 본체와 작용의 문제는 송대 성리학의 주요한 탐구 과제였다. 『중용中庸』의 “『시경詩經』에서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다’고 하니, 그 상하에 질서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다.”<sup>32)</sup>라는 내용은 형이상과 형이하[上下]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본체[體]와 작용[用]의 사유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본체와 작용은 천지에 가득 차고[空間] 고금에 널리 퍼져[時間] 털끝만큼의 빈틈도 없는 까닭에 양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체와 작용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라는 주장은 정이천程伊川(1033-1107)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 세상은 감각을 초월해 보이지 않는 궁극의 본체와 현실로 드러난 작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일종의 이분법의 사유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정이천은 원래부터 본체와 작용은 하나의 몸체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지극히 은미한 것은 ‘리理’요, 지극히 드러난 것은 ‘상象’이다. 본체와 작용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므로 드러난 현상과 미묘한(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이치 사이에는 애당초 자그마한 틈도 없다.”<sup>33)</sup>

주희朱熹(1130-1200)는 ‘체용’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 “‘체용일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은미한 이치로 말하면 곧 총막하여 조짐이 없으나 삼라만상이 이미 확연히 갖추어져 있다. ‘현미무

30) 천지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맹자는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겠는가? 오직 행동과 사건으로 보이실 따름이다.[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라고 말했다.(『孟子』「萬章」上)

31) 시마다 겐지 지음/김석근이근우, 『朱子學과 陽明學』(까치, 2001), 13-15쪽의 내용을 요약함.

32) 『中庸』 12장, “詩云 鸞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33) 程伊川, 『易程傳』「易傳序」, “至微者理也, 至著者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

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드러난 현상으로 말하면 일과 사물에 나아가더라도 이 이치가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 리를 말하면 (본)체를 먼저 하고, (작)용을 뒤로 한다. 대개 본체를 거론하면 작용의 이치가 이미 갖추어졌으며 이것이 곧 '일원一源'이 되는 까닭이다. 일을 말하면 곧 드러남을 먼저 하고 은미함을 뒤로 한다. 대개 일에 나아가도 이치의 본체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이 '무간無間'이 되는 까닭이다.”<sup>34)</sup>

'체용일원'의 “지극히 은밀한 이치로 말한다”와 '현미무간'의 “지극히 드러난 현상으로 말한다”는 것은 본체와 작용의 통일성에 대한 두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전자는 리理의 측면에서 말하고, 후자는 상象 곧 氣의 측면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본체는 리요, 작용은 기이다. 또한 은미함은 리요, 드러남은 기이다. 본체를 거론하면 작용의 이치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현실에 나아가도 본체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본체는 추상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작용의 이치로서 작용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체용일원'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事]을 말할 때, 그것은 근거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이치라는 본체로서 내재한다. 이것이 바로 '현미무간'의 뜻이다.”<sup>35)</sup>

체용론에서 본체는 무엇이고, 작용은 무엇인가라는 명쾌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양자 사이에 성립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 전자와 후자는 도道와 기器, 리理와 기氣, 관념[理想]의 세계와 감각[現實]의 세계, 형이상자形而上者和 형이하자形而下者の 관계는 ‘하나 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一而二, 二而一]’라는 문제로 수렴되어 본체와 작용을 ‘하나’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체용론은 우주와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문제[理氣心性論]를 관통하는 논리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본체와 작용은 하나의 원리에 대한 두 얼굴인 셈이다. 이를테면 인류의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자이듯이, 본체와 작용의 두 측면이 한꺼번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다. 이것이 바로 『천부경』과 환역·회역·금역을 통틀어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한국 역학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저 천하 사물의 이치는 항상 정당함에 머무르고 균형하여 상대가 없는 것이 없다. 오직 도는 상대가 없는 것이지만 형이상하로 논하면 곧 상대가 없는 적이 없다.”<sup>36)</sup>

시공 속에 존재하는 만물에는 상대가 있으나, 도에는 상대가 없다는 뜻이다. 도에 상대가 없으

34) 『太極圖說解』, “其曰體用一源者, 以至微之理言之, 則冲漠無朕而萬象昭然已具也. 其曰顯微無間者, 以至著之象言之, 則即事即物, 而此理無乎不在也. 言理則先體而後用, 蓋學體而用之理已具, 是所以爲一源也. 言事則先顯而後微, 蓋即事而理之體可見, 是所以爲無間也.”(『性理大全』 권1)

35) 오하마 아키라 지음/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예문서원, 1996), 372-373쪽 참조.

36) 『朱子大全』上 권42 「答胡廣仲」, “大抵天下事物之理, 亭當均平, 無無對者. 唯道爲無對, 然而形而上下論之, 則亦未嘗不有對也.”

므로 절대이지만, 도를 형이상과 형이하로 나누어 말하는 순간 상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의 본체는 형이상학의 대상이고, 도의 작용 역시 형이상학의 대상인 것이다.<sup>37)</sup> 본체는 지극히 은밀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작용은 겉으로 밝고 환하게 드러나 인식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희는 본체와 작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논지를 고수한다.

그렇다면 환역의 ‘체원이용방體圓而用方’과 희역의 ‘체방이용원體方而用圓’ 및 금역의 ‘호체이호용互體而互用’에서 본체와 작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말이 ‘이而’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본체는 둥글고 작용은 네모지다[體圓而用方]에서 본체를 상징하는 둥근 형상과 작용을 상징하는 네모 형상은 서로 대등한 관계인가, 혹은 종속 관계인가에 따라 철학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치를 존중하는 형이상학과 현실의 변화를 통해 이치를 탐구하는 형이하학의 구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접속사 ‘이而’를 순접順接(and) 또는 역접逆接(but)으로 보는가에 따라 본체와 작용의 성격과 역할도 확연하게 달라진다. 순접은 전자와 후자의 동일성을, 역접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월성(반대로는 종속성)을 나타낸다.

진리에 대한 이분법의 시초는 주렴계周濂溪(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는 명제가 대변한다. 무극과 태극을 인식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무극은 태극을 (감각과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무극과 태극은 초월과 내재의 동시성을 표현한 것일뿐, 실제로는 하나라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초월과 내재의 관계를 하나로 인식하면 일원론一元論(monism)이요, 둘로 나누면 이원론二元論(dualism)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극은 태극을 초월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무극은 태극에 내재한 만물의 본체인가의 물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송대 성리학은 태극에 대한 무극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따라 리理 위주의 철학, 혹은 기氣 위주의 철학으로 나뉘었던 것이다.

이처럼 형이상의 본체와 형이하의 작용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 차원에서 하나로 붙어 있다는 입장이 곧 ‘리기불상리理氣不相離’이다. 그러나 논리 차원에서 보면 본체는 본체이고 작용을 작용일뿐, 본체가 곧 작용이고 작용이 본체일 수 없다는 입장이 곧 ‘리기불상잡理氣不相雜’이다. 전자는 본체와 작용은 원래부터 하나로 존재하며, 후자는 본체와 작용의 범주가 엄연히 다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인과율에서 결과는 원인에 앞설 수 없고(예컨대, 케네디가 피를 흘리며 죽고 나서 범인의 총탄을 맞을 수는 없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수반한다는 이른바 원인과 결과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인과별체因果別體’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소도경전본훈」의 핵심은 인과율과 다르다. 본체와 작용의 관계는 언제나 ‘체용일치體用一致, 체용일원體用一源’, ‘본체가 곧 작용이요 작용이

37) 오하마 아키라, 앞의 책, 497쪽 참조.

곧 본체'라든가, '작용은 본체의 작용이요, 본체는 작용의 본체'라는 이론으로 귀결된다.

『송원학안宋元學案』 첫머리에는 북송北宋의 학자 호원胡瑗(993-1059)의 '명체달용明體達用'이라는 화두가 제시되어 있다. 천지만물의 궁극적 본체를 명백하게 밝혀 깊이 깨닫고, 그것의 활용 방안을 실천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유교의 공부 방법을 심화시켰다. 이는 소강절邵康節,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장횡거張橫渠 등에게 전승되어 사변과 실천의 범주로 사용되었으며, 마침내 주희朱熹에 이르러 방대한 학술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이 되었다.

그런데 「소도경전본훈」은 본체와 작용의 문제와 함께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본체와 작용의 준말인 체용에다가 천원지방의 준말인 원방이라는 체용과 원방을 하나의 논리로 결합시킨 것이다. 그것은 천문의 자연과학과 철학을 동일한 체계로 묶은 고급 차원의 담론이라 하겠다.

'금역'은 체용의 문제를 일종의 이론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곧바로 인간학과 직결시키고 있다. '금역'은 원방圓方에다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각角'의 문제를 덧붙였다. 그것은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세 단계의 진화를 통해 자연과학과 철학과 인간학의 종합 학문으로 태어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환역과 희역은 '천원과 지방' 혹은 '본체와 작용'의 이분법(dichotomy)에 의한 과학과 철학을 융합하고 있으나, 금역은 원방각의 3원이 각각 존재 의미와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원방각의 일체화) 경계를 밝히고 있다. 환역과 희역을 뿌리로 삼아 음양 이원론이 유래되었으며, 금역의 핵심인 원방각의 원형은 『천부경』의 '3극'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음양론과 천지인 3재 모두 『천부경』과 환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도경전본훈」에 의하면 환역이 본체 중심의 사유이며, 희역은 작용 중심의 사유다. 그럼에도 본체와 작용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까닭에 본체와 작용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단지 본체를 앞세우는가? 작용을 앞세우는가만 다를 뿐이다. 그것은 본체와 작용의 '대등성對等性'을 표현한 접속사 '이而'가 증명한다. 심지어 금역은 본체와 작용 이외에도 인간의 문제까지도 통섭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一積十鉅’의 입장에서 보는 ‘用變不動本’과 ‘체용 겸비[互體互用]’의 연결고리

성리학은 본체와 작용의 범주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이 둘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體用一源]고 말한다. 「소도경전본훈」 역시 환역과 희역에 나타난 본체와 작용 혹은 원과 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역은 본체와 작용 앞에 서로 ‘호互’를 썼다. 환역과 금역의 관계를 묘사한 다섯 글자에 맞추어 ‘호[互體而互用]’를 수식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호’는 본체와 작용을 ‘겸비했다’로 번역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체와 작용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띄우라는 의미의 ‘부사’로 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서로’라는 부사 대신에 ‘서로 바꾼다’라는 동사로 보면, 금역의 특징은 물론 『천부경』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동사’로 해석할 경우에 본체가 작용이 되고, 작용은 본체로 바뀐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부경』의 ‘用變不動本’의 해석과 맞물려 있다. 예컨대 작용은 변하고[用變]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不動本]는 풀이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태극음양론의 종지와 다를 바 없다.<sup>38)</sup> 그것은 『천부경』이 성리학의 뿌리라는 점에서는 자긍심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일적십거’에 내포된 9수와 10수의 차이점을 근거로 10수를 본체로, 9수는 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1은 10을 목표로 진행한다[一積十鉅]는 명제에서 성리학은 9수와 10수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용변부동본’을 통해 9수가 10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조차 없다. 선후천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용변부동본’은 9수 낙서가 10수 하도로 바뀐다[互]는 이치를 전제한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전자가 본체와 작용에 대한 관계 중심의 해석이라면, 후자는 본체가 작용으로[體圓用方] 또는 작용이 본체로 바뀐다[體方用圓]는 체용 ‘전환’의 논리와 흡사하다. 만약 후자의 견해가 받아들여진다면, 중국 역학<sup>39)</sup>의 그늘에서 벗어난 『정역』은 『천부경』과 환역과 희역을 계승한 한민족 고유의 역학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본체와 작용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한참 뒤, 송대 동양철학의 체용론으로 변신하여 사변 철학으로 바뀌었다. 송대 체용론에 입각해서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특징을 해석한다는 것은 후대의 관념으로 전통을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왜냐하면 현대의 입장에서 과거를 심판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환역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38) 태극은 不變하고, 음양은 변화한다는 이론을 일컫는다.

39) 낙서는 작용을 상징한다. 낙서가 하도로 바뀌어야 ‘一積十鉅’에서 말한 10수의 (10×10=100)의 목표 또는 {낙서 45(1+2+3+4+5+6+7+8+9) + 하도 55(1+2+3+4+5+6+7+8+9+10)=100} 의 등식이 성립한다.

도 본체와 작용의 분별을 통해 역사와 철학과 문명과 인간사를 꿰뚫어보라는 안목을 권고하는 지혜는 놀랍고도 경이롭다.

## VII. 맺는말

문명의 위대한 통찰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지식 여행의 시작은 『천부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의 역학과 수학은 『천부경』에 빚지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천부경 81자는  $9 \times 8 = 81$ 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하늘의 둥근 형태와 땅의 네모진 형태라는 천원지방의 기하학 및 전체 81자 중에서 숫자가 31개가 사용된 점에서 대수학이 밀받침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역』은 만물의 구성과 변화를 추론하는 고도의 산술을 기반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고전으로만 추앙받고 있다. 그래서 도덕 형이상학이 『주역』의 고유 영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상수론은 항상 부정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주역』 자체가 천지인 3재를 바탕으로 구성된 점을 볼 때, 역학의 밑바탕에는 상수학이 짙게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수는 세상과 문명을 여는 코드이다. 우주는 숫자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다. 시공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수학의 보편성은 누구든지 긍정하기 마련이다. 자연은 보이는 패턴과 보이지 않는 수의 질서로 움직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만큼 『천부경』은 세상의 움직임을 수로 표현하고 있다.

『천부경』은 하도낙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배경에는 ‘ $9 \times 9 = 81$ ’이라는 낙서의 방정식이 노출되어 있다. 하도가 있으면 낙서가 있고, 본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는 것처럼, 9수 중심의 낙서는 하도 10수를 겨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천부경』은 낙서 9수가 하도 10수를 지향한다는 것을 ‘일적십거—積+鉅’라는 개념으로 암시했다. 하도가 10수 본체로부터 1수에 이르는 작용이 생명 창출[微分]의 법칙이라면, 낙서는 1수로부터 10수에 이르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진화한다[積分]<sup>40)</sup>는 것을 밝힌 인류 최초의 수학 원전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환역은 감추어진 질서(하도 10수)와 드러난 패턴(낙서 9수)을 본체의 영역과 작용의 영역으로 구분했고, 또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진 형태로 형상화했다. 이때 본체와 작용은 서로 한 순간도 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희역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요컨대 「소도경전본훈」은 체용을 중심으로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환역에서 유래한 본체와 작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한참 뒤, 송대 동양철학의 체용론으로

40) 낙서와 하도는 상보적 관계를 유지한다. 우주는 하도낙서의 상보성에 근거한 역동적 운동으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변신하여 사변철학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안타깝게도 환역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체와 작용에 대한 분별과 통합을 통해 역사와 철학과 문명을 통찰하라는 지혜는 시대를 뛰어넘어 아직도 유효하다.

본체와 작용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하나로 통합해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환역처럼 본체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 아니면 희역처럼 작용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로 나뉜다. 그러나 금역은 본체와 작용을 겸비해서 인식하라고 가르친다. 본체와 작용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존재하지만, 본체와 작용을 둘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두뇌 구조와 인지 능력의 소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금역은 하늘과 땅에 근거한 인간의 본성[角]을 바탕으로 본체와 작용은 물론 천지인을 ‘하나’로 통합해 인식하라고 매듭짓는다.

역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천부경』과 환역·희역·금역의 정신은 이웃나라 중국에게 오래 세월 동안 주도권을 넘겨줘 『주역』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천부경』의 핵심은 한민족의 영혼 속에 깊이 잠들었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동학東學과 『정역』으로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 『환단고기』의 역주를 비롯해 『천부경』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대중화의 길로 나아가는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다. 그것은 한류 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학의 앞날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원전)

- 桓檀古記
- 道典
- 三國史記
- 周髀算經
- 周易
- 正易
- 中庸, 中庸或問
- 易程傳
- 易學啓蒙
- 朱子大全
- 朱子語類
- 洪範皇極內篇

### (단행본)

- 시마다 겐지 저, 김석근·이근우 역, 2001, 『朱子學과 陽明學』, 까치.
- 안경전, 2014, 『증산도의 진리』, 상생출판.
- 오하마 아키라 저, 이형성 역, 1996,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 윤창열, 2023, 『桓檀古記 연구』, 상생출판.
- 양재학, 2021, 『주역과 만나다(1)』, 상생출판.
- 이정용 저, 이세형 역, 1998, 『易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 프리츠프 카프라 저, 이성범·김용정 역, 1998,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 한동석, 2001,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 (논문)

- 양재학, 「무한으로 읽는 천부경」, 대한사랑 학술대회 발표문, 2024.
- 임채우, 「옷의 기원문제와 말판의 철학적 의미」 『옷 문화 자료집』,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13.

## 「천부경과 역학」 논평문

윤창열(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천부경은 인류의 뿌리문화 시기인 마고시대에 만들어져 한국시대때 완성된 우리 민족의 소의 경전(所依經典)이며 동서양 문화경전 중 최초의 경전이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경전이며 81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이다.

또 천부경은 유불선의 경전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유불선의 뿌리가 되는 경전으로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수학 등의 근원이 되는 인류문화의 제 1의 성전이며 1, 2, 3, 4, 5, 6, 7, 8, 9, 10의 10개의 숫자로 진리의 근원인 하늘 땅 인간을 정의한 우주수학 원전이다.

필자는 천부경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역학의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필자는 천부경과 주역의 공통점을 천지인 3재에 기초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천부경의 천지인 3극과 주역의 천지인 3재를 비교 설명하면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 근원이라고 하는 무(無)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천부경의 일적십거(一積十鉅)를 가지고 하도 낙서를 설명하였으며 한국의 독특한 역학인 정역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도 낙서를 음양 오행의 원리로만 설명했던 주자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역은 무극, 태극, 황극이 우주변화의 핵심축이여 존재의 근원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단고기』에 명칭만 나오고 내용은 몇글자에 불과한 환역(桓易)과 희역(羲易)의 특징을 심도있게 설명한 것이 본 논문의 성과라고 말하고 싶다.

논평자의 입장에서 필자의 논문을 읽고나서 의문되는 내용 몇가지를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주 8번의 “위대하도다. 삼신일제가 만물의 창조원리가 되고…”는 「삼신오제본기」의 내용인데 「소도경전본훈」으로 잘못 기술된 것 같다.

둘째 “하늘은 1, 땅은 2, 사람은 3이라는 의미는 천지인 3재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생기는 위치를 구분짓는 질서, 혹은 가치의 등급과 척도를 매긴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천지인의 구성을 논리 차원에서 ‘앞뒤’를 지적한 말이다.” 하였고 “하늘은 ‘1’, 땅은 ‘2’, 인간은 ‘3’으로 규정한 것은 천지인의 본성에 대한 조직 차원의 위계를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셋째 『천부경』의 3극은 3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무無’에서 비롯된 ‘무(극)’의 조직 구조, 곧 3극의 역동적 움직임을 ‘무’의 삼위일체적 통일성에서 찾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넷째, 각주 17)에서 “주역에서 선후천 전환의 발상을 찾을 수 없다”고 했으나 주역에서도 선후천 전환의 논리가 많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 ① 건선천, 곤후천
- ② 상경 선천, 하경 후천등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 가림토와 훈민정음 자형의 기원에 대한 고찰

박덕규\*

- I. 들어가며
- II.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 1. 초성 기본자
  - 2. 중성 기본자
- III. 상형과 자방고전
  - 1. 자방고전의 옛 글자
  - 2. 상형
  - 3. 象과 文
  - 4. 육서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그동안 훈민정음 자형(字形)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찾아보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훈민정음』해례에는 훈민정음 초성은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 따 만들었고, 중성은 삼재(天地人)를 본 따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세종실록』이나 『훈민정음』해례 정인지 서문 등에는 ‘자방고전(字倣古篆)’ 옛 글자를 모방했다는 말이 나와서다. 또한, ‘초성은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 따서 만들었다’는 해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사람의 발성 기관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이지만, 훈민정음 자형은 마치 인쇄한 글자체처럼 세모나 네모 등 각지거나 반듯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해례본의 훈민정음 자형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훈민정음이 모방했다는 ‘옛 글자’를 범어나 몽고, 파스파, 옛 전자에서 본 딴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옛 글자’는 「단군세기」에 전해지는 단군조선의 문자 ‘가림토’를 본딴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만약 가림토를 본따서 만들었다면, 그 가림토는 또 무엇을 본딴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필자는 줄필이지만 지난 글에서 훈민정음과 자형이 같은 가림토의 문자 체계를 『훈민정음』해례에서 밝히는 중성 모음 체계에 적용하여 가림토와 훈민정음에는 단군조선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한 인식을 확장하여 이 글에서는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자형에 주목하

\* 인하대학교 대학원

여 특히 중성 모음 기본자(· ㅡ ㅣ)가 단군조선 시대에도 전해지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팔괘의 점과 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 1. 초성 기본자

『훈민정음해례』는 초성 기본자 다섯 글자(ㄱ, ㄴ, ㄷ, ㅅ, ㅇ)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象] 만들었다고 한다.

“훈민정음 스물 여덟 글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무릇 열일곱 자이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 ㄷ은 입모양을 본뜨고, 치음 ㅅ은 이빨 모양을 본뜨고, 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sup>1)</sup>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그림 1.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牙舌脣齒喉)을 성질에 맞게 오행(五行)과 오음(五音)에 나누어 배치하고 초성 기본자에 적용했다.

1)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初聲凡十七字。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脣音ㄷ，象口形。齒音ㅅ，象齒形。喉音ㅇ，象喉形。”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목구멍(○)은 깊고 젖어 있으니 水다. 소리는 비어 있고 통하니 물이 투명하고 흘러 통하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 되고 소리로는 우(羽)가 된다. 어금니(ㄱ)는 어긋나고 기니 木이다. 소리는 목구멍과 비슷하나 차 있으니 나무가 물에서 나서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 되고 소리로는 각(角)이 된다. 혀(ㄴ)는 날카롭고 움직이니 火다. 소리가 구르고 날리니 불이 구르고 퍼져 휘날리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여름이 되고 소리로는 치(徵)가 된다. 이(ㅅ)는 단단하고 물건을 끊으니 金이다.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리니 쇠가 부스러져 가루가 되고 단련되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가을이 되고 소리로는 상(商)이 된다. 입술(ㅁ)은 펼쳐져 있고 합해지니 土다. 소리가 머금고 넓으니 땅이 만물을 품어 넓고 큰 것과 같다. 계절로는 늦여름이 되고 소리로는 궁(宮)이 된다.”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초성 기본자를 상형한 순서대로(ㄱ, ㄴ, ㅁ, ㅅ, ㅇ) 오행에 배치하면 서로 生하는 상생(相生)의 관계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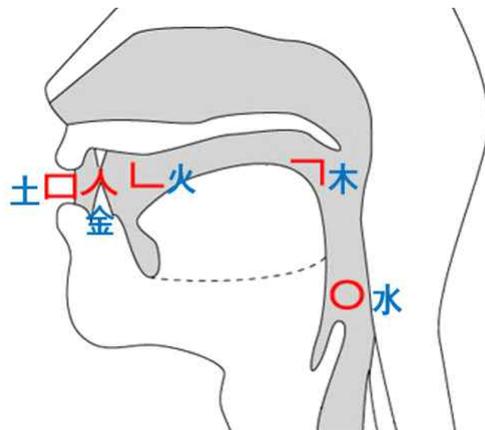


그림 2.

표 1. 초성 기본자의 오행 배열

초성 기본자					
모양	ㄱ	ㄴ	ㅁ	ㅅ	ㅇ
오행	木	火	土	金	水
조음위치	牙(어금니)	舌(혀)	脣(입술)	齒(이)	喉(목구멍)
오음	角	徵	宮	商	羽
계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상생관계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이러한 상생 관계는 하도(河圖)의 상생 순환을 연상시킨다. 하도는 5,600년 전 태호 복희(太昊 伏羲)씨가 우주의 이치를 점과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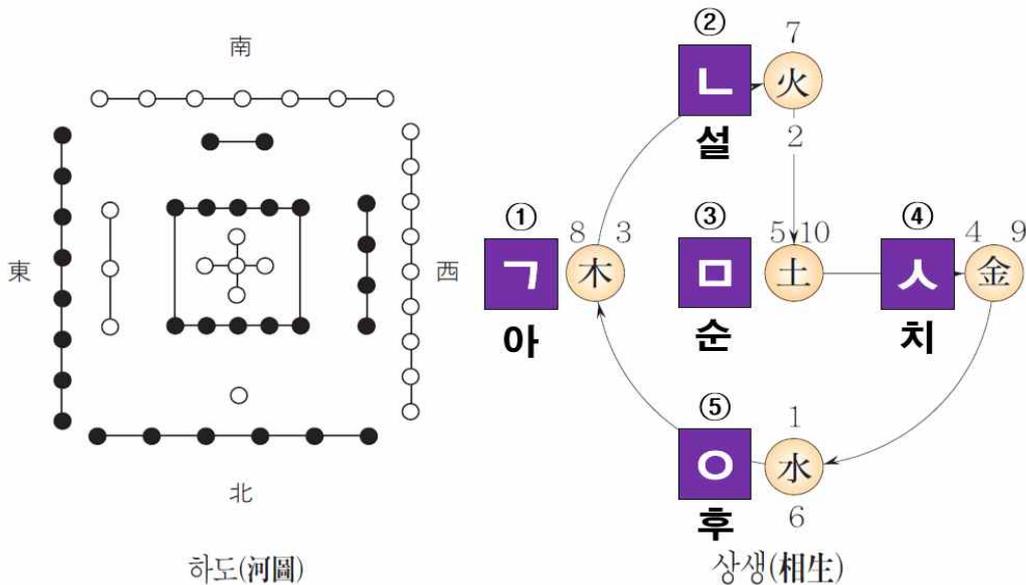


그림 3.

하도는 공간(東·西·南·北·中)과 시간(春·夏·秋·冬·長夏)의 질서를 음양을 상징하는 흑백의 55개 점으로 표현했는데, 각각 3·8(동방-木-봄), 2·7(남방-火-여름), 4·9(서방-金-가을), 1·6(북방-水-겨울), 5·10(중앙-土-늦여름)으로 배치되어 있다.

## 2. 중성 기본자

『훈민정음해례』는 중성 기본자 세 글자(· — |)는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서[象] 만들었다고 한다.

“중성은 무릇 열한 글자이다.

· 는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子時)에 열린 것이다.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 는 혀가 조금 오그라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시(丑時)에 열린 것이다.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 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시(寅時)에 생긴 것이다. 모양이 서 있음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訓民正音解例』 制字解)



그런데,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과 세종실록 등 훈민정음 창제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헌에는 ‘자방고전(字倣古篆)’이란 말이 등장한다.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이 달에 임금이 몸소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고 …(是月上親製諺文 二十八字其字倣古篆) (『세종실록』, 1443년)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를 창제하시어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훈민정음이라 하셨는데 상형하여 만들되 글자는 옛 글자에서 모방한 것(象形而字倣古篆)이다.” (정인지 서문)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諺文皆本古字) 새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則字形雖倣古之篆文)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은 근거한 데가 없습니다.” (『세종실록』, 최만리 상소문 1444년)

“각 글자에 해당하는 모양을 본떠서 정음 28자를 만들었다(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이 때문에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倣古篆)’을 분리하여 ‘상형(象形)’은 초성과 중성 기본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방고전(字倣古篆)’은 나머지 글자의 제작 원리를 말한 것으로 해석<sup>4)</sup>하거나 “상형해서 만들되 글자 모양은 고전을 본떴고”(강신항 1979), “형상을 모방하여 글자는 옛날 전자와 비슷하고”(김민수 1957), “상형하되 글자는 옛날의 전자를 본 따고”(김봉태 2002), “꼴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되 옛날 전자와 같다”(김석환 1997), “글자는 옛 전자처럼 모양을 본떴고”(김슬옹 2015) 등의 해석들이 나왔다.<sup>5)</sup> 앞의 ‘상형’은 모양을 본뜬 것을 말하고, 뒤에 ‘자방고전’은 옛 글자와 닮았다고 해석<sup>6)</sup>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즉, ‘상형’의 대상은 발음 기관과 천지인이지만, ‘자방고전’은 글자가 옛 전자와 닮았다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앞의 ‘상형(象形)’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궁금해진다. 상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물의 모양을 본뜨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견해<sup>7)</sup>가 있고, 또, 역의 패상처럼 추상적 의미까지도 형상화했다는 뜻으로 확장해석해야 훈민정음에 함축된 역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sup>8)</sup>도 있다.

뒤의 ‘옛 글자(古篆)’는 소천체(小篆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획의 굵기가 일정한 것이 특

4) 홍윤표, 2005, 위의 논문, 65쪽.

5) 박병천, 「훈민정음의 한글문자 생성 구조와 서체적 응용」, 『나라사랑』 127, 2018, 91쪽.

6) 박병천, 2018, 위의 논문, 92쪽.

7) 박형우, 「훈민정음(訓民正音) "상형이자방고전(像型而字倣古篆)"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53, 2008, 153-180쪽.

8) 김만태, 2012, 앞의 논문, 55-94쪽.

징인 소전체처럼, 훈민정음 자체(字體)도 굽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소전체는 ‘유려한 곡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훈민정음과 차이가 있다. 박병천은 "고전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한글 최초의 글자인 훈민정음 원본의 글자꼴은 획의 굽기가 일정하고 입수필 부분이 원형이며, 가로·세로·서선의 방향을 수평·수직으로 나타냈다. 또 획끼리의 접필은 모두 굽게 붙여서 나타냈고, 서선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한자의 소전체와는 다르게 각이 생기게 나타냈다."고 하여, 훈민정음 자체에 각이 있는 것이 소전체와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아래의 소전체 석각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4.

‘상형이자방고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훈민정음은 ‘모양은 본뜨되, 글자는 옛 글자를 닮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옛 글자’는 지난 줄필에서 밝힌대로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와 일십당 이맥의 『태백일사』에 전해지는 가림토라고 생각한다.9)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방고전’의 옛 글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상형’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상형

초성 기본자(ㄱ ㄴ ㄷ ㅇ)의 ‘모양은 발음기관을 본 닮지만(象形), 글자는 옛 글자(가림토)와 닮았다/모방했다[字倣古篆]’고 보면, 초성 기본자의 각진 자체와 일정한 필획 모양이 왜 실제 발음기관의 부드러운 모양과 다른지 이해된다.

9) 박덕규, 「훈민정음과 가림토의 연관성 고찰」, 『세계한단학회지』 7(2), 2020, 117-147쪽.



그림 5.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례본에서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뵈다’는 ‘ㄱ’은 실제로는 ‘ㄱ’에 가깝고,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뵈다’는 ‘ㄴ’도 실제로는 기울어진 ‘ㄴ’에 가깝다. 실제 모양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하고 가림토의 ‘ㄱ ㄴ ㅁ ㅅ ㅇ’자를 모방하여 초성 기본자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가림토 문자



◎훈민정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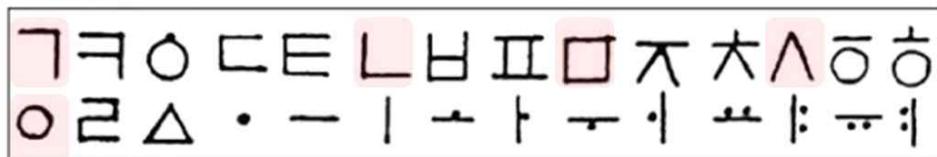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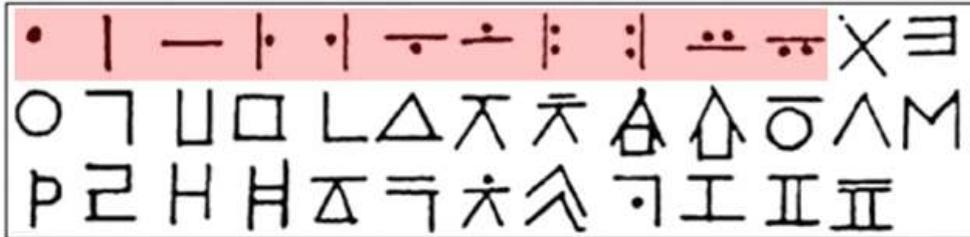


그림 6.

중성 기본자는 천지인을 상형하고 가림토의 ‘· — |’자를 모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 — |’가 하늘과 땅, 사람을 상형한 글자라면 의문이 드는 점이 天地人은 당시 우주관이었던 ‘천원지방’을 적용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한, 가림토는 무엇을 상형해서 ‘· — |’자를 만들었는지도 의문이다.

◎가림토 문자



◎훈민정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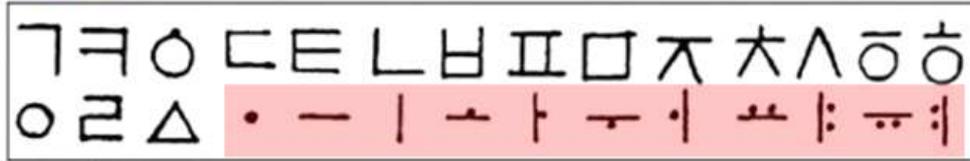


그림 7.

천원지방(天圓地方)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것으로 해례본에서 설명하는 ‘둥근 모양’과 ‘평평한 모양’에 가깝다.

- “ · 는 ... 둥근 모양은 하늘을 본떴다(形之圓 象乎天地)
- 는 ... 평평한 모양은 땅을 본떴다(形之平 象乎地也)
- | 는 ... 일어선 모양을 한 것은 사람을 본떴다(形之立 象乎人也).”(『訓民正音解例』 制字解)

그러나, 천원지방의 상징 기호(○□△)를 닮은 글자는 후음 ‘ㅇ’자와 순음 ‘ㄹ’자, 반치음 ‘ㄷ’자에 보인다. 결국, 하늘을 상형해서 만들었다는 ‘·’자는 원(○)이 아니라 점(點)이고, 땅을 상형해서 만들었다는 ‘—’자는 네모(□)가 아니라 시작과 끝의 굽기가 같은 직선이다. 『훈민정음해례』에서 ‘·’자와 ‘ㅇ’자의 서체를 보면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땅을 상형한 ‘—’자가 ‘한 일(一)’자와 다른 것은 글자를 쓰는 방법에서도 알 수 있다. 한 일(一)자는 운필법에서 잠두마제(蠶頭馬蹄)로 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획의 굽기가 일정한 직선 ‘—’자는 운필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림 8. 상, 약, 야, 엿, 병, 울, 창 등의 글자에서 ·자와 ○자는 구분된다

### 3. 象과 文

『훈민정음해례』제자해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천지의 이치[道]는 오로지 음양과 오행일 뿐이다. 곤(坤)과 복(復)의 사이에서 태극이 생겨 나서, (태극이) 움직이고 멈춘 후에 음양이 생겨난다.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어찌 음양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理]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미처 사람이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지금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지혜로써 마련하고 애써 찾은 것이 아니라 소리에 따라 (본래부터 있던) 그 이치[理]를 다 밝혔을 따름이다.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理]는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하늘과 땅 그리고 귀와 신이 그 운용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sup>10)</sup>

10)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今正音之作，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理既不二，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訓民正音』制字解)

천지의 道는 음양오행으로 그 이치를 따라서 소리에도 음양오행의 이치가 있다는 것이며, 훈민정음은 천지 자연의 소리 이치를 담은 문자이고, 음양오행은 그 이치를 보여주는 핵심 장치라는 것<sup>11)</sup>이다.

해례의 마지막에 실려있는 정인지 序는 ‘옛사람이 천지인 삼재(三才)의 도리를 기재한 것이 옛 글자’라고 하였다.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 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sup>12)</sup> (『訓民正音解例』 정인지 序)

그렇다면, 음양오행과 하늘과 땅, 사람의 도리를 기재한 옛 사람은 누구일까?

“옛적에 포희씨가 천하의 왕을 할 때, 우리르면 하늘의 象을 살펴보고, 구부리면 땅의 법을 살펴보며 날짐승들의 무늬와 땅의 마땅함을 살펴보며 가까이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취하고, 멀리하는 만물의 모든 것을 취하여 이에 비로써 八卦를 지어 그로서 神明의 德에 通하며 그로서 만물의 情을 分類하니...”<sup>13)</sup> (周易 繫辭傳 下 제2장)

천지의 자연 질서와 이치를 담아 부호로써 나타낸 것이 태호 복희씨의 河圖와 八卦이다. 하도에는 공간과 시간의 오행 이치가 담겨 있고, 팔괘에는 음양의 이치가 담겨 있다.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 기본자는 각각 사람의 발음기관과 천지인을 상형하여 만들고 음양오행과 하도의 이치를 바탕으로 오행과 오음, 공간과 시간의 이치에 적용하여 문자가 되었으므로 훈민정음 중성 기본자(· — |)가 상형한 천지인은 하도의 점(·)과 팔괘의 꺾(—)에서 본딴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한지 살펴보자.

#### 4. 육서

漢字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자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육서(六書)’는 한자의 구조 및 사용에 관한 여섯가지 명칭인 ‘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를 말하기도 하고, 한자의 여섯가지 서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글자를 만드는 조자(造字)의 기본 원칙과 조례(條例)<sup>14)</sup>로 이해된

11) 김슬옹,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속성」,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2010, 138쪽.  
12)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訓民正音解例』 정인지 序)  
13)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에 仰則觀象於天하고 俯則觀法於地하며 觀鳥獸之文과 與地之宜하며 近取諸身하고 遠取諸物하여 於是에 始作八卦하여 以通神明之德하며 以類萬物之情하니...” (周易 繫辭傳 下 第二章)  
14) 정화경. 「鄭樵의 研究」. Diss.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 7쪽.

다.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형체를 본뜬 ‘상형’을 文이라 하고, 형체와 ‘소리’가 합해져서 字가 되었다고 한다.

“창힐(蒼頡)이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대개 무리(類)에 의거해 상형하였기에 文이라 이르는 것이다. 그 뒤 形과 聲이 서로 더하여진 것을 字라고 한다.”<sup>15)</sup> (허신, 『說文解字』)

“대체로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의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천지간의 일(事)과 형체(形)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었다. 그 일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을 指事라 하며, 一, 二, 上, 下가 그것이다. 그 형체의 대강을 본뜬 것을 象形이라 하며, 日, 月, 水, 火가 그것이다. 문자가 이미 성립되자 소리가 그 글자에 기탁하게 되어, 글자에는 그와 어울리는 소리가 있게 되었다.”<sup>16)</sup> (戴震, 『答江慎修先生論小學書』)

송대 鄭焦(1104~1162)의 『六書略』에는 篆書에서 다양한 다른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시한 「인문성상도(因文成象圖)」가 기재되어 있다. 「인문성상도」는 '文'으로부터 '象'을 이루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天·地·水·火’자는 각각 ‘☰(乾)·☷(坤)·☵(坎)·☲(離)’괘를 상형해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건괘(☰)에서 天의 상을 취했고, 곤괘(☷)에서 地의 상을 취했다. 감괘(☵)에서 水를 취했고, 리괘(☲)에서 火를 취했다.”

팔괘에서 전서가 유래했다는 것은 훈민정음에서 天地人을 상형한 ‘· · — |’자가 하도와 팔괘의 모양을 상형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추상적인 천지 자연의 이치를 점과 선으로 상형한 것이 하도와 팔괘이며, 여기에 가획과 합성, 연서, 합용 등의 방법으로 천지인과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서 소리(聲)를 더하면 문자가 되는 것이다.

15) “蒼頡之初作書，蓋依類象形，故謂之文，其後形聲相益，即謂之字”(許慎, 『說文解字』序)

16) “大致造字之始，無所憑依，宇宙間事與形兩大端而已。指其事之實曰指事，一，二，上，下是也；象其形之大體曰象形，日，月，水，火是也。文字既立，則聲寄于字，而字有可調之聲；意寄于字，而字有可通之意，是文字之兩大端也”(戴震, 『答江慎修先生論小學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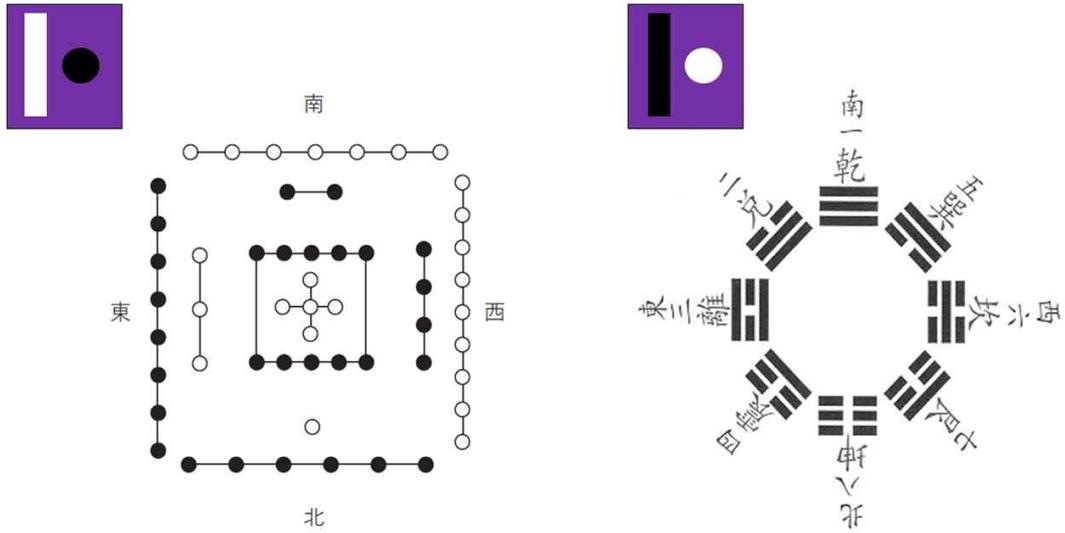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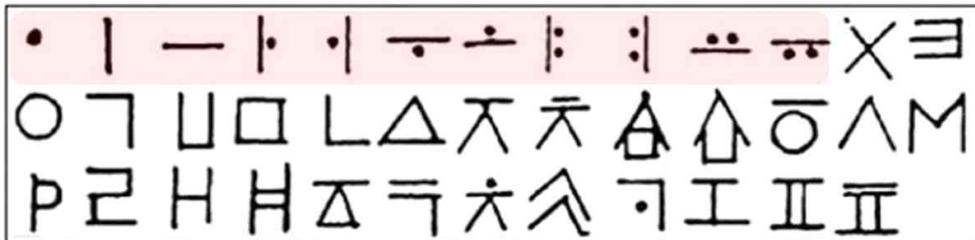


그림 10. 하도의 점과 팔괘의 괘를 상형하여 중성 기본자(· — |)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림토의 뒷 부분 11글자와 훈민정음의 중성모음 11글자는 순서만 다를 뿐 모양이 동일하다. 가림토를 만들 당시에 하도와 낙서, 팔괘를 상형해서 11글자를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가림토 문자



◎훈민정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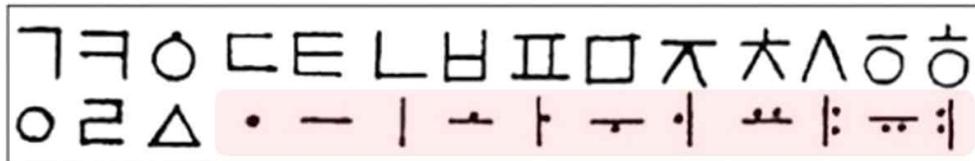


그림 11.

### 중성 초출자(⊥ ⊥ ⊥ ⊥)와 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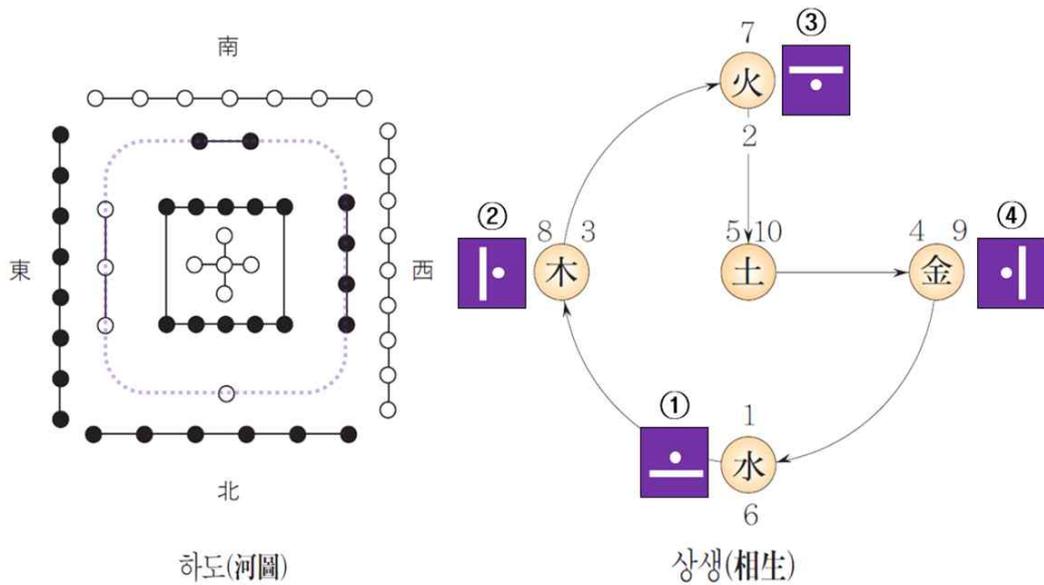


그림 12. 중성 초출자를 오행에 배치하면 그 자체로 하도와 같은 그림이 된다

## VI. 나오며

『훈민정음해례』에는 초성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만들었고, 중성 기본자는 천지인을 상형해서 만들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세종실록』 등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록에서 옛 글자를 모방했다는 ‘자방고전’이란 문구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해례본의 설명대로 훈민정음이 발음기관과 천지인을 상형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옛 글자를 모방해서 만든 것인지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최만리의 상소문에 나오는 ‘상형이자방고전’에서 ‘상형’은 모양을 본뜬 것이고, ‘자방고전’은 옛 글자를 모방했다는 뜻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상형’과 ‘자방고전’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방고전’에 대해서는 ‘고전(古篆)’이 바로 전서(篆書)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전서와 달리 각이 져 있는 훈민정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자방고전’의 옛 글자가 가림토임을 논한 바 있다. 따라서, 자방고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상형’의 구체적인 대상과 과정을 검토하였다. 天地人을 상형했다는 중성 기본자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또 중성 기본자와 동일한 가림토의 11글자는 무엇을 상형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훈민정음은 천지 자연의 이치인 음양오행과 하도를 바탕으로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든 초성 기본자 다섯 글자를 오행과 오음에 배치하고 하도의 상생 관계로 설명하였다. 중성 기본자 세 글자는 하늘과 땅, 사람을 상형하여 서로 음양으로 교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가 만들어 졌다.

이렇게 역 철학을 바탕으로 제작된 훈민정음은 천지인과 음양오행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상형했는데 그 모양은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

천원지방의 상징 기호(○□△)와 중성 기본자(· — |)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성 기본자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본 따서 만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자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인문성상도(因文成象圖)」에는 ‘天·地·水·火’자가 ‘☰·☷·☵·☲’괘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天地人을 상형한 중성 기본자는 천지 자연의 이치를 드러내는 하도의 흑점과 팔괘의 양괘를 본따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중성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 자방고전의 옛 글자 가림토의 11자 역시 당시에 전해지던 하도와 팔괘의 모양을 상형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원전)

- 『훈민정음해례』

### (단행본)

- 김슬옹, 2010,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속성」,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138쪽.
- 안경전 역주, 2012, 『환단고기』, 상생출판.
- 한동석, 2001,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 (논문)

- 김만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 『철학사상』 45, 2012.
- 박병천, 「훈민정음의 한글문자 생성 구조와 서체적 응용」, 『나라사랑』 127, 2018.
- 박형우, 「훈민정음(訓民正音)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倣古篆)"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53, 2008.
- 박덕규, 「훈민정음과 가림토의 연관성 고찰」, 『세계환단학회지』 7(2), 2020.
- 정화경, 「鄭樵의 研究」. Diss.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
- 홍윤표, 「훈민정음의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國語學)』 46, 2005.

## 「가림토와 훈민정음 자형의 기원에 대한 고찰」의 논평문

박찬화(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덕규 선생님의 논문은 훈민정음과 가림토 문자 체계의 철학적, 역사적 연관성을 탐구한 점에서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단군세기의 가림토 문자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철학과 자형에 반영되었음을 주장하셨고, 이를 통해 단군조선의 철학이 세종대왕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매우 신선하고 소중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논문에서 훈민정음과 가림토 문자의 관계를 잘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번 논문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문은 그 인식을 확장하여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자형에 주목하여 특히 중성 모음 기본자(· — |)가 단군조선 시대에도 전해지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팔괘의 점과 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天地人을 상형했다는 중성 기본자(· — |)와 중성 기본자에서 파생된 가림토의 11글자는 무엇을 상형했는지에 대해서 박덕규 선생은 그 모양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원지방의 상징 기호(○□△)와 중성 기본자(· — |)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성 기본자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본 따서 만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자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인문성상도(因文成象圖)」에는 ‘天·地·水·火’자가 ‘☰·☷·☵·☲’ 궤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天地人을 상형한 중성 기본자는 천지 자연의 이치를 드러내는 하도의 흑점과 팔괘의 양괘를 본따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중성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 자방고전의 옛 글자 가림토의 11자 역시 당시에 전해지던 하도와 팔괘의 모양을 상형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핵심은 중성 모음 기본자(· — |)가 단군조선 시대에도 전해지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팔괘의 점과 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근원적으로 · — | 라는 부호 중에서 아래아(·) 는 하도와 낙서에서 표시되는 점(·)에서 나왔고 — | 라는 선은 팔괘를 그리는 선에서 나왔는데 가림토가 나올 시점에도 복희팔괘가 있었으니 이 팔괘에서 나왔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주장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하도와 낙서가 훈민정음의 원리 속에 활용되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와 낙서 그림에 실제

그러지는 점·들에 착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 | 라는 자형도 어디서 가져왔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일직선의 라인을 3개씩 반듯하게 나열하는 팔괘의 모양에서 가져왔을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팔괘의 경우 결국 8방위로 정리되었을 때 정남북의 위치에 놓은 선은 가로로 놓여지고 정 동서 방위의 경우에는 세로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 선을 가져온다면 거기에서 가져왔을거라고 연대적으로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는 것은 그만큼 가림토문과 훈민정음을 연구를 깊이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다만 당시에 과연 가림토 문자를 만들어낸 3세 가림 단군 시절, 가림 단군과 삼랑 을보름 등 가림토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중성 기본자(· — |)의 기원

· — | 는 기본적인 모양의 점과 선입니다. 논문에서는 하도와 낙서의 점과 팔괘의 선에서 유래했다고 보았지만,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점과 선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과도한 의미 부여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술적 표현에서 비롯된 모양일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성 기본자가 원십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십자는 동서양에서 천지인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가로와 세로 선의 교차점에서 점(·)이 형성됩니다. 가로선과 세로선과 점이 모두 있는 원형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흥미로운 비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언급하신 대로 유심히 살펴보면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배열 차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중성 모음을 천(·), 지(—), 인(|) 순으로 배열했지만, 가림토는 · | —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파생된 중성 모음들에도 배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림토의 순서 배열에도 뜻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철학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가림토에서 | 를 땅, — 을 인간으로 보았을 가능성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2. 천부경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인의 철학이 삼신일체와 삼신오제 사상, 나아가 천부경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문에서 언급하셨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가림토 문자 체계와 천부경의 철학적 연결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욱 풍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박 선생님의 논문은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철학적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도와 낙서, 팔괘와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중성 기본자의 단순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림토 문자 배열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깊이와 설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와 가림토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기대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 고대 문자의 기원을 탐구하시는 박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환단고기』는 어떤 사서인가?

전재우\*

- I. 들어가기
- II. 『환단고기』 출간과정
  - 1. 이기와 계연수의 만남
  - 2. 『환단고기』 출간
  - 3. 『환단고기』 전수 내력
- III. 『환단고기』 판본 분석
  - 1. 1949년 『환단고기』 정서
  - 2. 1979년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
  - 3. 1979년 『환단고기』 배달의숙본
  - 4. 『환단고기』 번역
  - 5. 『환단고기』 배달의숙본 출간 현황
- IV. 맺음말

## I. 들어가기

『환단고기』는 독립운동가인 계연수桂延壽(1864~1920)가 스승인 이기李沂(1848~1909)의 감수를 거쳐 1911년에 만주 관전현에서 출간한 것으로 총 30부가 목판인쇄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탄압으로 초간본은 대부분 사라졌고, 1948년에 월남한 제자 이유립에 의하여 1부가 전수되어 내려오다가 1976년에 이마저도 분실되는 비운을 겪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는 월남한 이듬해 1949년에 그를 따르던 제자 오형기를 시켜 『환단고기』 원본을 정서케 함으로써 필사본을 남겨둘 수 있었다. 이 필사본이 오늘날 『환단고기』가 대중화되는 씨앗의 역할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단사학계에서는 초간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11년에 『환단고기』가 처음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환단고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1911년 『환단고기』 초판이 간행된 이후 1979년에 오형기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광오이해사에서 『환단고기』가 정식 인쇄본으로 발행되었으며, 배달의숙본 『환단고기』도 같은 해인 1979년에 정식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1982년에 가지마 노부루가 일본어판 『환단고기』를 출간하자 국내에서는 1985년에 김은수가 이를 번역한 『환단고기』를 가나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 이듬

\*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해 임승국의 『환단고기』가 정신세계사에서 발행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환단고기』에 대한 연구논문도 많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법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향을 띠었으며, 『환단고기』의 출간경위와 여러 판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환단고기』의 출간 경위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그에 따른 편견과 선입견이 더해져 『환단고기』에 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에 따라 온갖 잘못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단고기』의 초간본과 필사본, 또 필사본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출간된 여러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통하여 위서론에 대처하고 아울러 『환단고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고자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네 부분(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 “『환단고기』의 출간과정”에서는 먼저 『환단고기』의 편저자인 계연수와 스승인 이기의 인연을 살펴보고,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으로 ‘홍익사서’를 명명한 의의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환단고기』 출간에 대해서 조명한다. 여기서는 계연수의 실존성과 1911년 『환단고기』 출간 이전에 먼저 단행본들이 출간되었음을 살펴보고, 또한 계연수의 『환단고기』 출간이 스승의 유촉으로 이뤄졌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911년 『환단고기』가 출간된 이래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III장은 ‘『환단고기』 판본 분석’으로 1979년 배달의숙본 『환단고기』가 출간된 이후 발생한 광오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의 구분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오형기라는 인물과 그가 정서한 『환단고기』 필사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광오이해사본 『환단고기』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환단고기』의 발간을 주도한 조병윤과 『환단고기』를 최고급 선장본과 보급판으로 만들어준 광오이해사 박기엽 사장의 업적을 살펴본다. 세번째로 배달의숙본 『환단고기』에 대한 고찰이다. 배달의숙본이 『환단고기』 정본임을 살펴보고, 특히 광오이해사본의 오류를 수정해서 배달의숙본으로 출간했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조명한다. 『환단고기』 번역 부분에서는 광오이해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발간된 가지마 노보루, 김은수, 임승국 등의 『환단고기』 번역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을 저본으로 한 연구 번역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IV장은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환단고기』가 한민족의 시원인 환국·배달·조선의 삼성조 역사를 말해주는 역사서임을 조명해보고, 『환단고기』에 대한 바른 시각을 논하였다.

## II. 『환단고기』 출간 과정

### 1. 이기와 계연수와의 만남

계연수桂延壽(1864~1920) 선생이 해학海鶴 이기李沂(1848~1909)를 스승으로 모신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유립李裕崧<sup>1)</sup>(1907~1986)은 「아직 표상없는 雲樵 桂延壽」에서 “雲樵先生은 이미 「光武變制」의 初年부터 海鶴門下에 출입하면서”라고 하여 계연수 선생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선포한 1897년인 대한제국 원년부터 이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때부터 이기 선생의 『환단고기』 감수가 시작되었다고 『환단고기정해』에서 밝히고 있다.

광무초년으로부터 태백교인 계연수를 비로소 제자로 받아들여 자못 국교와 국사에 뜻이 있었지만 겨를이 없었더니, 이때에 이르러 『환단고기』를 감수하였고[自光武初年으로 始得太白教人桂延壽하야 頗有意於國教國史오 而未遑이러니 至是하야 監修桓檀古記하고]<sup>2)</sup>

대한제국 광무원년(1897)부터 계연수 선생이 이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가 또 있다. 스승으로부터 전수 받은 행촌 이암의 『태백진훈』에 계연수 선생이 「문정공행촌이선생유사文貞公杏村李先生遺事」와 「발문」을 추가하였다. 『태백진훈』 「발문」에서는 계연수 선생은 ‘내가 해학 이기선생을 모셨다(余從海鶴李沂先生)’라고 기록하였고, 「문정공행촌이선생유사」의 글은 정유(1897)년 10월(歲丁酉十月日 後學 宣川桂延壽 謹記)에 쓴 것으로 되어있다.

이유립은 「아직 표상없는 雲樵 桂延壽」에서 계연수 선생의 호인 ‘雲樵’는 천마산의 옛 이름인 백운산에서 취했다고 말했다.

雲樵의 雲은 白雲山の 雲자를 뜻한 것이다.<sup>3)</sup>

백운산은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서 을파소가 참전계경을 얻은 장소이다. 이유립은 『환단고기정해桓檀古記正解』에서 이 백운산에 “지금의 천마산이니 삭주, 의주, 구성의 3군이 교차하는 경계인 여자산呂字山の 옆에 있다[今天摩山이니 朔州義州龜城三郡交叉界呂字山之側]”라고 주석을 붙였다.<sup>4)</sup> 또한 광무18년(1914) 계연수 선생이 12인의 동지들과 제천혈맹을 한 곳이 천마산 성인당聖人堂이다.

### 1) ‘홍익사서弘益四書’

광무1년(1897) 계연수 선생은 해학을 스승으로 모셨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홍익사서’라고 이름 짓는 것이었다. ‘홍익사서’에 대하여 이유립은 『거발한 문화사상사』<sup>2)</sup>와 『대배달민족사』 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이유립은 계연수의 제자인 이관집의 4남이다. 계연수를 스승으로 모신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이 역사에 눈을 떴다. 평생을 『환단고기』 연구에 바쳤다. 저서로는 한암당이유립사학총서(天, 仁)(1983), 광개토성릉비문역주(1973), 세계문명동원론(1973), 거발한문화사상사 I-II(1976) 등이 있으며, 유작으로 대배달민족사(1권~5권)(1987)가 있다.

2) 『桓檀古記正解』, 李裕崧, 『대배달민족사』 1권, 385쪽.

3) 李裕崧. 『대배달민족사』 5권(서울: 고려가, 1987), 40쪽.

4) 李裕崧. 『대배달민족사』 1권(서울: 고려가, 1987), 501쪽.

이 『태백진훈』은 본시 태백일사 부록의 속에 들어 있던 것을 해학, 운초 두 분 선사先師께서 따로 빼내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과 함께 홍익사서라 하였던 것이며 광무 2년(1898)에 발문跋文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sup>5)</sup>

‘홍익사서’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태백진훈』을 가리킨다. 이것은 계연수 선생이 스승과 함께 『태백일사』의 부록에 있던 『태백진훈』, 『태백일사』 속에 있던 『천부경』, 『삼일신고』를 발취하여 『참전계경』과 함께 ‘홍익사서’라 명명한 것이다. 이 ‘홍익사서’의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계연수 선생은 『환단고기』 「범례」에서 낭가郎家의 『대학』과 『중용』이라고도 하였다.

또 『천부경』과 『삼일신고』 두 글의 전문全文이 모두 여기에 실려 있으니, 이는 참으로 낭가의 『대학』·『중용』이라 하겠다[且其天符經·三一神誥의 兩書全文이 俱在篇中하니 實爲郎家之大學中庸也라].<sup>6)</sup>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오경五經<sup>7)</sup>의 하나인 『예기禮記』 속에 있었던 글로, 『논어』, 『맹자』와 더불어 사서四書로 불리며, 송대 이후 유학자들은 이 사서를 기본으로 삼아서 삼경(『詩經』, 『書經』, 『易經』)을 보게 되었다. 계연수 선생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낭가의 으뜸 되는 경전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유립의 저서를 통해서 ‘홍익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천부경』

이유립은 「천부경 해설」에서 『천부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으로 천부경은 삼일신고, 참전계경, 태백진훈과 함께 배달 민족의 기본철학이며 주체사상이며 원리경전임에는 틀림없다.”<sup>8)</sup>

### (2) 『삼일신고』

이유립은 「삼일신고 해설」에서 『삼일신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5) 李裕崙, 『太白眞訓의 解說』, 『커발한문화사상사』 2권(대전: 단단학회, 1976), 284쪽/李裕崙, 『대배달민족사』 3권, 233쪽.

6)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6~7쪽.

7) 오경五經은 유가의 경전으로 『역경易經』, 『서경書經』, 『시경詩經』, 『예기禮記』, 『춘추春秋』를 말한다. 당나라 때 영호덕 분승孤德榮이 편찬한 『주서周書』 ‘고려高麗’ 조를 보면 “書籍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라고 하여 고구려시기에 오경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天符經 解說』, 李裕崙, 『대배달민족사』 3권, 31쪽.

“삼일신고는 天帝 桓國으로부터 구전해 온 성서이다. 桓雄天王께서 聖地 太白山으로 내려 오심으로부터 비로소 神誌 赫德으로 하여금 시습 그림 글자[鹿圖文 例如神市古刻]를 만들어 적게 하여 널리 인간 세상에 퍼낸 것이다.”<sup>9)</sup>

### (3) 『참전계경』

이유립은 「참전계경 해설」에서 『참전계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1782년 전, 즉 신시개천 4088년(辛未·西曆 一九一年)에 고구려 국상이 된 乙巴素선생이 일찍 白雲山[지금의 朔州 義州 龜城 三郡과의 交叉된 곳에 있는 天摩山]에 들어가 삼신하느님께 제 올리면서 서원誓願하다가 우연히 하늘글[天書]을 얻었다 전하니 이것이 오늘의 「참전계경」이다.<sup>10)</sup>

### (4) 『태백진훈』

『태백진훈』은 『단군세기』와 더불어 행촌 이암의 저서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유립은 『태백진훈』을 ‘행촌삼서杏村三書’의 하나라 하였다.

태백진훈은 고려 말기 행촌 이암선생의 지으신 것이며 단군세기, 농상집요農桑輯要和 함께 행촌삼서杏村三書라 부른다.<sup>11)</sup>

『환단고기』에서도 『태백진훈』을 언급하고 있다. 『태백일사』 「고려국본기」에는 “행촌 시중 侍中이 지은 저서가 3종”이 있다고 하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행촌 시중이 지은 저서가 3종이 있다. 그가 지은 『단군세기』는 초기 국가의 체제를 밝혔고, 또 『태백진훈』은 환단桓檀시대 이래로 전수되어 온 도학과 심법을 계승하였고, 『농상집요』는 세상을 다스리는 실무의 학문을 담은 것이다(杏村侍中이 有著書三種하니 其著檀君世紀 하여 以明原始國家之體統하고 又著太白眞訓하여 紹述桓檀相傳之道學心法하고 農桑輯要 是 乃經世實務之學也라)<sup>12)</sup>

이유립은 「太白眞訓의 解說」에서 『태백진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9) 李裕堧, 「三一神話 解說」, 『키발한문화사상사』 1권, 253~254쪽;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3권, 63쪽.

10) 李裕堧, 「參侏戒經 解說」, 『키발한문화사상사』 1권, 253~254쪽;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3권, 121쪽.

11) 李裕堧, 「太白眞訓의 解說」, 『키발한문화사상사』 2권, 284쪽;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3권, 233쪽.

12) 안경진 역주, 『환단고기』, 732~735쪽.

태백진훈은 상·중·하의 세편으로 되어 있는데 상편에는 환웅 천황께서 처음으로 신시의 하늘 트심과 함께 太白山(태백산)을 중심으로 신인강산(神人降山：天帝居山)의 주체의 식과 환국의 「널리 인간을 보람 있게 하는(弘益人間主義) 커발한 문화 운동의 근본 원리를 신도(神道) 인도(人道)로 구분하여 풀이 하였으며, 중편에서는 桓雄(환웅：惟天一神 命我爲王), 高矢(고시：種樹殖產 悉驗而備), 神誌(신지：郎見鹿跡 乃製其字), 熊后(웅후：納之熊后 親迎作配), 치우(蚩尤：大地作主 天下爲宗), 단군왕검(檀君王儉：分統三韓 管境以治), 단군부루(檀君夫妻：交隣有道 教禹治水), 고두막(高豆莫：光紹有國 明昭繼王), 단군고주몽(檀君高朱蒙：爰居卒本 謀始掃漢), 광개평안호태제(廣開平安好太帝：永樂統一 咸載帝功), 그리고 배달 나라의 국가(國歌：於阿樂), 세한(三韓)의 치도유신(治道維新)과 고구려의 군신(三軍神)：乙支文德·淵蓋蘇文(을지문덕·연개소문)들의 공덕을 서술하고 이 밖의 동모산(東隣山), 송악산(松岳山)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으며, 하편에는 지식 경제도덕에 대한 커발한의 근본이념을 밝히는 사도문답(師徒問答)의 글이다.<sup>13)</sup>

이 ‘홍익사서’의 ‘홍익’은 환웅천황께서 신시에 도움을 정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신 ‘홍익 인간’의 의미이다.<sup>14)</sup> 환국에서 배달로 전수된 ‘홍익인간’의 사상은 ‘一神降衷 性通光明’의 의미가 추가되어 단군조선으로 전수 되었다고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서는 말하고 있다.

대저 홍익인간이란 것은 환인천제께서 환웅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삼신(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시어 사람의 성품본성이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 홍익인간이 될 지어다는 것은 신시 배달에서 단군조선으로 전해진 것이다[夫弘益人間者는 天帝之所以授桓雄也오 一神降衷하사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하야 弘益人間者는 神市之所以傳檀君朝鮮也라].<sup>15)</sup>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환인천제로부터 환웅천황에게 전수되어, 더 구체화되어 배달에서 단군조선으로 전해진 ‘一神降衷하사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하야 弘益人間’하는 의미를 볼 수 있다. 이기 선생과 계연수 선생이 명명한 ‘홍익4서’는 환국의 환인천제로부터 배달의 환웅천황에게 전수되어, 다시 배달에서 단군조선으로 전해진 ‘一神降衷하사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하야 弘益人間’하는 4가지 책이라는 의미로 풀이 된다. 이기 선생과 계연수 선생 두 분은 만나서 첫 작업으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태백진훈』이 ‘홍익4서’라고 규정한 것이다. ‘홍익4서’라고 규정한 이기 선생과 계연수 선생은 처음부터 한민족의 뿌리역사인 환국·배달·조선 즉, 국조삼신이신 환인천제·환웅천황·단군왕검으로 이어지는 뿌리역사를 복원

13) 李裕堧, 「太白眞訓의 解說」, 『커발한문화사상사』 2권, 284~285쪽;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3권, 233쪽.

14)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18~19쪽.

15)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502~503쪽.

한다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환단고기』를 발간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환단고기』 출간

### 1) 계연수의 실존성

위서론자들은 계연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실존인물임은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2024년은 계연수 선생 서거 104주년 되는 해이다. 선생은 고종원년인 1864년에 태어나 한평생 민족의 역사복원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을 하다 무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유립은 3·1민족운동 6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아직 표상없는 雲樵 桂延壽」라는 글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추서를 염원하고 있다.

三一民族運動六十周年 紀念행사가 있게됨을 한 계기로 하여 우리 國史와 國學의 정통체계를 올바로 찾아 세우려다가 倭警의 손에 목숨을 잃은 雲樵 桂延壽先生을 추천하는 바이니 독립유공자 표상규례를 추가 적용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sup>16)</sup>

계연수 선생에 대해서는 1969년 성장호가 발행한 『해동인물지』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성장호는 계연수 선생이 해학의 문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계연수. 자는 인경, 호는 운초, 선천宣川에서 대대로 살았다. 이기의 문인으로 백가서百家書를 섭렵하였으며, 무술년(1898)에 『단군세기』, 『태백유사』 등을 간행하였다. 기미년(1919)에는 이상룡의 군정부軍政府<sup>17)</sup> 소속으로 들어가 군사작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며, 경신년(1920)에 만주에서 생을 마쳤다(桂延壽 字仁卿, 號雲樵, 世居宣川, 李沂門人, 涉獵百家書, 戊戌刊行檀君世紀, 太白遺史等書, 己未赴李相龍幕下, 參畫軍政有功, 庚申卒于滿洲)<sup>18)</sup>

이유립은 『환단고기정해』에서 계연수 선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계선생[桂子]의 휘는 인수, 자는 인경, 호는 운초와 일시당 주인이시니 조상은 선천 사람이다. 고종태황제 원년인 갑자년(1864)에 태어나 대대로 선천宣川에서 살았다. 어려서 부모

16)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5권(서울: 고려가, 1987), 35쪽.

17) 1919년 4월 이상룡이 부민단扶民團을 한족회韓族會로 개편하여 산하에 남만주 독립운동의 총본영인 군정부軍政府를 설립하자 계연수와 단학회는 이상룡의 지휘에 소속되어 군정부의 계획에 참여하면서 공을 세웠다. 상해임시정부 소속으로 된 이후 군정부軍政府는 1919년 11월에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8) 成昌鎬, 『海東人物誌』 坤(대전: 回想社, 1969년), 295쪽.

님을 여의었으나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 백가서百家書를 섭렵할 때 한 번 보면 바로 외웠고 말년에 비로소 크게 깨우쳤다. 젊을 때부터 명산 승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도사와 뛰어난 승려를 찾아 더욱 정진 수련에 힘을 다하고 환단 이래 전해 온 우리의 고유한 철학 사상을 탐구하여 일가지견一家之見을 갖추었다[桂子の諱는 延壽요 字는 仁卿 號는 雲樵 又號一始堂主人이시니 其先은 宣川人이라. 高宗太皇帝元年甲子五月二十八日에 生하여 世居宣川이라. 早失父母하고 生有異質하여 涉獵百家書에 一覽輒誦이러니 晚乃大悟라. 自幼時로 遍歷名山勝地하고 歷訪道士·異僧之門하여 尤致力於精進修鍊하고 探求桓檀以來固有哲學思想하여 以備一家之見矣라]19)

계연수 선생은 조실부모하였으나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 모든 사상서를 섭렵하며 한 번 보고 모든 것을 암송하였다. 어려서부터 명산과 승지를 찾아 뛰어난 도사와 승려들에게 배움을 청하며 정진하였고, 환단 이래 비전되어 오던 한민족의 역사와 고유 철학사상을 탐구하여 일가견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계연수 선생이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안함로(安含老, 579~640)의 『삼성기』를 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20)

계연수 선생의 실존을 이유립의 날조로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21) 그러나 20세기 초 계연수 선생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은 『천부경』을 세계에 소개한 전병훈全秉薰(1857~1927)이었다. 전병훈은 1918년 단군교檀君敎 간부였던 윤효정尹孝定(1858~1939)으로부터 『천부경』을 전해 받고, 1년간 연구한 끝에 『천부경』 원문과 주석을 자신의 저서 『정신철학통편』 서두에 실어 출간하였다.22)

『정신철학통편』에는 “이 『천부경』은 작년 정사년(1917)에 동한東韓의 서쪽 영변군 백산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백산에서 약초를 캐던 계연수라는 한 도인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 석벽에서 이 글자를 발견하고 조사照寫했다고 한다(此經至昨年丁巳 始出韓西寧邊郡白山 有一道人桂延壽採藥白山 窮入山根 石壁見得此字 照寫云耳)”라는 기록이 담겨 있다23)

전병훈은 나성군羅城君파 52세손으로, 전만조全冕朝(1871~1942)가 발행한 『전씨총보총록』(1931)에 전병훈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이 책에는 그의 중국인 제자인 윤량尹良, 왕동王桐 등의 글도 수록되어 있다. 윤량은 「전성암부자실행수록全成菴夫子實行隨錄」에서 “문인이 스승

19)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1권(서울: 고려가, 1987), 383쪽. 자세한 사항은 윤창열, 「운초 계연수의 생애, 사상 및 업적」(2020년 세계환단학회 춘계학술자료집) 9쪽 참조바람.

20) 윤창열은 직접적인 계기라 주장하였다. “운초의 집안에서는 안함로가 지은 『三聖紀』가 전해 내려왔다. 이것이 운초가 桓檀의 歷史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리라 사료된다.”(윤창열, 「운초 계연수의 생애, 사상 및 업적」, 2020년 세계환단학회 춘계학술자료집, 23쪽).

21) 장신, 「이유립의 계연수 날조기」, 역사와 현실 115, 383-416, 2020.

22) 전병훈 저, 임채우 역, 『완역 정신철학통편』, 서울: 인월담, 2021, 87~88쪽.

23)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권1, 「동한신성단군천부경 주해서언」, 1920.

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세계 29개국의 150개 대학과 미국, 프랑스, 스위스 삼국의 대통령에게 『정신철학통편』을 배포하였다(門人仰布世界 二十九國 百五十大學 及美法瑞三總統)고 전하였다.

계연수 선생이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주석을 수록한 『정신철학통편』은 1920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에 배포된 바 있으나, 애석하게도 이 해에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계연수 선생이 유명을 달리하였다.

계연수 선생을 중심으로 한 단학회는 활동 무대를 남만주 관전현으로 옮겼다. 1919년 4월 이상룡李相龍(1858~1932)이 부민단扶民團을 한족회韓族會로 개편하며 산하에 남만주 독립운동의 총본영인 군정부軍政府를 설립하자, 계연수 선생과 단학회는 이상룡의 지휘 아래 군정부 계획에 참여하며 공을 세웠다.<sup>24)</sup> 이에 따라 계연수 선생은 조국 독립전쟁에 투신하였다.

국교와 국사를 정립하며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일에 혼신을 기울이면서도 이상룡 선생의 서로 군정서에 합류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있던 계연수 선생은 일본순사감독인 감연극이 보낸 밀정에 의해 1920년 추석날(8월 15일)에 암살당하였다. 양종현(1947~2022)은 『백년의 여정』에서 “雲樵 선생과 남만주의 단학회 본부는 왜경의 무자비한 총칼에 짓밟혔고 운초선생의 육신은 여러 토막으로 잘려져 압록강에 내던져졌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고발하였다.<sup>25)</sup> 이 사건으로 계연수 선생이 수집한 고서 3,000여 권과 초고 10여 종이 함께 불태워져 사라졌다.

배달의숙과 더불어 초고 10여 종이 장서 3천여 권과 함께 불 속으로 사라졌다(倍達義塾과 竝草稿十餘種과 藏書三千餘卷이 盡入火中矣라).<sup>26)</sup>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군은 1920년 8월 15일에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간도지역에 일본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간도지역을 일본군의 통치로 재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신참변’이라 불리는 일본의 간도지역 보복전쟁은 북부 만주지역의 대종교를 비롯한 조선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지만, 남만주 지역의 ‘단학회’에 대한 연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계연수 선생이 피살이 되고, 배달의숙과 3천여 권의 장서들이 불태워진 사건은 『환단고기』와 그동안 계연수 선생이 수집했던 귀중한 사료들이 모두 소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1911년 『환단고기』 출간의 선행작업, 단행본 출간

계연수 선생은 해학 선생의 제자가 되면서 태백진교의 경전을 수집(經典搜訪)하기 시작하였

24) “四月에 就李相龍幕下하야 參劃軍政有功이라”(『환단고기정해』,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1권, 383쪽).

25) 양종현(2009), 百年의 旅程, 대전: 상생출판, 106.

26) 『桓檀古記正解』,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1권, 383쪽.

다. 그 일단을 『환단고기』 「범례」에서 엿볼 수 있다.

『삼성기』는 2종류가 있는데, 안함로의 『삼성기』는 계연수 선생의 집안에 전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다. 『환단고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안함로의 『삼성기』는 한국 → 배달 → 조선 → 북부여 → 고구려로 이어지는 국통맥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이 계연수 선생 집안에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원동중元董仲의 『삼성기』와 행촌杏村 이암李崑(1297~1364)의 『단군세기』는 평안도 태천의 백관묵白寬默(1804~1866) 진사에게서 얻었다고 말한다. 북애거사伏崖居士 범장范樟이 지은 『북부여기』 「상」·「하」는 『단군세기』와 합편해 놓은 것을 삭주朔州 뱃골(梨洞)의 진사 이형식李亨弼의 집에서 얻었고, 일십당一十堂 주인 이택李陌(1455~1528)이 엮은 『태백일사』는 해학海鶴 이기李沂(1848~1909) 선생이 소장해 온 것이라 했다.<sup>27)</sup>

표 1. 「범례」에서 확인되는 『환단고기』에 포함된 사서

저자	서명	소장자	최종
安畚老氏所撰	『삼성기』	계연수 집안	계연수
元董仲氏所撰	『삼성기』	태천의 백관묵 진사	
紅杏村叟所編	『단군세기』		
伏崖居士 范樟所撰	『북부여기』 「상」·「하」 + 『단군세기』 合編	삭주 뱃골의 이형식의 집	
一十堂主人李陌氏所編	『태백일사』	스승 이기	

이유립의 『환단고기정해』에서는 이 과정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계연수 선생은 해학 선생을 스승으로 모심으로써 해학 선생으로부터 선생의 집안에 비장되어 내려오던 이택이 지은 『태백일사』, 이암이 지은 『태백진훈』, 『태백진훈』에 해학 선생이 주석을 단 『태백진경』을 전수 받게 된다. 또한 평안북도 태천 백관묵 진사 서당을 탐방하여 원동중의 『삼성기』와 흥행촌수 이암의 『단군세기』를 얻었으며, 평안북도 삭주 이형식 진사 집안을 탐방하여 범장 북애가 지은 『천리경穿理鏡』 등의 책을 얻었으며, 평안북도 정주 소호리 사람 이택을 따르면서 을파소의 『참전계경參佺戒經』을 얻었다.<sup>28)</sup>

27)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6~7쪽.

檀君世紀는 紅杏村叟所編이니 乃杏村先生文貞公所傳也라 此書도 亦得於白進士하니

28) “詣泰川進士白寬默書堂하야 得元董仲氏三聖記와 竝紅杏村叟檀君世紀하고 詣朔州進士李亨弼家하야 得范伏崖所撰穿理鏡等書하고 師事海鶴李先生하야 得太白眞訓·太白逸史하고 又從定州篠湖李沔氏하야 得乙巴素著參佺戒經하니 皆古書寶典也라.”(『桓檀古記正解』, 李裕崧, 『대매달민족사』 1권, 383쪽.)

지금까지는 대부분 『환단고기』가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한 권으로 묶어서 1911년에 처음 출간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계연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출간하기에 앞서, 선행 작업으로 스승 이기로부터 전수받은 『태백일사』를 비롯하여 이들 고서들을 단행본으로 먼저 출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즉 광무 2년인 1898년에는 『단군세기』와 『태백진훈』을, 이듬해에는 『참전계경』, 『태백일사』, 『천부경요해』 등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sup>29)</sup>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스승 이기의 감수가 있었으며, 15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1911년에 와서야 비로소 『환단고기』가 간행된 것이다.

표 2. 『환단고기정해』에서 확인되는 고서 수집현황

저자	서명	소장자	최종
元董仲氏	『삼성기』	태천의 진사 백관목 서당	계연수
紅杏村叟	『단군세기』		
伏崖居士 范樟所撰	『천리경』 등의 책	삭주 뱃골의 진사 이형식의 집	
一十堂主人李陌氏所編	『태백일사』, 『태백진훈』	스승 이기	
을파소	『참전계경』	정주 소호 이택씨	

### 3) 스승의 유촉遺囑과 『환단고기』 편찬

계연수 선생은 1897년 이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환단고기』를 간행하게 될 때까지 15년의 시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환단고기』가 1911년에 간행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스승 이기의 감수가 있었다고 『환단고기』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

『환단고기』는 모두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거쳤고, 내가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옮겨 적었다[桓檀古記는 悉經海鶴李先生之監修오 而且余精勤繕寫하고]. (『환단고기』 「범례」)<sup>30)</sup>

29) “光武二년에 刊行太白眞訓·檀君世紀하고 明年己亥에 刊行參侁戒經·太白逸史·天符經要解하고”(『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383쪽.)

30) 안경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6~7쪽.

표 3. 『환단고기정해』에서 확인되는 『환단고기』 초판간행 이전의 과정

년도	『환단고기』 출간 내용
광무1년(1897)	계연수, 이기를 스승으로 모심. 이기는 비로소 『환단고기』 감수가 시작. 이기와 계연수, ‘홍익사서弘益四書’라 명명. :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태백진훈』 이기, 계연수에게 『태백일사』, 『태백진훈』 전수. 계연수, 『태백진훈』에 〈文貞公杏村李先生遺事〉추가(10월). 계연수, 평안북도 태천 백관목진사 서당을 탐방, 원동종의 『삼성기』와 흥행촌수의 『단군세기』 수집. 계연수, 평안북도 삭주 이형식진사 집안을 탐방, 범장 복애가 지은 『천리경穿理鏡』 등 수집. 계연수, 평안북도 정주 소호리 이택을 따르면서 을파소의 『참전계경』 수집.
광무2년(1898)	계연수, 『태백진훈』 「발문」 작성(3월 16일) 계연수, 『태백진훈』 『단군세기』간행
광무3년(1899)	계연수, 『천부경요해』 「발문」(10월 3일) 계연수, 『참전계경』, 『태백일사』, 『천부경요해』 간행

이기 선생의 『환단고기』 감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유립은 계연수 선생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광무1년(1897년)에 비로소 이기가 『환단고기』 감수를 시작하였다고 했다.<sup>31)</sup> 또 최근 새롭게 등장한 『광명장光明藏』을 보면 스승의 유촉을 받아 『환단고기』 편찬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32)</sup>

나는 해학 선사의 유촉을 받고나서부터 오로지 고전을 모아서 편집蒐輯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으며[余自受海鶴先師之遺囑으로 專以蒐輯古典爲務하며].<sup>33)</sup>

계연수 선생이 스승의 유촉을 받아 『환단고기』를 편찬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수집蒐集’과 ‘수집蒐輯’은 다른 것이다. ‘수집蒐集’은 여러 가지를 모은다는 의미이고, ‘수집蒐輯’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책을 편집한다는 의미이다. ‘수집고전蒐輯古典’하라는 스승 이기의 유촉遺囑, 즉 유명遺命에 따라 날권의 고전을 ‘합위일서合爲一書’(『환단고기』 「범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모아 두었던 고전을 ‘하나로 합본하여 『환단고기』로 출간하라’는 스승의 유명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던 것이다.

31) 『桓檀古記正解』, 李裕崧, 『대배달민족사』 1권, 385쪽.

32) 전재우, 「광명장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중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4.

33) 계연수, 「前文」 중에서(계연수, 『光明藏』, 1917).

계연수 선생에게 유촉을 한 시기는 1909년 7월 임종 때로 보인다.

임종 시에 문인 계연수의 손을 잡으시고 삼신일체의 도는 나라가 망했다고 그만 둘(廢) 수 없고, 나라는 반드시 삼신일체의 도가 있어야 흥하나니 마땅히 그대는 힘쓰라[臨終에 執門人 桂延壽手曰道不可以國亡而廢오 國必以有道而興하나니 惟君勉哉라 하더니].<sup>34)</sup>

삼신일체의 도는 나라가 망했다고(경술국치) 그만 둘(廢) 수 없고, 나라는 반드시 삼신일체의 도가 있어야 흥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고전을 모아 편집하여 『환단고기』를 출간하는 데 힘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도道는 일반적인 도가 아니라 ‘삼신일체의 도’이다. 『태백일사』 「신신본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 다른 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라를 세워 세상을 다스리는 큰 근본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판이하게 달라(중략) 이에 천하만방의 사람 중에 신령한 다스림과 거룩한 교화를 흠모하는 자는 반드시 삼신일체상제님을 숭배하였으므로[立國經世之大本이 自與人國으로 迥異하야 (중략) 天下萬邦之人이 有慕於神理聖化者는 必推崇三神하야]<sup>35)</sup>

『환단고기』는 삼신일체의 도를 중심으로 기술한 사서이다. 환웅천황께서 국가조직을 갖추고, 책력을 지어 1년을 삼은 것조차 삼신일체상제님께서 전하신 법도라 하였으며<sup>36)</sup>, 치우천황께서 현원을 토벌하게 된 이유 또한 현원이 삼신일체의 근본 이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기 선생이 작성한 단학회 3대 강령<sup>37)</sup> 중에서 첫 번째가 ‘제천보본祭天報本’ 즉, 삼신일체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며 근본에 보은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환단고기』의 핵심사상인 제천사상을 잘 드러내는 문구이다. 실제로 단학회가 결성된 기유(1909)년에 마니산에서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와 갑인(1914)년 천마산에서 제천혈맹을 거행할 때 모두 삼신일체상제님을 주벽으로 모시고 국조삼신을 함께 배향했던 것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34) 『檀學會略史』④, 《커발한》 17호(대전: 단단학회, 1970년 3월), 6면. 이어서 이유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 커발한의 도는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있으면 흥하는 것이니, 이 커발한의 역사가 곧 국가요, 민족이요, 정신이요, 행동이요, 생활인 것이다.”(『檀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385쪽.)

35)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388~389쪽.

36)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436~437쪽. “昔者에 桓雄天王이 思天下之大는 非一人이 所能理化라 하시고 將風伯·雨師·雲師하사 而主穀·主命·主刑·主病·主善惡하시고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시며 作曆하사 以三百六十五日[五時四十八分四十六秒]로 爲一年也하시니 此乃三神一體上尊之遺法也니라.”

37) 『檀學會略史』, 《커발한》 14호(대전: 단단학회, 1968년 9월), 4면.

- 一, 祭天報本(三神님께 제사하여 근본을 갚는다.)
- 二, 敬祖興邦(조상을 공경하여 나라를 일으킨다.)
- 三, 弘道益衆(大道를 흥포하여 무리를 유익하게 한다.)

표 4. 『환단고기』 출간 약사

년도	『환단고기』 출간 약사
광무1년(1897)	계연수, 이기를 스승으로 모심. 이기는 비로소 『환단고기』 감수가 시작.
광무2년(1898)	『태백진훈』 『단군세기』 간행
광무3년(1899)	『참전계경』 『태백일사』 『천부경요해』 간행
광무13년(1909)	이기, 단학회 강령 3장 지음(1월 1일). 단학회 결성(3월 16일). 스승의 유촉(7월 경)으로 『환단고기』 편찬작업 진행. (道不可以國亡而廢오 國必以有道而興하나니 惟君勉哉라)
광무15년(1911)	묘향산 단굴암에서 범례 완성(5월 5일)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의 보조로 관전현성리寬甸縣城裡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 30부 출판.

앞서 살펴본 “해학 선생의 유촉을 받고 나서부터 오로지 고전을 모아서 편집蒐輯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는 글에서 계연수 선생의 학문에 대한 해학 선생의 평가가 대단히 높았음을 보여 준다.<sup>38)</sup> 계연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발간할 정도의 역량이 충분하였기에 유촉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계연수 선생은 1911년 5월 5일 묘향산 단굴암에서 『환단고기』 「범례」를 완성한다. 1897년 해학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해학 선생의 『환단고기』 감수가 시작된 이래 15년의 긴 시간을 역사광복에 바친 결과 비로소 1911년에 안함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이맥의 『태백일사』를 합본하여 홍범도(1868~1943) 장군과 오동진(1889~1944) 장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단군조선의 진한 땅인 만주 관전현寬甸縣에서 책 이름을 『환단고기』로 하여 간행하였다.<sup>39)</sup>

38) 계연수 선생은 이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1898년에 『단군세기』와 『태백진훈』을 간행하였으며, 1899년에는 『참전계경』, 『태백일사』, 『천부경요해』를 간행하였다. 이기 선생 임종이후 1911년에 『환단고기』를 간행하였으며, 1912년에는 『광개토성릉비문정실』을 지었다. 1917년에는 『천부경도해』, 『다물구음』, 『광명장』, 『계연수기서』 등을 지었다. 1919년 3월 16일에는 「단학회보」를 간행하였는데 8호까지 발행되었다.

39) “又因洪範圖·吳東振兩友之出金하여 付諸剞劂하니”(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3, 6~7쪽.), “十五年辛亥五月에 刊行桓檀古記于前辰韓寬甸縣城裡하고”(『桓檀古記正解』, 李裕崧, 『대배달민족사』 1권, 383쪽.)

### 3. 『환단고기』 전수 내력

계연수 선생에 의해 1911년에 간행된 『환단고기』 초간본 30부는 이후 단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유립의 『대배달민족사』를 보면 ‘白亨奎氏所藏本’, ‘白亨奎本’, ‘白亨奎所藏寫本’, ‘全鳳天所藏本’, ‘全鳳天家藏等寫本’, ‘全鳳天寫本’, ‘全鳳天本寫本’이라는 단어들 등장한다. 이는 이유립이 3가지 이상의 『환단고기』 판본을 보았다는 것으로 『환단고기』 전수과정의 중요한 단서이다. 또 『환단고기』는 이유립이 조작한 위서라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만약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조작했다면 이유립은 해당하는 문구를 스스로 수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환단고기』는 이유립이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차후의 연구로 미룬다.

白舟白亨奎氏所藏本에 又稱佺戒四字之上에 有皂衣二字하니 僞是라. 40)

白舟白亨奎本에 四海下에 有民하다. 41)

原本에 本無朝鮮大臣四字로대 而依白亨奎所藏寫本하야 今增之라. 42)

默居全鳳天所藏本에 兵下有議하니 乃曰議滅右渠라. 43)

全鳳天家藏等寫本에 曰五時三十八分三十六抄라. 44)

全鳳天本에 法作意라. 45)

全鳳天寫本에 家作署라. 46)

全鳳天寫本에 市는 作平이라 47)

全鳳天寫本에 基上에 有又一字하고 其下에 有盧龍山三字라. 48)

全鳳天寫本曰上에 有注一字 49)

40)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412쪽.

41)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421쪽.

42)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443쪽.

43)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393쪽.

44)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478쪽.

45)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478쪽.

46)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510쪽.

47)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514쪽.

48)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515쪽.

49) 『桓檀古記正解』, 李裕堦, 『대배달민족사』 1권, 515쪽.

단군세기檀君世紀

己亥元年(神市開天一七二六年)五月에 帝 召三郎(官名)乙普勒하야 問  
 神王倥佺之道한대 普勒이 交拇加右手하야 行三六六禮하고 而進  
 言하야 曰 神者能引出萬物하야 各全其性하나니 神之所妙를  
 民皆依恃也며 王者能德義理世하야 各安其命하나니 王之所  
 宜을 民皆承服也며 倥者國之所選也며 佺者民之所舉也니  
 皆七日爲回하야 就三神執盟하야 三忽爲佺하고 九桓爲佺하니  
 蓋其道也 欲爲父者는 斯父矣오 欲爲君者는 斯君矣오 欲爲師

백주白舟 백형규씨소장본白亨奎氏所藏本

하니 一畝田尺으로 一萬尺이爲 一結이라. (一畝田一結이準三十八畝  
 이니 支那의 唐代 一頃이며 一頃은 日本의 三千六百坪이다.)  
 高麗 文宗 仁孝 大王 二十三年에 定畝田步數及田稅하니 其步法이 六寸이  
 爲 一分하고 十分이爲 一尺하고 六尺이爲 一步라 田一結이 方三十三步  
 二結이 方四十七步, 三結이 方五十七步三分, 四結이 方六十六步, 五  
 結이 方七十三步八分, 六結이 方八十七步八分, 七結이 方九十七步四分  
 八結이 方九十九步七分, 九結이 方九十九步, 十結이 方一百四步三分이  
 다. 其稅法이 以十負로 出米七合五勺하니 積至一結米는 七升五合이  
 오 三十結米는 一石이다. 朝鮮 高宗 太宗 光武 八年 一十三道田結이  
 總計가 九十九萬二千四百四結四十八負五束也라.  
 七 田圃 神市本紀에云, 神市之世에 有七回祭神之曆하니 一回日에 祭天  
 神하시고 二回日에 祭月神하시고 三回日에 祭水神하시고 四回日에 祭火  
 神하시고 五回日에 祭木神하시고 六回日에 祭金神하시고 七回日에 祭土  
 神하시고 蓋造曆이 始於此라. 今現行七曜曆法이 亦其遺意也니 自與七  
 政曆으로 相類也라.  
 八 田圃 白舟白亨奎氏所藏本에 又稱倥戒四字之上에 有皂衣二字하니 恐  
 是라.

三世檀君嘉勒 在位四十五年

이세단군부루二世檀君扶婁 재위오십팔년 在位五十八年

그림 1. 백주白舟 백형규씨소장본白亨奎氏所藏本

삼성기전三聖紀全 상上

삼 田圃 本春正月이나 今依北夫餘紀下曰 癸亥二年冬十月에 帝 崩하고  
 高朱蒙이 以遺命入承大統之文하야 改之라.  
 삼 田圃 太白逸史에 高鄒牟 爲檀君解慕漱之玄孫이오 沃沮侯弗離支之  
 子니 此與聖陵碑文으로 俱云 天帝之子요 三國遺事王曆曰 檀君之子라하  
 니 蓋高鄒牟聖帝 得國後에 追尊其父曰 天帝曰 檀君歟.  
 삼 田圃 倍達古語에 以復舊土로 謂多勿也라. 太白眞訓에 曰 謀始掃漢이  
 라. 又曰 念掃漢寇라하고 奈倥戒經曰 斥逐寇掠하야 完我舊疆이라하니  
 蓋七人同德 多勿與邦之義 由來亦古矣라.

묵거默居 전봉천소장본全鳳天所藏本

三 田圃 稱國東明은 當作仍稱北夫餘라. 據北夫餘紀下則 癸酉元년에 即  
 位於卒本하고 自號東明이오. 乙未二十三年에 北夫餘 舉城邑 降하  
 니 仍稱北夫餘라하니 此乃 正傳이라. 不可不從也니라. 梁書에 曰 高  
 句麗者 出自東明이라하고 聖陵碑文에 曰 維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  
 自北夫餘라하고 高句麗賦에 曰 東明이 啓其赫業하고 朱蒙이  
 承其餘波가 卽此也라.  
 三 田圃 新羅는 今北間島 一域이니 土門江以北 先春嶺以南 二千里之地  
 也라.  
 三 田圃 龍建하야 治中辰韓事하고 左將秦玩하야 治中弁韓事하니 是謂中三韓聯  
 盟國也라. 時則 開天三七〇五年也라.  
 三 田圃 番朝鮮王準이 戰敗而國亡하니 三韓管境制 遂崩壞하야 漢水以  
 南은 中三韓聯盟國이 立하고 漢水 薩水(州南河)之間에 崔氏樂浪國이  
 立하고 昌黎 天津之間에 衛滿僞政이 始起하니 解氏夫餘之地는 益自縮  
 小하야 乃爲 北夫餘也라. 自此로 我與非我之戰이 連年不解也러라.  
 三 田圃 默居全鳳天所藏本에 兵下有議하니 乃曰 議滅右渠라. 此說이 甚  
 好하니 史記衛虜傳에 有曰 且與朝鮮으로 共滅漢軍이라하고 曰 漢遣之  
 使와 與將 山遂僕屍는 皆敗軍而被罪하고 更不遣他將이라하니 於是乎  
 的은 使人殺僞王右渠者 我尼谿相參也요 告諭其民하야 殺僞大臣成己  
 者 亦朝鮮人最也라. 徹이 初議滅右渠나 而竟不能滅右渠也 亦明耳  
 也라.

사세단군고우루四世檀君高于婁 (일운해우루 一云解于婁) 재위삼십사년 在位三十四年

그림 2. 묵거默居 전봉천소장본全鳳天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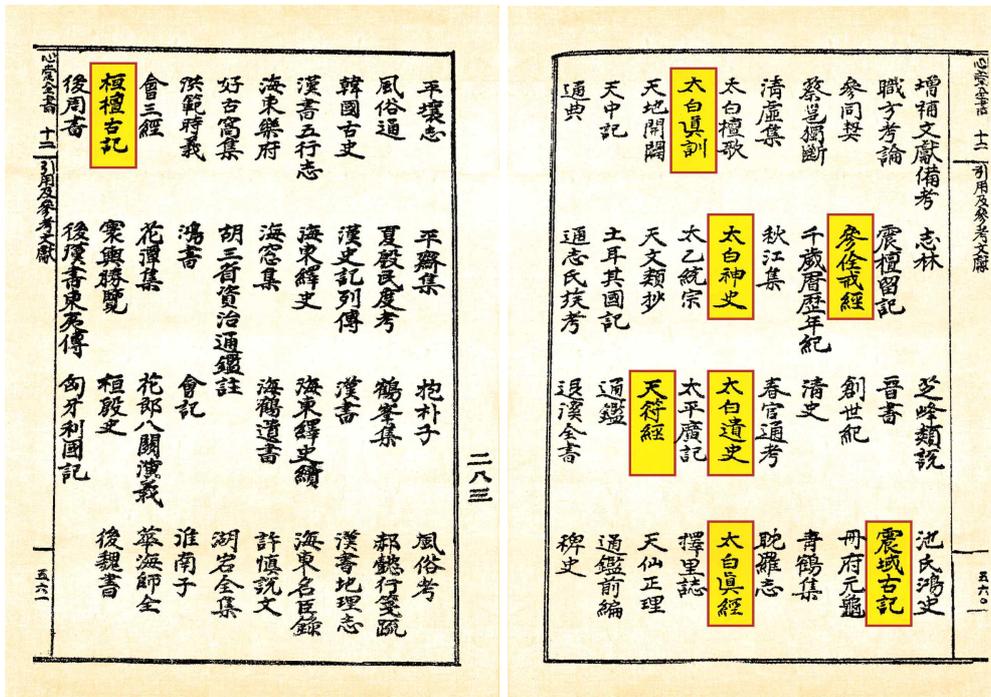


그림 3. 『心堂全書』의 인용문헌 및 참고서  
 주: 목록에 『환단고기』와 관련 도서가 보인다.

백형규白亨奎는 호가 백주白舟이며, 1914년 천마산天摩山에서 거행된 제천혈맹祭天血盟 12인 중 한 명이며, 1919년에 24인이 서명하여 발표한 ‘조선인십보장朝鮮人十寶章’에도 함께했던 인물이다. 전봉천은 호가 묵거默居이며, 1931년 <삼육>의 편집장이었으며, 단학회 회원이었다.

이유립과는 별개로 『환단고기』를 보고 전해준 인물이 또 있다. 바로 심당心堂 이고선李固善(1906~1982)이다. 그는 경북 안동군 예안면 출신이며, 저서로는 『환단세감桓檀世鑑』(1924), 『홍익대전弘益大典』(1952), 『단서대강檀書大綱』(1965)을 비롯하여 『심당전서心堂全書』(1981) 등이 있다. 『심당전서』에는 421종의 ‘인용문헌 및 참고서 목록’이 나온다. 그 중에는 『환단고기』를 비롯한 관련 서적의 목록도 있다.<sup>50)</sup>

이고선은 『환단고기』가 발간되고 13년 후인 1924년 10월 1일에 『환단세감』 서문을 완성한다. 이 『환단세감』은 환국천제로부터 순종효황제까지 ‘皇統圖’를 기록하였다. 특히 『환단고기』에 나오는 1세 환인천제로부터 7세 환인천제의 계보도가 기록되어 있다.<sup>51)</sup> 또 1952년에는 『홍익대전』을 발간한다. 이 책은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이며 3권에 걸쳐서 발행되었다. 이고선은 「서문」에서 『홍익대전』을 집필하게 된 배경을 말하면서, 시작일이 『환단세감』을 완성한 1924년 10월 1일부터였음을 말한다. 이고선이 『홍익대전』이라 명명한 것은 이기 선생과 계연수 선

50) 李固善, 「引用文獻及參考書目錄」, 『심당전서心堂全書』, 281~283쪽. 『단군세기檀君世紀』, 『북부여기北扶餘記』, 『삼성열기三聖列記』, 『삼신기三神記』, 『참전계경參侏戒經』, 『태백신사太白神史』, 『태백유사太白遺史』, 『태백진경太白眞經』, 『태백진훈太白眞訓』, 『환단고기桓檀古記』 등이 나온다.

51) 李固善, 『심당전서心堂全書』, 31쪽.

생이 명명한 ‘홍익사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一神降衷 性通光明 在世理化 弘益人間’하는 4가지 책, 즉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태백진훈』이 ‘홍익사서’이다. 『천부경』은 홍익인간하는 4가지 책에서 첫째인 으뜸 되는 책으로, ‘一神降衷 性通光明 在世理化 弘益人間’하는 큰 법전과 같은 책이 바로 『홍익대전』이다.

이고선이 『환단고기』를 보고 『환단세감』을 완성한 1924년보다 이른 시기에 또 다른 『환단고기』의 전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다. 1920(경신)년 6월 6일~7일에 있었던 봉오동 대첩의 주인공인 홍범도 장군이 쓴 『행촌선생연보』의 「발문」이 있다. 이 글은 1920년 3월 21일(양력 5월 9일)에 작성되었다. 봉오동 대첩이 있기 한 달 전에 「발문」을 쓴 것이다. 홍범도 장군은 「발문」을 쓸 정도의 학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지은 『농상집요』는 농업이 아니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태백진훈』은 국민 교육을 맡은 책이다. 『단군세기』에 이르러서, 그 서문은 국교 신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其所著農桑輯要是 非農業則無以立國矣오 太白眞訓은 國民教育之所典이라 至於檀帝世紀하야는 其序文이 足爲國教信仰之先聲矣오).<sup>52)</sup>

1920년의 홍범도 장군의 『행촌선생연보』의 「발문」에서 『태백진훈』과 『단군세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도 『환단고기』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첫째, 『태백일사』 「고려국본기」를 보면, 행촌 이암의 저서가 3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3)</sup>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이 쓴 한시<sup>54)</sup>가 있는데, 한 구절에는 “神市歷年千五百”이라 한 바, 이는 『환단고기』 『삼성기전』 「상편」과 「하편」에서 각각 전하는 배달의 역년이 1,565년<sup>55)</sup>과 『태백일사』 「신시본기」에서 말하는 1,565년<sup>56)</sup>의 역사관이다. 1920년은 『환단고기』가 발행되고 9년이 된 시간이다.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1970년대 국사찾기협의회 회원들은 『환단고기』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박사인 교수의 조교로 있었던 이종구 명예교수(1948~)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당시에는 프린트 같은 게 없어서 청사진 찍은 게 있었다. 당시 박사인 교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가는 펜글씨 같은 것을 보았다. 1979년 정식으로 인쇄되기 전 국사찾기협의회 회원 선생님들은 『환단고기』를 잘 알고

52) 이삼문, 『행촌선생연보』, 57쪽.(1992. 8. 20. 태일문화원에서 이기문李基文이 발행.)

53)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732~735쪽.

“행촌 시중侍中이 지은 저서가 3종이 있다. 『단군세기檀君世紀』를 지어 시원 국가의 체통을 밝혔고, 『태백진훈太白眞訓』을 지어 환단檀檀 시대부터 전수되어 온 도학道學과 심법心法을 이어받아 밝혔다. 『농상집요農桑輯要』는 세상을 다스리는 실무實務 관련 학문을 담은 것이다.(杏村侍中이有著書三種하니 其著檀君世紀하야以明原始國家之體統하고 又著太白眞訓하야 紹述檀檀相傳之道學心法하고) 農桑輯要是 乃經世實務之學也라.

54) 이 한시는 홍범도 장군이 그의 동지인 이덕수(1895~1940)에게 쓴 한시이다. 이덕수는 계연수 선생, 최시흥 장군에 이어 단학회 4대 회장을 지냈다.

55)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18~19쪽, 52~53쪽. “傳十八世하야 歷年이 一千五百六十五年이라”

56)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18~19쪽, 378~379쪽. “傳十八世하야 歷一千五百六十五年이오”

있었다.”고 증언해 주었다. 실제로 국사찾기협의회 회원인 임승국(1928~2001)은 『韓國古代史管見』(1978)에서 『환단고기』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波奈留山之下 有桓仁因氏之國 天海以東之地 亦稱波奈留國也 其地廣 南北五萬里 東西二萬餘里 摠言桓國 分言則 卑離國 一群國 養雲國 寇莫汗國 勾茶川國 虞婁國(一云 畢那國) 客賢汗國 和 勾牟額國 賣勾餘國 斯納阿國 鮮卑國(一云 豕韋國 又云 通古辭國) 須密爾國 合十二國 是也 天海今日北海 (三聖記 및 太白逸史)<sup>57)</sup>

### Ⅲ. 『환단고기』 판본 분석

#### 1. 1949년 『환단고기』 정서

1948년 월남한 이유립은 1949년 3월 16일에 오형기吳炯基(1915~1988)에게 『환단고기』를 정서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오형기는 5월 상순경에 정서를 완료하였다. 오형기는 3차례에 걸쳐서 『환단고기』를 정서한다. 첫 번째는 1949년 강화도 마리산에서 있었던 대영절 천제 후 이유립의 부탁을 받았을 때였으며, 두 번째는 1979년 조병윤이 주도하여 광오이해사에서 『환단고기』를 발행할 무렵 조병윤의 부탁을 받았을 때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립이 『환단고기』 정보를 만들기 위해 정서를 부탁한 때인데, 이때 정서한 것이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의 저본이 되었다. 따라서 1949년에 정서한 것이 오형기가 『환단고기』를 3번에 걸쳐 정서한 것 중 첫 번째이다.

#### 환단고기 발문

기축년 봄(단기 4282년, 서기 1949년)에 나는 강화도의 마리산에 들어갔다. 때마침 대영절(음력 3월 16일)을 맞이하여 대시전에서 정산 이유립 씨를 뵈었는데, 나에게 『환단고기』를 정서하는 일을 부탁했다[桓檀古記 跋. 己丑春, 余入江都之摩利山. 適值大迎節, 謁大始殿李靜山裕岄氏, 囑余以桓檀古記正書之役].<sup>58)</sup>

1949년의 『환단고기』 정서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원형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979년 광오이해사에서 『환단고기』가 출간되면서 그 발문을 통해 1949년에 오형기가 정서한 일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에는 오형기의 〈환단고기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세상에 알려진 『환단고기』의 글씨는 오형기의 것이다.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

57) 安東瀋 林承國 共著, 『韓國古代史管見』, 景仁文化史, 1978, 91쪽.

58) 안경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99쪽.

모두 오형기의 글씨체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접하는 『환단고기』는 모두 오형기의 글씨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환단고기』를 처음 정서한 인물은 계연수 선생이다. 「범례」를 보면, 『환단고기』가 출간되기 전에 “내가 부지런히 옮겨 적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목판본 제작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단고기』 초간본이 출간될 때 계연수 선생의 정서과정이 있었고, 해방 이후 오형기의 3회에 걸친 『환단고기』 정서가 있었다.

### 1) 오형기의 실존성 문제

이문영은 “『환단고기』 필사자인 오형기는 정체불명의 인물”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sup>59)</sup> 『환단고기』를 위서로 치부하기 위해 오형기를 정체불명의 실체가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오형기는 이유립의 장례 시에 장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형기는 본관이 동복同福, 호는 해양海陽이며, 1915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약현約軒 조종근趙宗根과 겸산兼山 홍치유洪致裕의 문하에서 학문을 했다. 오형기가 12세~24세 사이에 전라도 해남에서 충청도 보은까지 걸어서 가서 사사했다는 것을 친척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다는 말도 전한다.<sup>60)</sup> 금석학의 대가인 임창순도 홍치유의 문하에 있던 인물이다.

오형기의 장남인 오영상은 “우리 아버지는 큰 글씨는 잘 못쓰셨지만 세필細筆은 책을 인쇄한 것처럼 잘 쓰셨다”고 했고, 집안의 가승家乘도 오형기 선생의 필체라고 증언을 해주었다. 세필細筆을 잘 써서 인쇄한 것 같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책을 만들 때 많은 의뢰가 들어왔다고도 했다.

오형기는 해남에서 ‘해양서당海陽書堂’을 운영한 한학자였으며, 해남향교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광주향교에서도 활동을 하였으며, 광주향교에 오형기 선생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향교 내의 한시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인 “무진음사武珍吟社”의 회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오형기는 호남의 대표적인 한학자인 산암汕巖 변시연邊時淵(1922~2006), 만취晚翠 위계도魏啓道(1926~ 1999) 등과 교류를 할 정도로 학문적 소양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오영상은 어릴 적부터 “꼭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 “신교육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안 가르친다.”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주었다.

평생을 흰색 한복을 즐겨 입었기에 동네 어른들이 시아버지에게 ‘백두루미’라는 별호를 지어 주었다고 며느리 백순옥은 증언하였다. 오영상은 아버지가 1년이면 3개월 정도 집에 머물렀으며, 출타하고 오면 항상 “천제단에 가서 제사 모시고 왔다.”, “강화도 갔다 왔다.”고 알려주었다고 증언해 주었다.

59) 이문영, 「『환단고기』의 성립 배경과 기원」, 『역사비평』 (통권 제118호)2017년 봄호, 역사비평사, 2017.

60) 보은 우당고택愚堂古宅: 1927년에는 당대 영남 최고 유학자인 홍치유洪致裕를 선생으로 초빙하여 12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여 금석학의 대가인 임창순任昌淳과 변시연邊時淵 등 200여 명의 한학자를 배출하였다.(<https://blog.naver.com/sheenbee/223080072985>)

장남인 오영상과 며느리 백순옥에게 『환단고기』 원문을 보여주자 이구동성으로 “이건 우리 아버지 글씨다.”, “이건 우리 아버님 글씨가 맞다.”고 하였다. 오형기의 며느리인 백순옥은 시아버지인 오형기가 붓글씨를 쓸 때 옆에서 몇 시간씩 먹을 갈면서 도와주었다고 했다. 오형기는 「삼일신고」를 붓글씨로 써서 병풍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오형기가 친필로 썼다는 이 「삼일신고」 병풍은 “『환단고기』 역주본 발간 10주년 기념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맞이하여”의 행사 날인 2022년 6월 26일에 상생출판의 『환단고기』를 역주한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에게 기증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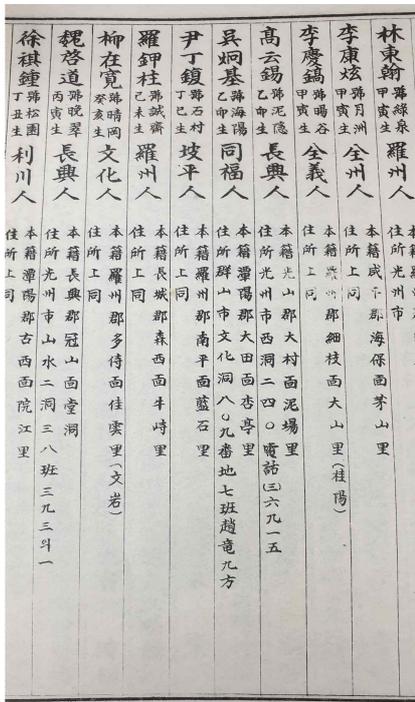


그림 4. 광주향교에서 발행한 『무진음사시교武珍吟社詩稿』 2집(1975년)  
주: 회원목록 중 오형기 선생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림 5. 오형기 친필 삼일신고 병풍

## 2) 『환단고기』가 영인본이라는 오해

『환단고기』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의 하나가 1949년에 오형기가 정서한 판본을 1979년에 영인影印을 해서 『환단고기』를 만들었다는 오해이다. 장영주는 그의 석사학위논문인 「『환단고기(桓檀古記)』 성립 과정 - 내용변화를 중심으로」(2017)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책은 이유립의 부탁으로 오형기(吳炯基)가 1949년 정서한 것으로 기록된 한문본을 다시 영인한 것이다. (4쪽)

『환단고기』는 1911년 30부가 인쇄된 이후 1949년 모필로 전사되었다고 한다. 이유립의 지시에 의해 오형기가 전사한 이 필사본은 1979년 영인본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1979년까지 전사를 반복하지 않고 존속한 것이다. 때문에 1949년 이후 『환단고기』의 원문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원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주의함 때문일 것이다. (78쪽)

1949년에 정서된 것으로 주장되는 오형기정서본은 1979년에 영인해 출판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고 이유립은 이 정서본으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84~85쪽)

『환단고기』 오형기 발문을 믿는다면 『환단고기』의 필사본은 1949년 이후 명확한 책자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필사본은 고스란히 보존되어오다 결국 1979년 영인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다. (87쪽)

1949년 이유립이 오형기에게 필사를 의뢰해 완성했다고 적혀있는 오형기필사본이 줄곧 존재하고 있었고 이 오형기필사본은 1979년 『환단고기』의 출판과 일어본의 출판 시기에 영인되어 공개되었다. 오형기필사본은 1949년부터 1979년 사이 30년 동안 이유립이 고스란히 소장해오고 있었기에 영인출판이 가능했던 것이다. (104쪽)

이문영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이유립은 ‘초간본’ 말고 오형기라는 사람이 필사한 필사본도 가지고 있었다. 1979년에 광오이해사에서 나온 『환단고기』가 바로 이 필사본을 영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1)</sup>

장영주와 이문영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광오이해사본 『환단고기』가 영인한 것이라고

61) 이문영, 「환작(幻作)된 『환단고기(桓檀古記)』」, 『韓國史學史學報』 38(2018. 12), 300쪽.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 30부가 발행이 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도서를 널리 보급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당시에는 대부분 필사를 했다. 앞에서 살펴본 ‘白亨奎氏所藏本’, ‘白亨奎本’, ‘白亨奎所藏寫本’, ‘全鳳天所藏本’, ‘全鳳天家藏等寫本’, ‘全鳳天寫本’, ‘全鳳天本寫本’을 보면 당시 단학회 회원들도 각자의 필사본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광오이해사에서 『환단고기』를 인쇄할 때, 저본으로 사용된 것은 오형기가 1949년에 정서하여 이유립 선생이 가지고 있던 오형기 정서본이다. 이 오형기 정서본을 그대로 영인한 것이 아니라, 이 정서본을 보고 오형기가 직접 다시 붓글씨로 쓴 것이다. 당시에는 필경사들이 있어서 이들이 인쇄저본을 만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인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지금의 문화로 보면 필경사는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편집자에 비견되는 존재다. 오형기도 필경사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오형기는 단순한 필경사가 아니라 한학을 했으며, 한시를 직접 쓸 수 있는 정도의 학식을 갖춘 학자였다.

## 2. 광오이해사본 『환단고기』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9년 조병윤(1955~?)이 주도하여 광오이해사에서 『환단고기』를 출간하면서였다. 당시 장안에 『이해영어』의 저자로 명성이 높았던 박기엽이 만든 광오이해사는 광오光杓 박기엽이 『이해영어』를 출간하기 위해 만든 출판사라는 뜻이다. 박기엽 사장은 의인義人으로 젊은 시절부터 많은 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기도 했는데, 주말이 되면 박기엽 사장에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고 한다. 박기엽은 “월세 1만원을 내고 살 때 월 100만원을 썼다. 내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는 사람이다. 아령이나 들고 운동만 한다. 근데 (남들 도와주는데) 100만원을 썼다.”고 증언을 했다. 조병윤이 광오이해사에서 『환단고기』를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병윤이 고등학교시절부터 박기엽에게서 영어를 배웠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병윤의 박기엽과의 인연과 광오이해사에서 『환단고기』를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유립의 제자이자 창해출판사 사장이었던 전형배가 확인을 해주었다.

광오이해사본의 『환단고기』 출간배경에 대해서 이유립의 제자인 오정윤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광오이해사본의 『환단고기』 필체가 오형기의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광오이해사본에 붙어 있는 정오표는 조병윤의 작품이다. 조병윤이 오탈자의 교정을 위해 오형기에게 부탁을 했으나, 오형기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sup>62)</sup>

62) 서예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환단고기』 ‘제호’, ‘본문’, ‘재판후지’, ‘간기’의 서체는 같은 사람의 것이나, ‘정오표’는 전혀 다른 사람의 서체라고 했다. 즉 ‘제호’와 ‘본문’, ‘재판후지’, ‘간기’는 오형기가 쓴 것이지만, ‘정오표’는 다른 사람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광오이해사본의 『환단고기』는 2회에 걸쳐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9년 9월에 나온 1쇄본은 대부분 수거되었고<sup>63)</sup>, 이후 1979년 12월에 정오표가 붙은 2차본<sup>64)</sup>이 인쇄되었다.<sup>65)</sup> 이유립의 제자로 있다가 출가한 김성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성환은 군대를 제대하고<sup>66)</sup>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조병윤이 책을 한 권 가져와서 마스터인쇄로 300부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조병윤에게 제본해 준 책이 『환단고기』라고 하였다.

광오이해사본의 『환단고기』가 1979년 9월에 1차 출간될 때 무렵 『환단고기』 고급 선장본(100부, 가격없음), 『환단고기』 보급판(100부, 정가 10,000원), 『신시개천경』(100부, 5,000원), 『태백속경』(100부, 6,000원) 총 4종 400권이 발행되었다.

박기엽은 광오이해사본 『환단고기』를 출간할 당시 다른 책보다 3~4배의 더 많은 돈이 소요되었고,<sup>67)</sup> 당시 장안의 최고 선장본 기술자를 불러 최고급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주었다. 박기엽 사장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서울의 기와집 한 채 가격 정도 들어갔다고 하였다.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은 『환단고기』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번역이 된 가지마 노부루의 일본어판 『환단고기』의 저본이 광오이해사본이다. 또 국내에서 번역된 김은수의 『환단고기』와 임승국의 『한단고기』를 비롯하여 이후에 간행된 다수의 『환단고기』 번역서는 대부분 광오이해사본을 가지고 한 것이다. 또 이유립은 광오이해사본에 직접 현토를 달기도 했다. 조병윤의 주도로 출간이 되었지만, 그 제작 배경에는 광오이해사 박기엽 사장의 재정적 보조를 빼놓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환단고기』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단고기』가 대중화되기까지 그 과정에 숨어있는 박기엽 사장의 지대한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하고, 그의 이러한 공덕은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것이다.

63) 『환단고기』가 일반서점을 통해 유통이 된 것이 아니라, 인사동의 고서점을 취급하는 통문관이나, 예문관 등을 통해 보급되었기에 수거가 가능할 수 있었다.

64) 광오이해사본의 간기에 있는 '재판再版'과 조병윤의 '재판후지'에서 말하는 '재판'은 2쇄를 말하는 것이며, 배달의숙본에서 말하는 재판은 1911년에 나온 초간본에 이어 나온 두 번째 발간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65) 광오이해사본의 간기에 1차 인쇄본으로 표시된 책에서도 '정오표'가 수록된 경우가 있었고, 오형기의 「환단고기 발문」, 조병윤의 「재판후지」가 수록된 서책을 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병윤의 「재판후지」는 1차 인쇄본에는 없었고, 수거 이후 새로운 인쇄본이 배포될 때 넣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서지학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된 것이다.

66) 김성환은 1979년 12월경에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마스터인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조병윤이 책을 가져와서 마스터인쇄 300부를 했고, 그 이후에 조병윤이 조계사 뒤에 있던 영동문화사에 맡겨 2차 인쇄를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광오이해사본이 2차례 인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더 많이 인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7) 정명약의 『國史大畧』(1978)도 박기엽 사장의 전적인 지원으로 광오이해사에서 발행이 되었다. 『國史大畧』은 346쪽의 하드커버로 정가는 3,500원이었다.



그림 6.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 출간 당시 4종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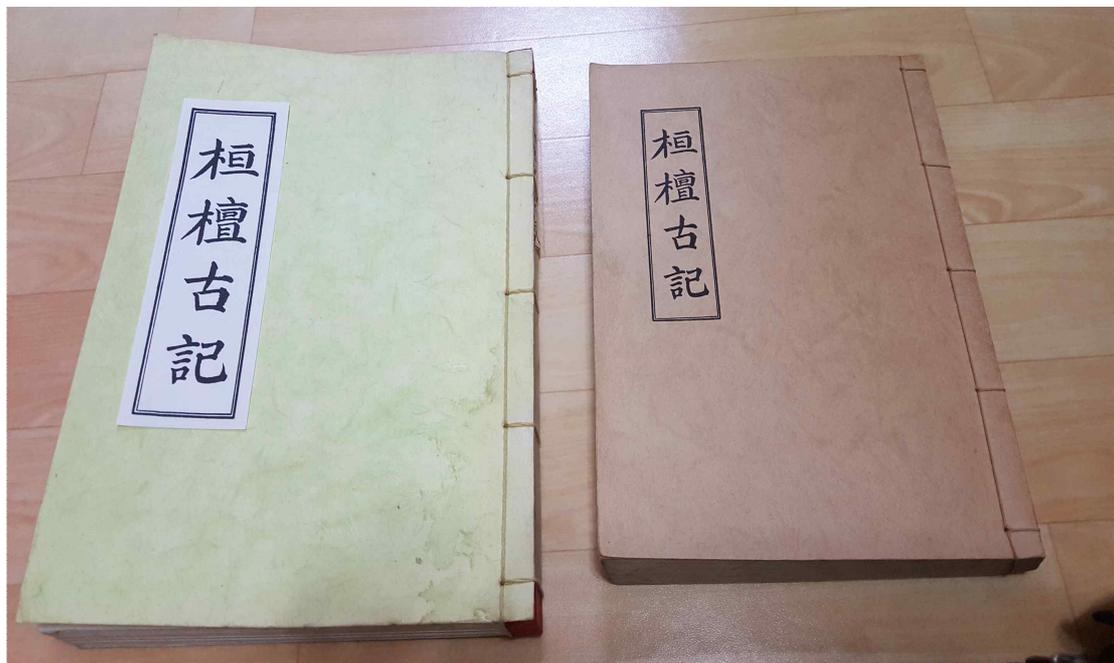


그림 7. 1979년 9월 10일 출간된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 2종(고급선장본과 보급판선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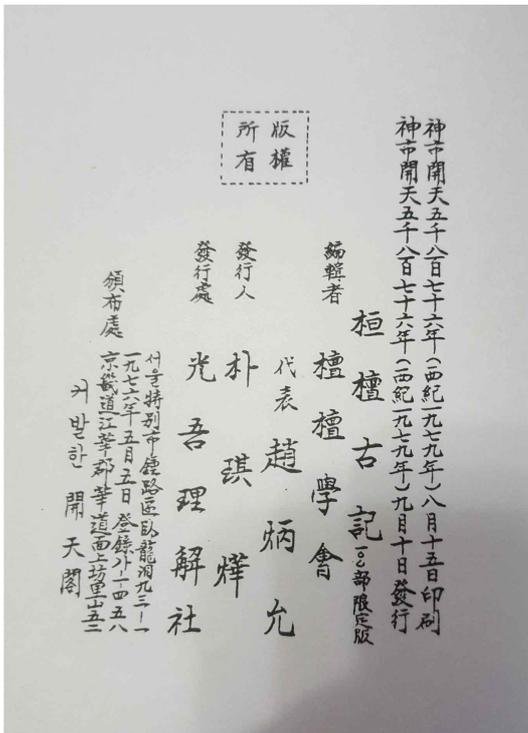


그림 8.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 1차 인쇄  
고급판 선장본(1979년 9월 10일)  
주: 가격표시 없고, 한정 100부라는 문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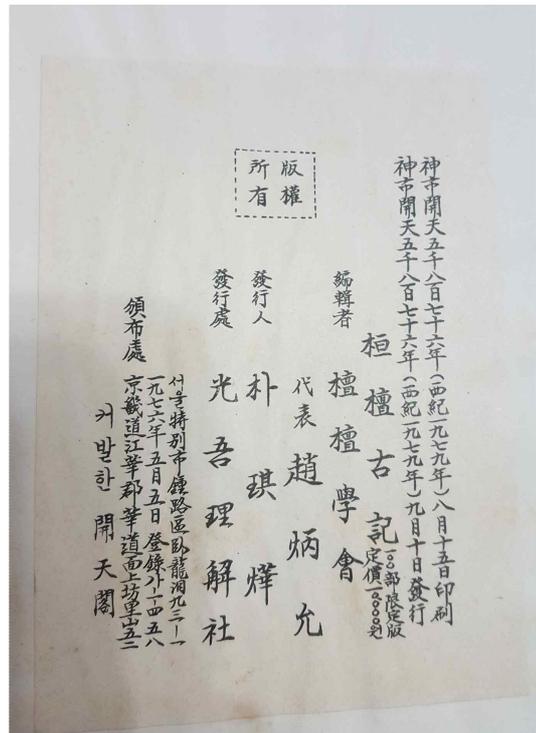


그림 9.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 1차 인쇄  
보급판(1979년 9월 10일)  
주: 가격이 10000원, 한정 100부라는 문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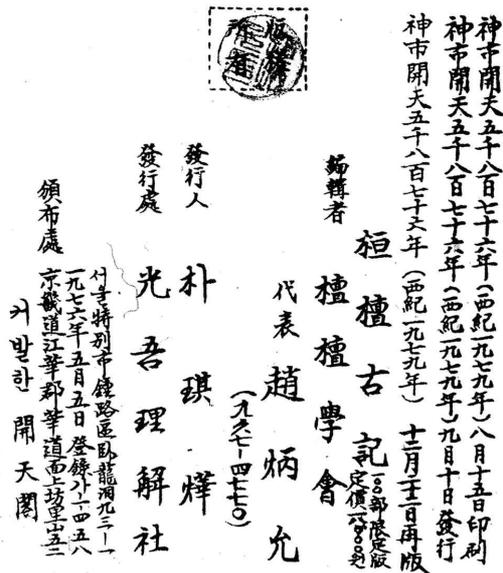


그림 10.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 2차 인쇄 서지사향(1979년 12월 22일)  
주: 가격이 18,000원, 한정 100부라는 문구가 있다.

### 3. 배달의숙본 『환단고기』

#### 1) 서지학적 이해

세상에 통용되고, 알려진 『환단고기』 판본은 대부분 광오이해사본이다. 따라서 배달의숙본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

조인성은 『규원사화揆園史話』·『단기고사檀奇古史』·『환단고기檀檀古記』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에서 “이것이 1979년 100부 한정판으로 광오이해사光吾理解社에서 출간되었다. 1983년 이유립은 이를 고쳐 배달의숙倍達義塾에서 출간하였다.”라고 하였다.<sup>68)</sup> 또 이문영은 『환단고기』의 성립 배경과 기원」에서 “이유립은 1983년 배달의숙에서 다시 『환단고기』를 출간했다.”<sup>69)</sup>고 하였다. 이유립이 광오이해사본을 고쳐서 다시 배달의숙에서 출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왜곡된 시각과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인식 수준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장한 오류이다. 즉 광오이해사본의 오류를 수정해서 배달의숙에서 출간했다는 인식은 사실과 괴리된 것이다.

광오이해사본 『환단고기』는 조병윤의 주도로 출간하였는데, 이때 여관방에 모여 급하게 쓰다 보니 한두 줄이 빠진 부분도 있고, 오탈자 등의 오류가 많았다. 이에 이유립은 『환단고기』 정본을 만들기 위해 오형기에게 정식으로 정서를 요청하였고, 이유립 앞에서 오형기가 『환단고기』를 3번째로 정서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배달의숙본 『환단고기』를 출판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배달의숙이라는 출판사의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배달의숙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만이 『환단고기』 정본이라는 신념 하에 그 초간본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따라서 배달의숙본은 광오이해사본의 오류를 수정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의숙본 『환단고기』 역시 한정본으로 100부 인쇄되었으나, 일부 단단학회 회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급되었고,<sup>70)</sup>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1998년 단학회연구부가 발행한 『檀檀古記』(코리언박스)를 통해서다.<sup>71)</sup> 따라서 배달의숙본 『환단고기』야말로 이유립이 밝힌 『환단고기』 정본인 셈이다. 이것은 아래에 나오는 배달의숙본의 간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유립의 뜻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68) 조인성, 『규원사화揆園史話』·『단기고사檀奇古史』·『환단고기檀檀古記』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5호, 2017, 281쪽.

69) 이문영, 『환단고기』의 성립 배경과 기원, 『역사비평』, 통권 제118호, 42쪽, 2017년.

70) 숙명여대 도서관 소장본이 바로 배달의숙본 『환단고기』이다. 평소 이유립과 친분이 있던 언론인 송지영(1916~1989)이 받은 배달의숙본을 1989년에 숙명여대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기증한 것이다. 송지영은 숙명학원 이사를 역임했다.

71) 코리언박스에서 발행한 『檀檀古記』가 출간되기 전의 것으로, 배달의숙본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1987년에 발간된 『대배달민족사』 1권에 수록된 이유립의 『환단고기정해』이다. 그러나 정작 세간에서는 배달의숙본을 인지하지 못했다. 배달의숙본의 존재가 알려지고 광오이해사본과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것은 상생출판의 『환단고기』(안경전 역주)가 출간되면서 부터이다. 배달의숙본의 존재는 단단학회 내부에서만 알고 있을 뿐이었으며, 세상에서는 단지 『환단고기』로만 인식할 뿐이었다.

·神市開天 五千八百八年 光武十五年  
三月十六日 初版發行(限定版 三十部)  
·神市開天 五千八百七十六年 十月三日  
再版發行(限定版 百部)  
原著 雲樵 桂延壽  
發行 倍達義塾

이처럼 배달의숙본 간기에는 ‘原著 운초 계연수, 발행 배달의숙’이라고 되어 있고, 초판발행은 광무15년인 1911년에 한정판으로 30부 발행되었으며, 새로 만드는 재판再版은 1979년에 한정판 100부를 발행하였다고 되어있다. 또 배달의숙본의 표지에는 ‘교열 해학 이기’, ‘원저 일시당주인 계연수’로 명시되어있다.

배달의숙본의 간기와 표지에는 ‘원저原著’라고 되어있다. 왜 ‘편저編著’가 아니라 ‘원저原著’일까? ‘원저原著’는 ‘본래의 저작著作, 번역翻譯 또는 개작改作한 것에 對하여 이름’<sup>72)</sup>이라는 의미이다.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추정이 된다.

첫 번째는 광오이해사본에 대한 원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바대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환단고기』는 광오이해사본이며, 1979년에 9월에 1차, 12월에 2차본이 발행된 바 있다. 이후에 나온 가지마 노부루의 일본어판, 김은수의 번역본, 임승국의 번역본 등 대부분의 『환단고기』 관련 저작은 광오이해사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또 이유립이 『환단고기』 원문의 현토 작업을 광오이해사본에 직접 했음을 볼 때 광오이해사본은 단단학회 내부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상황에서 배달의숙본이야말로 계연수 선생이 발간한 진정한 정보로서의 『환단고기』라는 것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원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이유립이 정해正解(바른 풀이 또는 옳은 해석)를 넣어 출간한 『환단고기정해』의 저본이라는 의미로 원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유립은 『환단고기』 원문인 「범례」, 『삼성기전』 「상편」, 『삼성기전』 「하편」,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에 방대한 주석을 달았다. 이유립은 『환단고기정해』의 〈환단고기정해표사桓檀古記正解標辭〉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단고기』는 선사가 엮으신 것이며, 이제 나의 『환단고기정해』는 감히 선사의 뒤를 잇노라(“桓檀古記는 先師所編이시오 今余正解는 敢續末塵이로다”).<sup>73)</sup>

72) <https://hanja.dict.naver.com/#/entry/ccko/e9438df65f3147b0b32e7a268efe778c>

73) 李裕堧. 『대배달민족사』 1권(서울: 고려가, 1987), 3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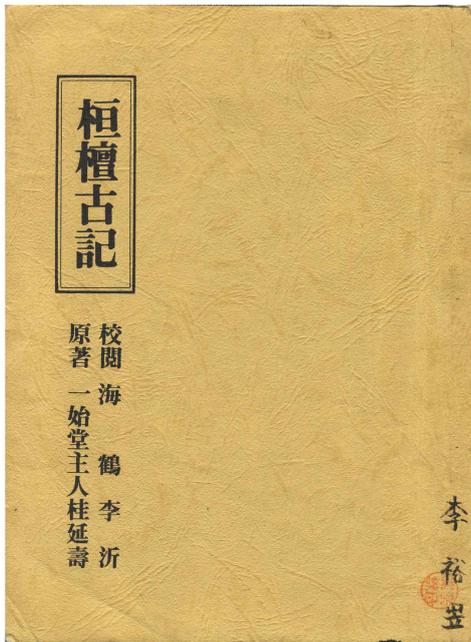


그림 11. 『환단고기』 배달의숙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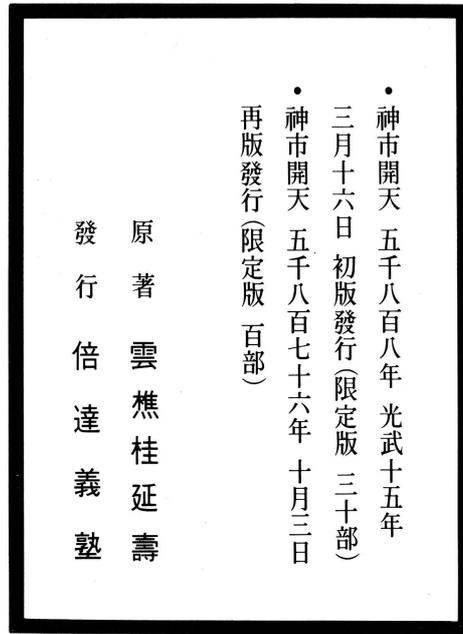


그림 12. 『환단고기』 배달의숙본 서지사항

이 글은 신시개천 5877년 경신(1980)년 대영절에 이유립이 제자인 전형배에게 써준 글이다.<sup>74)</sup> 이유립은 계연수 선생의 『환단고기』를 저본으로 삼아 정해正解를 넣어 『환단고기정해』를 완성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본다면 원저라는 표현은 광오이해사본이 아닌 자신이 새롭게 발간한 배달의숙본이 『환단고기』 정본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은 이유립이 1911년 계연수 선생이 만주 관전현에서 발행한 초판본 『환단고기』의 복원을 위해 정본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오이해사본은 조병윤의 주도로 발간이 되었기에 「환단고기 발문」과 조병윤 자신의 「재판후지」, 〈정오표〉 등이 들어가 있었지만, 배달의숙본은 1911년 초판본의 복원이기에 오형기의 「환단고기 발문」, 조병윤의 「재판후지」, 광오이해사본의 〈정오표〉 등이 없이 출간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광오이해사본에 있는 오형기의 「환단고기 발문」, 조병윤의 「재판후지」, 광오이해사본의 〈정오표〉 등을 모두 삭제한 후 발간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배달의숙본에는 초판본의 복원이기에 원래부터 이 부분은 없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배달의숙본은 원래 저자인 윤초 계연수가 배달의숙에서 1911년에 한정판 30부 발행한 것을 1979년에 재판으로 한정판 100부를 발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배달의숙본의 목차에는 광오이해사본과 같이 ‘編著 雲樵

74) 배달의숙본이 1979년 10월 3일에 재판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인물이 전형배이다. 그는 2013년 ‘21세기 민족주의 포럼’의 강연에서 ‘1980년 1월 한암당 이유립 선생을 만나 ‘배달의숙본’을 받아 한암당 제자들과 함께 공부했으며, 1986년 한암당이 타계할 때까지 곁을 지켰다.’고 말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76>

桂延壽'로 되어 있어 변함이 없는데, 표지와 간기에서는 '原著가 桂延壽'라 하여 1911년에 발간된 『환단고기』의 정본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유립의 미발행 원고 「桓檀古記와 檀檀學會(太白教)」를 잠시 열람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이석영(단단학회 회원)의 지원으로 거년去年에 재판발생再版發行 100부 한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배달의숙본 『환단고기』의 출간비용의 후원자가 이석영으로 밝혀진 것이다.

## 2) 『환단고기』 경신년 공개설

1970년대 국사찾기협의회 회원들은 이유립에게 『환단고기』를 공개하자는 제의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유립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는 말로 거절했다는 말이 전한다. 경신년 공개설을 처음 거론한 인물은 송호수 교수이다. 그는 『한민족의 뿌리사상』(1983)에서 『환단고기』를 1980년에 공개하라는 계연수 선생의 유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雲樵云 다음 庚申年(1980)이 되거든 公開하라 : 李裕笠言

桓檀古記는 다음 庚申年(1980)이 되거든 世上에 내놓으라는 말을 雲樵가 남겼다고 함. (檀檀學會 李裕笠云)

이 경신년 공개설을 다시 전한 인물이 있는데, 『환단고기』를 처음 번역한 김은수이다. 1985년 『환단고기』를 번역하면서 서문에서 “운초는 이 책을 경신년庚申年(1980)이 되거든 공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1979년은 6월에 윤달이 있는 해이다. 광오이해사본의 1차 출간일인 9월 10일은 양력 10월 30일이다. 또 2차 출간일인 12월 22일은 양력 1980년 2월 15일이 된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조병윤의 <재판후지>의 날짜이다.

조병윤의 <재판후지>에 대해서 2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하나는 신시개천 5876년, 다른 하나는 신시개천 5877년으로 되어 있다. 신시개천 5876년은 1979년이며, 신시개천 5877년은 1980년이다. 또 ‘己未復月’ 부분을 보면, 복월은 음력 11월을 말한다. 음력 11월 1일~11월 30일까지를 보면 양력 1979년 12월 19일~ 1980년 1월 17일까지이다.

조병윤의 「재판후지再版後識」

神市開天五千八百七十六年己未復月閉關日 靜山門人 漢陽趙炳允 謹識

신시개천 5876년(1979년) 기미년 동짓날에 정산 이유립 선생의 문인 한양 조병윤이 삼가 기록하다.

조병윤의 「재관후지再版後識」

神市開天五千八百七十七年己未復月閉關日 靜山門人 漢陽趙炳允 謹識

신시개천 5877년(1980년) 기미년 동짓날에 정산 이유립 선생의 문인 한양 조병윤이 삼가 기록하다.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의 간기를 보면 ‘神市開天五千八百七十六年 十月三日’로 되어 있다. 1979년 10월 3일은 양력으로 1979년 11월 22일이 된다. 또 이유립은 『환단고기』에 주석을 단 『환단고기정해』는 1987년 『대배달민족사』 1권의 5번째에 수록되었는데 이유립은 『환단고기정해』를 완성하고 <환단고기정해표사桓檀古記正解標辭>를 지었고, 그날이 1980(경신)년 대영절(3월 16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단학회 내부에서는 『환단고기』 경신년 공개설에 대해서 다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전형배는 <신동아> 이정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전형배씨는 “계연수 선생이 경신년에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라고 했다는 말을 외부인에게서 는 들은 적이 있어도, 이유립 선생으로부터는 그러한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sup>75)</sup>

이유립의 제자인 오정윤 또한 송호수 교수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라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980년인 경신년을 전후로 단단 학회에서도 젊은 제자들의 유입이 많이 있었으며, 광오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 『환단고기』가 출간이 되면서 왕성한 활동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보아 ‘다음 경신년에 공개하라’는 『환단고기』 경신(1980)년 공개설 은 실제 『환단고기』가 경신(1980)년 전후 무렵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환단고기』 중에는 활자본으로 된 또 다른 판본이 있다. 이 책은 1996년 8월 21일에 비치되었으며, 발행지와 발행인은 미확인으로 되어있다. 이 활자본은 광오이해사본을 저본으로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오이사본의 오류를 수정한 부분도 있지만, 배달의숙본과는 차이가 있어 광오이해사본을 저본으로 교정을 거쳐 활자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활자본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남겨둔다. 최근에 장서각문고 최현호 사장이 소장 중인 ‘등사본 『환단고기』’가 공개되었다. 이 ‘등사본 『환단고기』’는 『환단고기』 완편이 아닌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였다.<sup>76)</sup>

75) <신동아> “『환단고기』의 진실 제2부 - 계연수와 이유립을 찾아서”, 2007.9.

<https://shindonga.donga.com/article/all/13/106717/1>

76) 저자는 운릉도서관 이명우 이사장과 소장자인 최현호 사장이 공동 저자로 되어 『1909년 환단고기』라는 제목으로 2020

### 3) 『환단고기』 판본별 글자 수 분석

『환단고기』는 광오이해사본은 48,806자, 배달의숙본은 48,164자이다. 두 판본 간 전체 글자 수의 차이는 642자이다. 두 판본에서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광오이해사본을 발간할 당시 오류, 누락이 있었던 결과이다.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의 총 글자 수 48,806자 중에서 『태백일사』의 글자 수는 전체의 69.9%에 해당되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단군세기』는 전체의 17.5%이며, 『북부여기』는 5%, 『삼성기전』은 4.8%에 해당된다.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의 총 글자수 48,164 중에서 『태백일사』는 전체의 71%이며, 『단군세기』는 전체의 17.9%이며, 『북부여기』는 5.1%, 『삼성기전』은 4.9%에 해당된다.

## 4. 『환단고기』 번역

### 1) 1982년 가지마 노부루(鹿島 昇)의 일본어판 『환단고기』

1979년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이 출간되고 나서 국내보다 일본에서 먼저 번역서가 출간되었다. 1982년 가지마 노부루(鹿島 昇, 1926~2001) 일본어판 『桓檀古記』를 출간하였다.<sup>77)</sup> 가지마 노부루는 어떻게 『환단고기』를 알게 되었을까? 가지마 노부루는 박창암朴蒼巖(1921~2003) 장군을 통해서 『환단고기』를 알게 되었다. 박창암 장군은 자유사를 운영하면서 월간 「자유」지에 민족 진영의 글들이 연재되는 장 마련해 준 공덕이 많은 인물이다. 1979년 박창암 장군은 가지마 노부루에게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과 『환단휘기』, 『태백속경』, 『신시개천경』의 4종의 책을 전달했다.

가지마 노부루의 『桓檀古記』題字는 이타바시토모오(板橋都夫)의 글씨이며, 20개의 주제로 된 가지마 노부루의 해제가 수록되어 있다. 가지마 노부루의 일본어판 『桓檀古記』는 한문원본과 일본어 번역을 대역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책의 말미에는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이 영인되어 있다.<sup>78)</sup>

---

년에 출간되었다. ‘등사본 『환단고기』’에 대해서 소장자는 제작 연대를 1960년~1970년으로 보고 있다. ‘등사본 『환단고기』’의 가장 큰 특징은 ‘桓檀古記’라는 책 제목이 등장한다는 것과, ‘李沂註曰~’이라는 문장이 여러 개 있다.

77)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해제, <I.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79쪽.  
 가지마 노부루는 소화 57년(1982)에 ‘역사와 현대사歴史と現代社’를 발행인으로 하여 『환단고기』 일어 번역본을 처음 출판하였고, 2년 뒤에는 (주)신국민사를 발행인으로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78) 장영주는 이를 가지마 노부루가 1949년 오형기 정서본을 영인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지마 노부루가 영인한 것은 광오이해사본이다.  
 “책 말미에 1949년 오형기의 모필 정서본을 영인해 신고 있으며 정오표도 역시 신고 있다.” 장영주, 『『환단고기』(桓檀古記) 성립 과정- 내용변화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7, 6쪽.

## 2) 『환단고기』 최초 번역 김은수의 『桓檀古記』(1985)

국내에서는 광주농업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김은수 선생이 『桓檀古記』를 번역하여 가나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김은수 선생은 서문에서 ‘나는 한동안 이 책이 주는 충격에서 거의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김은수 선생에게 『환단고기』를 전해준 인물이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해숙 前 전교조 위원장이다. 정해숙 선생은 1983년 5월 전남대 증산도 동아리 전시회를 통해 『환단고기』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정해숙 선생은 김은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번역하는 동안 날마다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고 했다. “선생님 정말 너무 너무 귀한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저녁에 잠을 자지 않아도, 오늘 수업을 해도 피로하지 않아요. 너무 너무 재미있습니다.”라는 말을 정해숙 선생에게 말했다고 한다.<sup>79)</sup>

## 3) 임승국 교수의 『한단고기』(1986)

80년대 『환단고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임승국 교수가 정신세계사에서 『한단고기』를 1986년에 출간하면서 부터이다. 임승국 교수의 『한단고기』를 가지마 노부루 일본어판 『桓檀古記』를 중역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1980년대 민족사학계열에서는 『환단고기』 번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국사찾기협의회 회원들은 이유림이 『환단고기』를 번역하기를 원했고, 『환단고기』 번역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림은 「커발한」 잡지에 ‘국역 『환단고기』’를 실었다.<sup>80)</sup> 여기에는 「범례」, 『삼성기전』 「상편」, 『삼성기전』 「하편」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유림이 진행하는 번역이 많이 지체되어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고 판단한 민족사학계열에서는 임승국 교수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임승국 교수는 ‘한단고기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어느 책보다도 많이 읽혀져야 할 이러한 책이 왜 그토록 묻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은, 역시 우리의 사가들이 젖어 있었던 반도사관과 식민사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결코 이 한단고기를 근거가 불확실하다든가, 신빙성이 없다든가, 편찬자들의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내팽개칠 수는 없다. 그러한 선입감 자체도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이 책은 한국인에게 중시되어야 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sup>81)</sup>

79) 『환단고기』 번역자 김은수씨와 정해숙 선생의 역사적인 만남.

<https://www.youtube.com/watch?v=dIvrjAYjm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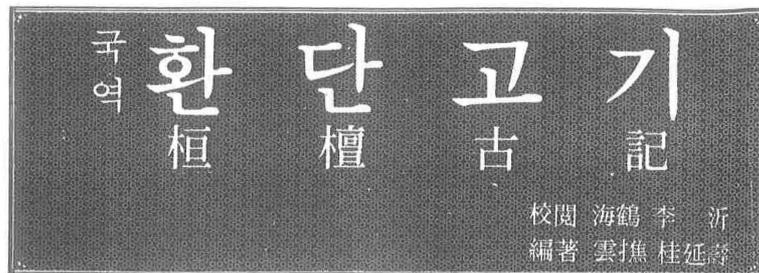
80) 단단학회, 《커발한》 60집(1982년 7월호), 16~22쪽.

81) 임승국, 『한단고기』(서울: 정신세계사, 1986), 5쪽.



## 5. 『환단고기』 배달의숙본 출간 현황

이유립은 『환단고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을 만들었다. 배달의숙본은 단단학회 회원 중심으로 일부에게만 제공되었을 뿐 대중화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환단고기』 번역서들은 광오이해사본을 저본으로 번역이 되었다. 여기서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의 출간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 凡例

一. 古記를 인용한 것이 一然氏의 유사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이제 그 고기는 가히 얻어 볼 수 없으므로 이에 三聖紀·檀君世紀·北夫餘紀·太白逸史를 합하여 한 기록을 만드니 이름하여 가로되 檀檀古記라 한다.

一. 三聖紀는 두 종류가 있으나 完編은 아닌 것같고 安畝老씨가 지은 바는 나의 집 舊傳이니 이제 三聖紀全상편을 만들고 元董仲씨가 지은 바는 태친 白進士 寬默씨에게서 얻으니 이제 三聖紀全하편을 만들어 통틀어 이를 三聖紀全이라 이른다.

一. 檀君世紀는 紅杏村叟가 엮은 바이니 곧 杏村先生 文貞公이 전한 바이다. 이 글이 또한 백진사에게서 얻으니 진사는 文藻古家라 본디 장서가 많았는데 이제 두 종류의 사서가 갖추어 그 집에서 나왔나니 어찌 百朋 (朋은貨幣=貝) 을 주는 것에 전줄뿐이리요 가히 조국의 만 길되는 광채라 이르겠다.

一. 北夫餘紀上下는 休崖居士 范樟 (初名世東) 님이 지은 바라. 전에 단군세기와 함께 엮은 것을 朔州 밧골 李進士學弼님 집에서 얻으니 단군세기는 백진사가 간수한 바와 더불어 한 자의 異同이 없고 이제 別本이 있어 세상에 행하는데 이 책 내용이 스스로 앞글과 더불어 자못 다른 바가 있는 까닭에 다시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차	三聖紀全 上篇	北夫餘紀
례	三聖紀全 下篇	太白逸史
	檀君世紀	

一. 太白逸史는 一十堂主人 李百씨가 엮은 바니 곧 海鶴李沂선생의 간수한 것이라 내개 桓·檀이후로 서로 전해온 教·學·經文이 모조리 갖추어져 있으며 자료를 위한 典拋가 가히 한 번 보아 분명한 것이다. 또 그 天符經·三一神謠의 두 글 전 문장이 갖추어 篇중에 들어 있으니 참으로 郎家로서 유교에 전주면 대학·중용이 될 것이다.

어허! 桓·檀의 서로 전수해 온 세김한 몸으로서의 心法이 참으로 이 글에 있나니 과연 太白教 (커발한)의 중흥터전이 될 것일세 손은 스스로 춤추며 발은 스스로 밟으며 흥겨워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치고자 한다.

一. 檀檀古記는 모조리 海鶴李沂의 감수를 거쳤으며 또 나의 정력을 들여 부지런히 繕寫했고 또 洪範圖·吳東振 두 벗의 내놓은 돈으로 인쇄 (刷刷)에 부치게 되었나니 一은 自我 인간으로서의 主性을 발견하기 위하여 크게 축하하는 것이며 一은 민족 문화의 이념을 표출하기 위하여 크게 축하하는 것이며 一은 세계 인류의 공존을 마주 모으기 위하여 크게 축하하는 것이다.

神市開天 오천 팔백 팔년은 곧 光武 십오년이니 해차레 辛亥 오월 광개절날 太白遺徒 선천 桂延壽 仁卿은 妙香山의 檀窟庵에서 쓰노라.

그림 16. 『커발한』 60집(1982년 7월호)에 실린 이유립의 국역 『환단고기』 「범례」



安 舍 老  
지음

우리 환(桓)이 나라 세운 것이 가장 오래 되었는데 한 신(一神)이 있어 수릿벌(斯白力=北極原)의 나라(天)에 계시사 홀로 된(獨化)신이 되시니 빛밝음은 우주를 비추고 권세로 힘(權化)은 만물을 생(生)해주시며 늘 살고 오래 보시어 항상 쾌락함을 얻으시며 지극한 기운을 타고 노시사 스스로 그렇게 됨과 오묘하게 들어맞으시며 얼굴없어도 보시며 하염없어도 지으시며 말함없어도 행하시나니 어느 날 동녀동남(童女童男) 팔백명을 흑수백산(黑水白山)의 땅으로 내려 보내시었다. 여기에서 환인(桓因) 남계읍(南界邑)에서 또한 갈군(監群)으로 하늘 어류(天界=波奈留)에 계시사 사물을 쳐서(撻擊) 불을 피워 처음으로 익혀 먹기를 가르키시니 이를 환국이라 하고 이가 천제 환인씨(天帝桓因氏)라 하고 또 아바지(安巴堅)라 일컬었다. 일곱 대를 전하나 연대는 가고할 수 없다 한다.

그 후에 환웅씨(桓雄氏) 제육서 이어 일어나시사 삼신하느님(天神)의 조명을 받드시고 백산흑수(白山黑水)의 사이에 내려오시사 자식들의 셈과 딸들의 셈을 하는 벌(天坪=阿斯達)에 파고 사가 일구(四家-區)로 뉘 구정법(邱井法)에 의한 토지계획을 청구(靑邱)에 설치하시며 하늘의 부인(天符印)을 가지시고 다섯 가지 일을 주장하시사 세상살이 다스리고 되게 하시며 널리 인간을 보람있게 하시었다. 서울을 신시(神市=검불)에 정하시고 나라를 배달(倍達=배달)로 일컬었다. 三·七날을 가리어 삼신하느님께 제사하시며 밖의 사물을 기신(忌愼)하사 오래(門)를 닫고 스스로 탁으시며 주송(呪頌)과 서원(誓願)으로 공효(功效)가 있으시며 약을 복용하여 췌인(仙人)를 일우시며 췌를 그어 오는 것을 아시며 췌(象)를 잡고 신을 옮기셨느니라.

뜻 신령과 여러 현철(賢哲)을 명하시사 도읍(輔)을 삼으시며 웅제의 딸을 맞아 들여 황후를 삼으시고 장가 들고 시집오는(婚嫁) 예를 정하시사 겸종의 가족으로 폐백을 삼으시며 발걸이와 세 뿌리는데 겸종(有畜)이 있으며 시장을 두어 교역하게 하시니 아홉 구역이 부세를 바치고 새·검승들은 좃아서 춤추었다. 뒷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가장 높으신 신으로 받들고 대대로 제사하여 끊이지 않았다.

신시(神市)의 끝에 치우천왕(治尤天王=慈烏支桓雄)이 있어서 널리 청구(靑邱)를 개척하시었다. 배달국이 열여덟대(十八世)를 전하여 일천 오백 육십 오년을 지냈다. 후에 신인 왕정(神人王儉)이 아사달(完達山=不咸) 박달나무 터로 내려오시니 그 지극히 신스러운 덕과 성인을 정한 어짐이 곧 능히 조명을 받아 삼신 하느님을 이으시어 바름대(極-準極)를 세우시옵사 높으시고 넓으시옵사(廣濶) 오직 매우시거늘(烈) 아홉 환(九桓)의 백성들이 다함께 기뻐하여 정성으로 복종하여 추존해서 천제화신(天帝化



元 董 仲  
지음

인류의 조상을 가도되 나반(那般)이니 처음에 아반(阿蠻)과 더불어 서로 만난 곳을 가도되 수릿벌(阿耳斯它)이요, 꿈에 삼신 하느님(天神)의 가르침을 얻어서 스스로 「저 물계 만나는 예(昏禮)를 이루니 곧 아홉 환(桓)의 계례가 모두 다 그 후에들이다.

옛적에 환국(桓國)이 있었는데 부(富)하고 또 서(庶-股也)하였다. 처음에 환인님이 하늘의 피(天山=波奈留山)에 계시사 도(道)를 통하시어 늘 사시며 온몸에 질병이 없으시며 삼신하느님을 대신하시어 먹고 되게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병역(兵役)이 없게 하시니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내어 스스로 굶주림과 추움이 없게 되었다. 역시 환인(蘇胥桓仁) 고지리 환인(古是利桓仁) 주우양 환인(朱于襄桓仁) 석계입 환인(釋提桓仁) 주율리 환인(邱于利桓仁)을 전하여 지위리 환인(智爲利桓仁=智爲利-匠師)의 뜻이니 慈烏支·慈充과 동의어에 이르니 혹 가도되 단인(檀仁)이라 한다. 고기(古記)에 이르러 파내류(波奈留)의 산 밑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늘 바다(天海=北極海)의 동쪽 땅을 또한 파내류의 나라라 일컬으니 그 땅 넓이가 남북은 오만리요 동서는 이만 여러니 통틀어 말하면 환국(桓國)이요 나누어 말하면 곧 비리국(卑離國) 양운국(襄雲國) 구막한국(寇莫汗國) 구다천국(句茶川國) 일군국(一群國) 우부국(虞婁國) 一云에 單那國=피탈) 객현한국(客賢汗國) 구모액국(句牟額國) 매구여국(曷句餘國) 一云 穰多國) 사랄아국(斯納阿國) 신비국(鮮裨國) 一稱에 家奈國 或云에 通古斯國) 수밀이국(須彌爾國)이니 합하여 열두 나라(十二國)라 한다. 천해(天海=하늘 바다)는 지금 가도되 북해(北海)이다. 일곱대를 전하여 역년이 함께 삼신삼백 일년이요 혹 이르러 육만 삼천 일백 팔십 이년이라 하니 누가 옮은지는 알 수 없다.

환국의 끝에 아바지(安巴堅)께서 아레도 삼위(三危)와 태백(太白)을 내뿜다 보시고 모두 가리 인간을 널리 보람있게(弘益人間)할만 할새 물오시옵기를 누가 가리 시킬만 한가? 다섯 가(加-家)들이 가도되 「자식들의 마음(庶子)에 환웅(桓雄)이란 생자가 있어 용맹스럽고 어짐(仁)과 슬기(智)를 결합사유고 일찍부터 세상으로 널리 인간을 보람있게 할 것을 바꾸려는데 뜻이 있었어오니 가리 태백(太白-太伯)으로 보내시어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하거늘 곧 하늘의 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시고 인하여 직(勳)하여 가라사대 지금 같아서는 인간과 만물이 이미 벌써 완전히 만들어진(造完) 걸이니 군(君)은 그 수교로움을 아끼지 말고 무리 三천명을 거느리고 가서 하늘을 트고 가리 침을 세워 세상사리 다스리고 되게(開天立教弘益人間)하여 만세자손의 흥범(洪範)의 규범이 되게 할지어다.

그 때 반고(盤固)란 자가 있어서 길을 나누어 가고자 하여 칭하기를 이에 이를 윤려

그림 17. 이유립의 국역 『환단고기』 『삼성기전』 「상편」

그림 18. 이유립의 국역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

### 1) 고려가 『대배달민족사』 1권 『환단고기정해』(1987년)

이유립의 제자인 전형배가 주도하여 고려가 김낙천 사장의 지원을 받아 이유립 선생의 추모 1주기를 인 1987년에 고려가에서 『대배달민족사』 1~5권이 출간되었다.<sup>82)</sup>

『대배달민족사』 1권의 마지막에는 『환단고기정해』가 수록되어있다. 배달의숙본이 출판된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이지만, 저본이 배달의숙본인지는 인지하지 못한 채 통용이 되었다. 『환단고기정해』에는 방대한 정해正解가 들어있다. 정해正解는 『환단고기』가 시작되는 각 편의 전체에 대한 정해正解가 들어있으며, 각 편의 미주로 편집되어 있다. 이 정해正解와 더불어 본문에 괄호로 주석 설명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다. 「범례」의 정해正解는 3개, 『삼성기전』 「상편」은 65개, 『삼성기전』 「하편」 72개, 「단군세기서」는 15개, 「단군세기」는 205개, 「북부여기 상」은 54개, 「북부여기 하」는 12개, 「가섭원부여기」는 11개이다, 『태백일사』의 경우 「삼신오제본기」는 66개, 「환국본기」는 28개, 「신시본기」는 100개, 「삼한관경본기」는 60개, 「소도경전본훈」은 56개, 「고구려국본기」는 120개, 「대진국본기」는 24개, 「고려국본기」는 53개이다. 총 946개의 정해正解가 들어있다.

82)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문집출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 4. 『桓檀古記正解』 정해 구성 분석

구분		正解	비고
「범례」		미주正解 2	『환단고기』 전체 정해 1
『삼성기전』	『삼성기전』 「상편」	미주正解 64	「상편」 전체 정해 1
	『삼성기전』 「하편」	미주正解 72	「하편」 전체 정해 ×
『단군세기』	「단군세기 서」	미주正解 15	「단군세기 서」 전체 정해 ×
	『단군세기』	미주正解 204	『단군세기』 전체 정해 1
『북부여기』	『북부여기』 「상」	미주正解 53	『북부여기』 「상」 전체 정해 1
	『북부여기』 「하」	미주正解 12	『북부여기』 「하」 전체 ×
	「가섭원부여기」	미주正解 11	「가섭원부여기」 전체 정해 ×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미주正解 64	『태백일사』 전체 정해 1 「삼신오제본기」 전체 정해 1
	「환국본기」	미주正解 27	「환국본기」 전체 정해 1
	「신시본기」	미주正解 99	「신시본기」 전체 정해 1
	「삼한관경본기」	미주正解 57	「삼한관경본기」 전체 정해 1 〈마한세가 상〉 전체 정해 1 〈번한세가 상〉 전체 정해 1
	「소도경전본훈」	미주正解 55	「소도경전본훈」 전체 정해 1
	「고구려국본기」	미주正解 119	「고구려국본기」 전체 정해 1
	「대진국본기」	미주正解 23	「대진국본기」 전체 정해 1
	「고려국본기」	미주正解 52	「고려국본기」 전체 정해 1
합	총합 : 946개	미주正解 931개	正解 15개

桓檀古記正辭標辭  
 一中大道가萬機開創하야彼洋之西는乃東之洋이  
 로다地闢而久하야天開而長하야氣從天來하야人  
 生而康이로다波奈留山은三神發祥이오波奈留國  
 은桓仁宮墻이로다山屹太白이오黑水保障하야桓  
 檀聖族이億在垂芳이로다  
 神市開天하야大始增光하야熊虎殊俗이오咸來悅  
 彰이로다一伯二師는廟堂才量이오五事分職은禮樂  
 文章이로다治尤繼興하야皇武恭昌하야且淮岱恢拓  
 하야니炎黃遺藏이로다檀君開國하야且九桓歸王하  
 야시니責禍管境이巍蕩難忘이로다  
 倍達乾坤은輿治春融이오桓檀日月은和氣恢公이로

그림 19. 「환단고기정해표사」(이유립이 제자 전행배에게 써준 글씨, 1980)

## 2) 코리언북스 『桓檀古記』(1998)

단단학회 연구부의 이름으로, 코리언북스에서 『桓檀古記』 1, 2, 3,이 1998년에 출간되었다. 코리언북스의 『桓檀古記』 저본이 바로 배달의숙본이다. 코리언북스의 『桓檀古記』〈총범례〉‘2. 환단고기의 발행 의의’에서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배달의숙본이라 하지는 않았기에 세상에서는 저본이 배달의숙본이라는 인식을 못했다고 여겨진다.

신시개천 5808년 단학회檀學會 2대 회장 운초雲樵 계연수桂延壽 선생이 환단고기 필사본 30부를 홍범도洪範圖, 오동진吳東振 두 장군에게서 자금지원을 받아 출간했다. 그뒤 단학회 6대 회장 한암당寒闇堂 이유립李裕崧 선생이 신시개천 5876년 다시금 필사본 1백 부를 출간한 뒤 비로소 환단고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83)</sup>

코리언북스의 『桓檀古記』〈총범례〉에서 말하는 이유립이 5876년인 1979년에 다시금 필사본 1백부를 출간하였다는 것은 배달의숙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배달의숙본의 간기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러나 엄밀히 구분하자면 「총범례」에서 말하는 ‘비로소 환단고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배달의숙본이 아니라 광오이해사본이 출간되면서 부터이다.

83) 단학회 연구부 엮음, 『桓檀古記』, 서울: 코리언북스, 1998, 5쪽.

·神市開天 五千八百八年 光武十五年  
三月十六日 初版發行(限定版 三十部)  
·神市開天 五千八百七十六年 十月三日  
再版發行(限定版 百部)  
原著 雲樵 桂延壽  
發行 倍達義塾

코리언북스의 『桓檀古記』 1권은 역주본·장구본이며, 『桓檀古記』 2권은 인명·지명·서목 관련 기사이고, 『桓檀古記』 3권은 대배달민족사연표이다. 코리언북스의 『桓檀古記』는 원문을 장과 구로 구분함으로써 『환단고기』를 경전의 형태로 편집을 시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환단고기』의 원문을 순서대로 「범례」, 1장 『삼성기전』, 2장 『단군세기』, 3장 『북부여기』, 4장 『태백일사』, 「태백일사 발」로 구분하였다. 우선, 절과 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범례」는 절이 없이 8구로 구분하였다.

1장 『삼성기전』은 「상편」과 「하편」을 각 절로 구분하였다. 「상편」 1절은 36개, 「하편」 2절은 66개 구로 구분하였다. 2장 『단군세기』는 「단군세기서」와 『단군세기』 본문을 각 절로 구분하였다. 「단군세기서」 1절은 28개, 『단군세기』 본문 2절은 455개의 구로 구분하였다. 3장 『북부여기』는 「북부여기 상편」, 「북부여기 하편」, 「가섭원부여기」를 각기 1절, 2절, 3절로 구분하였다. 「북부여기 상편」 1절은 51개, 「북부여기 하편」 2절은 25개, 「가섭원부여기」 3절은 32개 구로 구분하였다. 4장 『태백일사』는 1절 「삼신오제본기」 100개 구, 2절 「환국본기」 34개 구, 3절 「신시본기」 211개 구, 4절 「삼한관경본기」 280개 구, 5절 「소도경전본훈」 182개 구, 6절 「고구려국본기」 278개 구, 7절 「대진국본기」 83개 구, 8절 「고려국본기」 183개 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태백일사 발」은 절 구분 없이 5개 구로 구분하였다.

코리언북스의 『환단고기』 1권은 4장, 18절, 총 2,057구로 구성되어 있다. 『桓檀古記』 2권은 인명 554개, 지명 436개, 인용목록 51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고유명사가 나오는 기사를 『환단고기』 원문 그대로 표로 정리하고 있다. 『桓檀古記』 3권은 환국 - 배달국 - 단군조선국 - 북부여국 - 고구려 - 대진국 - 고려 - 조선 -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연표를 정리하였다.

표 5. 단학회연구부 편 『桓檀古記』1 역주본 장구본(1998) 구성체계

구분	구성체계
범례	범례 8구
1장 삼성기전	1절 삼성기 상편 36구 2절 삼성기 하편 66구
2장 단군세기	1절 단군세기 서 8구 2절 단군세기 455구
3장 북부여기	1절 북부여기 상편 51구 2절 북부여기 하편 25구 3절 가섭원부여기 32구
4장 태백일사	1절 삼신오제본기 100구 2절 환국본기 34구 3절 신시본기 211구 4절 삼한관경본기 280구 5절 소도경전본훈 182구 6절 고구려국본기 278구 7절 대진국본기 83구 8절 고려국본기 183구
태백일사 발	5구
합	2,057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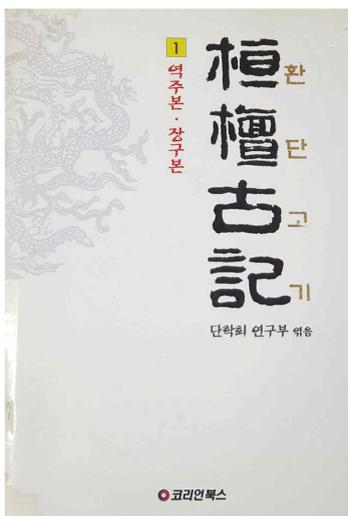


그림 20. 코리언북스 발행 『환단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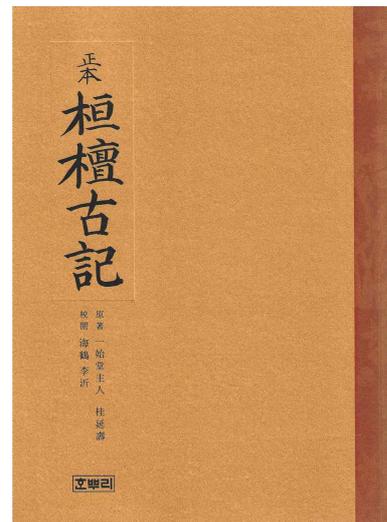


그림 21 한부리 발행 『정본 환단고기』

### 3) 한뿌리 正本 『桓檀古記』(2005)

한뿌리에서 나온 『正本 桓檀古記』는 2005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을 그대로 영인하여 출간된 것이며, 책제목에 ‘正本’이라는 글자를 넣었다. 이 책은 이유립의 제자인 오정윤이 제공하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한뿌리에서 나온 『正本 桓檀古記』의 저자관련 문구가 배달의숙본의 것과는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다. 즉 배달의숙본의 경우 『환단고기』 교열해학 이기, 원저 일시당주인 계연수’의 순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정본 『환단고기』 원저 일시당주인 계연수, 교열 해학 이기’의 순으로 바뀌어져 있다.<sup>84)</sup> 배달의숙본의 원문으로는 세상에 통용이 된 바 없기도 하거니와 통상적으로 원저자를 먼저 표기하는 관례를 따라 수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될 뿐이다.

### 4) 상생출판 『桓檀古記』 현토본(2010, 2012)

상생출판에서 『환단고기』 역주본 작업 과정에서 현토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환단고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수록하였으며, 이유립 선생이 붙인 현토를 『환단고기』 원문에 달았으며, 해석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페이지 하단에 원문에 나오는 주요한자의 뜻풀이를 표기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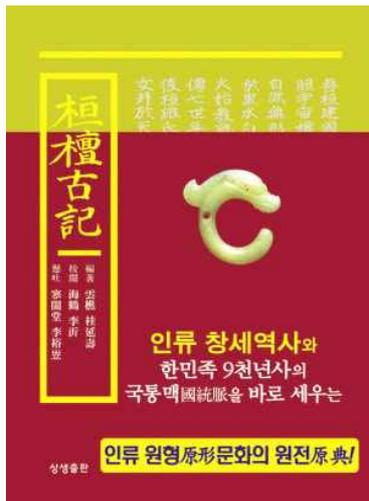


그림 22. 상생출판 발간 『환단고기』 현토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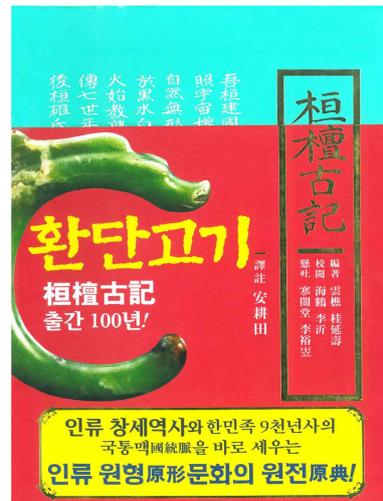


그림 23. 상생출판 발간 『환단고기』 역주본

### 5) 상생출판 『桓檀古記』 역주본(2012)

상생출판 『환단고기』 역주본(역주 안경전)이 2012년에 출간되었다. 역주자가 『환단고기』를 접한 지 30여 년 동안 연구한 끝에 번역과 주해를 단 800여쪽의 본문과 역사현장 탐방을 통해

84) 원제공자인 오정윤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는 편집상 오류로 밝혀졌다.

고증한 내용을 담은 해제가 6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자로서 『환단고기』 번역의 완결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역주자는 『환단고기』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말한다.

필자가 『환단고기』라는 한문 역사책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2년이다. 그날 밥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책을 올려놓고는 밤을 새워 다 읽었다. 우리 문화와 역사의 본래 모습에 감동받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sup>85)</sup>

『환단고기』 역주본의 해제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5부의 구성은 각기 ‘I.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II. 『환단고기』가 밝혀 주는 한국사의 국통 맥’, ‘III. 『환단고기』가 밝혀 주는 인류의 원형문화, 신교’, ‘IV. 한민족사 왜곡의 현주소 : 한국사의 뿌리 이렇게 잘려 나갔다’, ‘V. 한韓의 뿌리와 미래 : 『환단고기』 해제를 마치며’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주석이 38개 수록되어 있는데, 1부에 11개, 2부에 14개, 3부에 10개, 4부에 3개가 있다.

표 6. 상생출판 『환단고기』 역주본(2012) 구성

구분	구성체계				
해제	5부 구성(특별 주석 38개 수록)				
	1부	2부	3부	4부	5부
	11개	14개	10개	3개	
본문	본문 전체 816쪽. 원문 번역문(漢韓) 대역. 원문: 자전 찾아 수록. 번역문: 측주, 미주, 화보수록, 특별주석, 지도.				

#### 6) 행촌문화원 『桓檀古記』(2019)

행촌문화원에서 『환단고기』 번역서가 2019년에 출간되었다. 이기동 교수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환단고기』에 담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심오하고 뛰어난 철학과 사상을 접하고는 전율을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단한 철학과 사상을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죄를 지은 듯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sup>86)</sup>

85) 안경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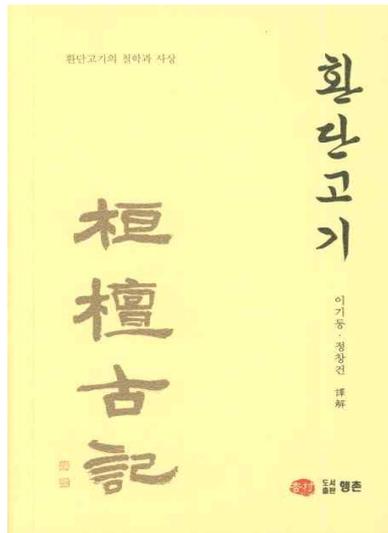


그림 24. 행촌문화원 발간 『환단고기』

#### IV. 맺음말

이상에서 1911년 초간본 『환단고기』의 출간 과정과 전수 내력, 그리고 1979년 무렵에 나온 광오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의 특징과 판본비교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환단고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여러 번역서들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단고기』의 출간과정은 대한제국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고종황제가 조선의 국호를 변경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한 광무원년(1897)에 『환단고기』가 태동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이 망해갈 무렵이던 광무13년(1909)에 삼신일체의 도(키발한의 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환단고기』를 완성하라는 스승 이기의 유촉을 받은 윤초 계연수는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대한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 해인 광무15년(1911)에 단군조선의 진한 땅인(前辰韓) 남만주 관전현에서 『환단고기』 30부를 출간하였다.

2. 『환단고기』는 환국·배달·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성조 문화를 복원하는 사서이다. 이기 선생과 계연수 선생 두 사람이 만나 처음으로 한 일이 『천부경』, 『삼일신고』, 『삼전계경』, 『태백진훈』을 ‘홍익사서’라고 정명하는 것이었다. ‘홍익사서’란 환인천제가 환웅천황에게 홍익인간을 전수하고, 여기에 일신강충, 성통광명, 재세이화를 덧붙여 배달에서 단군조선으로 전해진 염표지문, 즉 ‘一神降衷 性通光明 在世理化 弘益人間’하는 큰 법전이 되는 4가지 책을 말한다.

3. 계연수 선생은 환단 이래 고유철학사상을 탐구하여 일가견을 갖추고 있었다. 모든 사상서들을 한 번만 보고도 모두 암송할 정도로 타고난 자질이 아주 뛰어났다. 명산 승지를 찾아다니며

86) 이기동·정창근, 『환단고기』(서울: 도서출판 행촌, 2019), 5쪽.

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도사와 승려를 찾아 정진한 구도자와 같은 인물이었다. 집안에 전해져오는 안함로의 『삼성기』가 있어 환국·배달·조선·북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국통맥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계연수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다. 성장호의 『해동인물지』에서는 “기미년(1919)에는 이상룡의 군정부軍政府 소속으로 들어가 군사작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고 기록하였다. 단학회의 항일독립전쟁 정신은 ‘朝鮮人の十寶章’<sup>87)</sup>에 잘 나타나 있다. 계연수 선생을 비롯하여 단학회 단원들 모두가 항일독립 무장전선에 뛰어들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던졌다.

5. 해학 선생의 『환단고기』의 감수가 1987년 광무원년으로부터 시작되어 1911년 광무15년에 이르러 계연수 선생이 『환단고기』 초판본을 발간하였다.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시점에 환국·배달·조선의 삼성조 역사를 복원하는 『환단고기』의 감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환단고기』 발간사업은 광무원년으로 시작되어 15년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광무15년인 1911년에 마침내 『환단고기』가 출간되었던 것이다.

6. 1911년 『환단고기』를 출간하기 이전에 선행 작업으로 단행본 출간 과정이 있었다. 계연수 선생은 광무2년인 1898년에는 『단군세기』와 『태백진훈』, 광무3년인 1899년에는 『참전계경』, 『태백일사』, 『천부경요해』 등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7. 『환단고기』는 스승의 유촉에 의해 출간이 되었다. 『환단고기』는 계연수 선생이 개인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삼신일체의 도는 나라가 망했다고 그만 둘(廢) 수 없고, 나라는 반드시 삼신일체의 도가 있어야 흥하나니 마땅히 그대는 힘쓰라.”는 스승의 유촉을 받고부터 오로지 『환단고기』 편찬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으며, 그 결실로 『환단고기』가 출간이 되었던 것이다.

8. 1949년부터 1979년 『환단고기』의 출간과정에서 오형기가 3번의 정서를 했다. 1949년 이유립의 부탁으로 1차 정서를 하였고, 1979년 조병윤의 부탁으로 2차 정서를 하였으며, 이것

87) 단학회에서는 1919년 3월 16일에 ‘朝鮮人の十寶章’을 발표하였다. 『檀學會略史』③, 《커발한》 15호(대전: 단단학회, 1969년 1월), 5면.

- ① 우리는 조선인이다. 세계인류와 함께 평등하며 신앙,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버릴 수 없다.
- ② 우리는 환웅천황님이 처음 태백산으로 천강하옵신 목적과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 ③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과 주장이 좌절될 수 없다.
- ④ 우리는 조국의 주권과 국토의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의 일체 행동을 방관할 수 없다.
- ⑤ 우리는 일본의 무력 침략과 또 그에 방조하는 구미열강들의 외교사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⑥ 우리는 모든 파당과 차별을 초월하여 오직 항일투쟁의 통일강화에 전력하지 않을 수 없다.
- ⑦ 우리는 국권회복의 목표를 세우고 오직 현실의 지평선에서 모든 물질과학의 전문 분야를 하나에의 길로 이끌어서 먼저 민족의식의 귀일을 사회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 ⑧ 우리는 적의 어떠한 굴욕과 속박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정확한 판단을 갖고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 ⑨ 우리는 끝까지 국토를 지키면서 조선인이 먼저 외국의 침략세력에 대한 치욕의 역사와 오늘의 비참한 생활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다.
- ⑩ 우리는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백두산을 향하여 염표문念標文을 외우고 가족과 함께 전곡사백錢穀絲帛의 저축으로 항일운동을 돕지 않을 수 없다.

이 『환단고기』 광오이해사본의 저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3차 정서는 1979년 이유립이 『환단고기』 정본을 만들기 위해 부탁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의 저본이 되었다.

9. 1979년 광오이해사에서 출간한 『환단고기』는 영인본이 아니다. 1911년 초간본이 출간되기 전에도 계연수 선생의 정서를 통해 『환단고기』가 출간이 된 바가 있었다. 1979년의 광오이해사에서 출간될 당시에도 오형기의 정서본을 저본으로 출판이 되었다. 또한 『환단고기』의 정본인 배달의숙본 역시 오형기의 정서를 바탕으로 출판이 된 것이다.

10. 『환단고기』를 정서한 오형기도 대단히 학식이 높은 한학자였다. 해남에서 출생한 오형기는 어려서 약헌 조종근과 겸산 홍치유의 문하로 학문을 배웠다. 해남에서 ‘해양서당’을 운영한 한학자였으며, 해남향교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광주향교에서도 활동을 하였다. 호남의 대표적인 한학자인 산암 변시연, 만취 위계도 등 당대 한학자들과 교류를 할 정도로 학문적 소양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11. 『환단고기』가 발간이 될 때는 역사의식을 가진 지식들의 재정적 도움이 있었다.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이 발행될 때는 흥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의 재정지원이 간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79년 광오이해사본은 광오이해사 박기엽 사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단고기』 고급판과 보급판을 비롯한 4종이 간행되었다. 이후 배달의숙본은 이석영李錫暎(1920~1983)<sup>88</sup>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될 수 있었다.

12. 『환단고기』 배달의숙본은 광오이해사본의 오류를 수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배달의숙본은 1911년에 배달의숙에서 간행한 계연수가 엮은 『환단고기』 초판본의 재판으로서, 원저자를 계연수로 표기함으로써 『환단고기』 정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유립 정해를 넣은 주석서인 『환단고기정해』도 배달의숙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고 암흑 속에 빠진 이 나라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었다. 평생을 환단역사 복원을 위해 일로 매진한 계연수 선생이 스승의 유족을 받고 천 년에 걸쳐 다섯 사람이 쓴 안함로의 『삼성기』·원동중의 『삼성기』·이암의 『단군세기』·범세동의 『북부여기』·이맥의 『태백일사』를 합본하여 환국·배달·조선의 삼성조의 역사를 복원하는 사서인 『환단고기』가 1911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讀書百遍而義自見’<sup>89</sup>이라는 말이 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백번하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의미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환단고기』를 반복해서 읽다보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환단고기』에서 전하는 참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환단역사의 진면목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88) 단단학회 회원인 이석영은 『四柱捷經』의 저자이다. 이석영의 후원으로 강화도 부지 매입되었으며, 단단학회의 재정적 후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9) 『三國志』, 「鍾繇華歆王朗傳」 裴松之 주석에 나오는 말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곽가지마 노부루, 『桓檀古記』, 일본 (주)신국민사, 1984.
- 계연수, 『광명장』, 1917.
- 계연수, 『正本 桓檀古記』, 서울: 한뿌리, 2005.
- 계연수, 『桓檀古記』 현토본, 대전: 상생출판, 2010, 2012.
- 계연수, 『환단고기』(배달의숙), 서울: 단단학회, 1979.
- 김은수, 『桓檀古記』, 서울: 가나출판사, 1985.
- 단단학회, 『환단고기』(고급선장본), 서울: 광오이해사, 1979.
- 단단학회, 『환단고기』(보급선장본), 서울: 광오이해사, 1979.
- 단단학회, 『환단휘기』, 대전: 단단학회, 1971.
- 단학회 연구부 엮음, 『桓檀古記』, 서울: 코리언북스, 1998.
- 성장호, 『해동인물지』 乾 坤, 대전: 회상사, 1969.
- 송호수, 『한민족의 뿌리사상』, 국학연구소, 1983.
-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본, 대전: 상생출판, 2012.
- 安東濬 林承國 共著, 『韓國古代史管見』, 景仁文化史, 1978, 91쪽.
- 양중현, 『百年의 旅程』, 대전: 상생출판, 2009.
- 禮安李氏大宗會族譜刊行委員會, 『禮安李氏族譜』卷之上, 대전: 회상사, 2007.
- 윤창대, 『정신철학통편: 전병훈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중심으로』, 서울: 우리출판사, 2004.
- 李固善, 『心堂全書』, 1981.
- 李固善, 『弘益大典』, 1952.
- 이기동·정창근, 『환단고기』, 서울: 도서출판 행촌, 2019.
- 이문영, 『유사역사학 비판』, 서울: 역사비평사, 2018.
- 이유립, 『대배달민족사』(一~五), 서울: 고려가, 1987.
- 이유립, 『거발한문화사상사』 2권, 대전: 단단학회, 1976.
- 임승국, 『환단고기』, 서울: 정신세계사, 1986.
- 전면조, 『全氏總譜總錄』, 경성: 전씨대동종약소, 1931.
- 전병훈 저·임채우 역, 『완역 정신철학통편』, 서울: 인월담, 2021.
- 全秉薰, 『精神哲學通編 上·下』, 北京, 精神哲學社, 1920(명문당 영인, 1982).
- 全秉薰, 『精神哲學通編』 券一, 「東韓神聖檀君天符經 註解緒言」(중국: 북경, 1920)
- 陳壽, 『三國志』 「魏志 東夷傳」

- 한영우·이익주·윤경주·염정섭 공저,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 일지사, 2002.

(논문)

- 계연수, 「文貞公杏村李先生遺事」, 1897.
- 김철수·전재우, 「계연수의 『천부경』 이해-『천부경요해』와 『천부경도해』 분석-」, 『가야사 광복으로 역사문화혁명을 시작한다』 제4권 천부경분과 국제분과, 2022.
- 김철수·전재우, 「오형기의 『환단고기』 발문에 대한 고찰-『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니다!-」, 『국경사 연구로 반도사관을 혁명한다』 환단고기분과1, 2023.
- 단단학회, 「키발한」 창간호, 제13~17호, 47호, 60집, 1965, 1968~1970, 1975, 1982.
- 윤창열, 「운초 계연수의 생애, 사상 및 업적」, 『2020년 세계환단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20.
- 이문영, 「『환단고기』의 성립 배경과 기원」, 『역사비평』 (통권 제118호)2017년 봄호, 역사비평사, 2017.
- 이문영, 「환작(幻作)된 『환단고기(桓檀古記)』」, 『韓國史學史學報』 38, 2018.
- 임채우, 「전씨문중자료를 통해본 전병훈의 생애에 대한 고증 연구」, 『도교문화연구』 22, 서울 : 韓國道教文化學會, 2005.
- 장 신, 「유교청년 이유립과 환단고기」, 『역사문제연구』 39, 2018.
- 장 신, 「이유립의 계연수 날조기(捏造記)」, 『역사와현실』 (115), 2020.
- 장영주, 「『환단고기(桓檀古記)』 성립 과정-내용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17.
- 전재우, 「광명장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원대학교, 2024.
- 趙仁成, 「『揆園史話』와 『桓檀古記』」, 『韓國史市民講座』 2, 1988.
- 조인성, 「『桓檀古記』의 『檀君世紀』와 『檀奇古史』·『揆園史話』」, 『단군학연구』 제2호, 2000.
- 趙仁成, 「韓末 檀君關係史書의 再檢討 《神檀實記》·《檀奇古史》·《桓檀古記》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제3집, 1989.
- 조인성, 「구원사화(揆園史話)·단기고사(檀奇古史)·환단고기(桓檀古記)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5호, 2017.
- 한영우, 「杏村 李崑과 《檀君世紀》」, 『한국학보』 25권 3호, 1999.

## 환단고기란 어떤 사서인가에 대한 논평문

안병우(충북대학교)

전재우 선생님이 발표한 ‘환단고기는 어떤 사서인가?’ 라는 연구발표는 환단고기에 대한 일부 강단사학계의 집요한 위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판단된다. 환단고기의 출간과 관련하여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이며, 이러한 종류의 논문이 왜 진작에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위서론의 첫 번째 메뉴로 등장하는 환단고기 편찬자 운초 계연수 선생의 실존성 문제를 이기 선생과의 관계 형성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기 선생의 유촉에 의하여 환단고기가 출판되는 속사정을 합리적으로 해명하였다. 특히, 임종 전에 운초의 손을 잡고 道不可以國亡而廢오 國必以有道而興하나니 惟君勉哉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기 선생이 제자에게 유촉한 내용인 즉, 우선 해석이 만만치 않다. 직역을 한다면, ‘도는 나라가 망해도 폐지할 수 없고 나라는 반드시 도가 있어야 흥하니 그대는 힘쓸지어다’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도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막연해서 해석이 쉽지 않은데 발표자께서는 이것을 ‘삼신일체의 도’라고 했다. 그 근거로서 환단고기 도처에 나오는 삼신일체의 가르침과 도에 관한 기술내용을 들고 있고 동시에 단학회 3대 강령에 나오는 제천보본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발표자는 ‘삼신일체의 도는 나라가 망했어도 그만둘 수 없고, 나라는 반드시 삼신일체의 도가 있어야 흥하나니 그대는 힘쓰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것이 환단고기를 속히 편찬하라는 스승의 뜻이 담긴 것이라면 삼신일체의 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편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즉 환단고기를 편찬해야 삼신일체의 도가 회복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대단한 발상이지만 언뜻 수궁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운초 선생이 생각하는 환단고기는 삼신일체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 되는데 환단고기를 나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도 환단고기에서 전하고 있는 삼신일체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삼신일체의 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삼신일체의 도가 회복이 되어 나라가 흥하게 되는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싶다.

환단고기가 1911년에 출간되기 전에 이미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비롯하여 태백진훈, 천부경요해 등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는 것은 위서론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이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 사실이 단학회약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당시에 발간된 책이 전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런 사실을 전하는 증언내용은 없는지 궁금하다.

또한 환단고기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환단고기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오해도 많이 있었던 바, 광오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 환단고기의 차이점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과 배달의숙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분석은 단연 돋보이는 연구결과라고 생각된다.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이유립 선생을 들 수 있지만 오형기 선생도 그에 못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원본을 분실했음에도 환단고기가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오형기의 필사라는 중요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오형기 선생의 실존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논문의 큰 업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오형기의 생애를 많이 밝혀냈고, 특히 아들과 며느리를 통한 오형기의 삶의 단면을 알게 해준 것은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다.

연구자께서는 오형기 선생이 적어도 3번의 필사를 했다고 했는데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확신 하고 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환단고기의 전수과정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의 하나로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개인적으로는 3번 이상의 필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필사에 대한 사실은 1949년에 이유립 선생의 부탁으로 필사를 했다고 광오이해사본의 말미에 붙어 있는 환단고기발문의 내용에 기록이 있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발표자가 주장하는 1979년 무렵 광오이해사본의 출판을 위한 2차 정서, 배달의숙본 출판을 위한 3차 정서는 어떤 문서상의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추론한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단고기 발문을 광오이해사본에 붙임으로써 이유립 선생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1949년 필사본에는 환단고기 발문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글자수에 있어서 광오이해사본은 48,806자, 배달의숙본은 48,164자로 광오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 간에 차이가 나는 글자 수가 642자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광오이해사본에서 오류와 누락된 결과라고 했는데 광오이해사본의 글자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누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된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1922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교과서 『倍達族歷史』 발간과 그 역사적 의미

임찬경\*

- I. 서론
- II.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한 『倍達族歷史』의 간행과 그 실체
- III. 『倍達族歷史』 발간의 역사적 의미
- VI. 결론

【주제어】 민족, 배달(倍達), 배달족(倍達族), 대한민국임시정부, 국사교과서, 민족사

【요약문】 1922년 1월 중국의 상해에서 『倍達族歷史』란 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초등학교의 역사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倍達族歷史』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몇 연구에서 그 책의 이름과 간단한 내용이 언급되긴 했지만, 그 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倍達族歷史』를 썼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책에 담긴 배달족의 역사라는 것이 그 책이 출간되던 당시나 현재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한 『倍達族歷史』 발간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 서론

『倍達族歷史』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1922년 1월 15일에 간행한 역사교과서이다. 『倍達族歷史』는 그 목차에서 스스로 ‘배달족교과서’라는 그 책의 특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듯, 배달족(倍達族)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로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책이다.

1926년 7월 8일 간도(間島) 총영사(總領事)가 발송한 기밀문서에는, 만주의 화룡현(和龍縣) 이도구(二道溝)에 있는 용흥학교(龍興學校)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던 『倍達族歷史』를 일제가 압수한 상황이 보인다. 이 문서에 의하면, 『倍達族歷史』는 상해(上海)에서 발행되었으며, 독립을 고취하는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sup>

\* 국학연구소 연구원, 역사학 박사

1) 間島總領事 鈴木要太郎, 「大正十五年六月中間島及接壤地方治安情況」, 1926. 7. 8.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4년 즉 1922년 1월 15일에 인쇄된 『倍達族歷史』의 판본(板本)에는 김헌(金獻)이 편찬했고, 가격이 4각(角)이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1924년 4월 10일에 발행된 『倍達公論』에 실린 신간서적 광고에 의하면, 당시 『神檀民史』의 가격이 1원3각이었고, 『史誌通俗放』는 5각이었으며, 『獨立運動史』(上卷)는 8각이었고, 『李舜臣傳』은 3각이며, 『高麗史歌』는 6각이었다.<sup>2)</sup> 이처럼 상해에서는 『倍達族歷史』 등의 서적들이 유통되었던 것이다.

『倍達族歷史』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사항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몇몇 연구에서 그 책의 이름과 간단한 내용이 언급되지만, 지금까지 그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연구는 없었다. 그 책이 배달족(倍達族)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 실제로 그 배달족의 역사라는 것이 그 책이 출간되던 당시나 현재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연구된 적이 전혀 없는 것이다. 『倍達族歷史』가 작성된 배경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한 『倍達族歷史』 발간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한 『倍達族歷史』의 간행과 그 실체

역사교과서 특히 국사교과서는 각급 학교에서 정규 과목의 주요 교재로 쓰는 국사 관련 교재를 말한다. 국사교과서의 간행은 정규적인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사교과서를 간행한 역사는 지금부터 오래지 않은 과거인 근대에 시작되었다.

근대 이전의 시기에도 역사를 교육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별도의 역사교과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초중 교과서에 해당하는 『童蒙先習』을 통해 역사를 가르쳤지만, 이 책은 역사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

『동몽선습』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아동용 학습서인데, 전체적 구성은 유학적(儒學的) 이론 도덕을 담고 있는 '경(經)'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해 놓은 '사(史)'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역사 부분은 장황한 중국 역사를 서술한 뒤에, 단군-기자-위만(한사군)-마한(삼한)-신라(삼국)-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 역사는 “궁벽한 반도(半島)” 그중에서도 ‘평양’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대적인 ‘소중화(小中華)’ 의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목적도 사대적인 ‘소중화’의 교육과 양산에 있었다.<sup>3)</sup> 이 책의 내용은 '경(經)'이 중심이고, '사(史)'는 부차적인 것이어서, 역사교과서로 볼 수 없다.

조선시대를 완전하게 지배하며 그 사회의 사대와 식민을 지속시켜왔던 ‘소중화’ 의식의 교육 교재인 『동몽선습』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倍達公論』第四號(三一紀念號), 大韓民國六(紀元四二五七)年四月十日發行. 이 『倍達公論』의 다른 글에 의하면, 당시 1각(角)이란 애주가(愛酒家)들이 흔히 마시는 고량주(高粱酒) 1병의 값이라 한다. 이를 통해 책값의 상대적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3) 韓永愚, 『朝鮮前期 史學史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256쪽.

명(明) 태조 고황제(高皇帝)가 국호를 조선이라고 고쳐 내리자 한양에 도움을 정하여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자손들이 끊임없이 계승하여 거듭 빛내고 여러 차례 스며들어서 지금에 이르니 실로 만세토록 끝없을 아름다움이로다. 아! 우리나라가 비록 궁벽하게 바다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어 영토가 좁지만 예악법도와 의관문물을 모두 중화의 제도를 따라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고 교화가 아래에서 시행되어 풍속의 아름다움이 중화(中華)를 방불하였기 때문에 중화인들이 우리를 소중화(小中華)라고 일컬으니 이 어찌 기자(箕子)가 끼쳐준 교화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 너희 소자(小子)들은 의당 보고 느껴서 흥기(興起)할지어다.<sup>4)</sup>

## 1. 근대 학교의 설립과 국사교과서의 간행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는 1883년 함경남도 원산에 세워진 원산학사(元山學舍)이다.<sup>5)</sup> 그 이후 전국 각지에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침략적 외세를 극복하고 또 사회 전반을 변혁시키려 했던 동학운동(東學運動)으로 촉발된 1894년 음력 7월부터의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의해 관학(官學)이 설립되고 또 민간의 선각자들에 의한 사립학교들이 연이어 설립되었다.<sup>6)</sup>

학교의 설립에 따른 교과(教科)의 운영을 위해, 교과서 저술과 간행도 연이어졌다. 갑오개혁에 따른 학교의 교과 구성에서 국사는 필수 과목이 되었고,<sup>7)</sup> 각 시기의 정부에서는 국사교과서를 간행하였다.

1894년 음력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의 갑오개혁(甲午改革) 시기에는 『朝鮮歷史』, 『朝鮮歷代史略』, 『朝鮮略史十課』 등이 간행되었다. 1897년 8월 이후인 대한제국의 광무개혁(光武改革) 시기에서 통감부(統監府)의 검인정 제도 시행 이전에는 『大韓歷代史略』, 『東國歷代史略』, 『普通教科東國歷史』, 『東史輯略』, 『歷史輯略』, 『大東歷史』, 『中等教科東國史略』, 『普通教科大東歷史略』, 『新訂東國歷史』, 『國朝史』 등이 간행되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 이후 통감부의 교과서 검인정(檢認定) 제도가 실시된 1906년 이후부터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大韓歷史』, 『대한력스』, 『初等本國歷史』, 『初等大韓歷史』, 『초등대한력스』, 『大東歷史略』, 『初等大東歷史』, 『初等本國歷史』, 『初等本國略史』, 『新選初等歷史』, 『新撰初等歷史』 등의 역사교과서가 저술되었다.<sup>8)</sup>

위의 교과서 중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 이후 검인정 제도의 실시에 따라 발간된 교과서로부터 일제의 한국사 왜곡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한제

4) 『童蒙先習』

5) 慎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제10호, 한국사연구회, 1974, 192쪽.

6)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金秉和, 「우리나라 近代教育의 構相과 그 制度 및 政策에 관한 研究」 『師大論叢』 第16輯, 서울대학교, 1977.

7) 金興洙, 「韓國 近代國史教育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참조.

8) 梁正鉉, 「近代 改革期 歷史教育의 展開와 歷史教材의 構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001, 56쪽.

국의 외교권을 일제에 넘기는 것과 일제가 대한제국을 실제로 통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이 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일제에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명목(名目)은 ‘보호국’이지만 사실상 일제의 반식민지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의 국사교과서 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을 미화하거나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는 서술, 그리고 우리역사의 자주성이 부정되는 서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통감부는 검인정 제도를 통해,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 및 통제할 수 있었다.<sup>9)</sup>

1910년 8월 한국강제병합조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강제하였다. 역사 교육은 일본사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때부터 국사는 일본사를 의미했으며, 우리역사는 조선사(朝鮮史)로서 지역사(地域史)의 위치로 전락하였다. 각급 학교에서 조선사 교육은 완전히 철폐되고, 중등학교에서 일본사 교육이 역사 교육으로 진행되었다.<sup>10)</sup> 일제강점기에 공식적으로 우리역사를 가르치는 국사교과서의 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 2.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사교과서 편찬 시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지자,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중단되었던 정부차원의 국사교과서 편찬 및 간행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선포한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의 제7조는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여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여 國際聯盟에 加入함”이다.<sup>11)</sup> 여기서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무엇인지는 1941년 11월 28일 조소앙(趙素昂)이 작성하여 공포된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의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의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 하면 興邦保泰平」 하리라 하였다 이는 社會各層 各級이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享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며 太平을 保維하리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sup>12)</sup>

조소앙이 1919년 4월에 그 초안을 작성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7조에서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그 당시 그가 지녔던 민족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에 인용한 1941년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조소앙은 “우리나라의 建國精神은 …弘

9) 金興洙, 「韓末 歷史教育 및 教科書에 관한 研究」 『역사교육』 29, 역사교육연구회, 1981, 참조.

10)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resources/front/html/txt/hj\\_p\\_02.html](http://contents.history.go.kr/resources/front/html/txt/hj_p_02.html) 참조

11)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4. 11.

12)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建國綱領>, 1941. 11. 28.

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을 명백히 밝혔다. 즉 조소앙이 1919년 4월에 초안을 마련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에 명시된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바로 배달민족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건국이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개천절과 어천절 행사를 주관하였고, 각종의 정부 관련 문헌에서 단군을 그 뿌리로 하는 민족주의를 분명하게 천명할 수 있었다.<sup>13)</sup>

위와 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의식은 그를 널리 알리고, 또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었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의 정부 수립 이후 그 정부의 건국정신과 그에 따른 정통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우리민족 성원에 대해 그를 교육하려는 정책적인 시도들을 해나갔던 것이다.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5조는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이다. 이에 따르면, 납세 및 병역의 의무와 함께 교육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1919년 4월 25일에 발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大韓民國臨時政府章程)>에는 내무부(內務部) 아래에 학무국(學務局)을 두어 교육업무를 맡도록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第43條 學務局은 下關事務를 掌理함

1. 神化宣傳에 關한 事務
2. 普通教育에 關한 事務
3. 專門教育에 關한 事務
4. 編輯에 關한 事務<sup>14)</sup>

위에 열거한 학무국의 업무 중 제1항의 “神化宣傳에 關한 事務”란 국내외에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려 국가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강인한 민족의식을 키워 우리민족의 연대감을 굳건히 할 목적의 선전 사무일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또한 제4항의 “編輯에 關한 事務”란 다른 3항 사업에 필요한 경우의 문서나 저작물 등의 작성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배달족역사』와 같은 책을 출판할 체제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 3. 1922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倍達族歷史』 간행 과정

1920년대에 들어서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무교육제를 기본정책으로 천명하고, 그 실행

13) 이현희, 「제2장 단군인식의 통사적 해석과 향후 과제」 『민족사상』1(1), 2007, 63~69쪽.

14)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臨時政府章程>, 1919. 4. 25.

15) 이명화,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教育政策과 活動」 『역사와 실학』12, 1999, 449쪽.

업무로서 우선 교과서 편찬과 서적 간행을 통해 독립적인 교육교재를 발행하며 또 교재를 통일하고자 했다. 교육의 정상적 진행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과서 및 교재의 편찬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일제가 한말(韓末) 이래로 민족의식을 담은 우리의 역사와 지리 및 국어 교과서는 물론 일반 서적도 불온서적으로 분류하여 철저히 단속 및 압수하고, 그 대신에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까지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교과서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식민교육을 조장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했다.<sup>16)</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로서 『倍達族歷史』가 발간된 것이다.

이 『倍達族歷史』가 발간될 당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웠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21년 3월 중순에 상해로 온 김승학(金承學)은 안창호(安昌浩)를 통해 프랑스 영사관과 교섭하여 그 이전에 봉쇄되었던 독립신문사와 삼일인쇄소(三一印刷所)를 4월 중순에 부활시켰다. 그 이후 김승학이 독립신문사의 사장이 되어, 신문사의 조직을 재편하였는데, 주필은 박은식(朴殷植)이 맡았고 편집장은 차리석(車利錫)이 맡았다.

이때 독립신문사의 부차적 사업으로 교과서편찬위원회를 부설(附設)하고 박은식, 조완구, 윤기섭(尹基燮), 김두봉(金斗奉), 정신(鄭信), 차리석, 백기준(白基俊) 등과 함께 김승학이 책임을 분담하여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편찬할 때 초등과(初等科) 교과서는 한자(漢字)를 1,500자 이내로 제한하고, 중등과(中等科) 교과서는 한자를 2,500자 이내로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시켰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초등과 교과서는 완성되었으나, 경비 문제로 인쇄하지는 못했다고 한다.<sup>17)</sup>

김승학이 주도하던 당시의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1922년 1월 15일의 『倍達族歷史』 출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위에 언급한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 ① 『倍達族歷史』는 1922년 1월 15일 상해의 삼일인쇄소에서 간행되었다.
- ② 『倍達族歷史』는 1921년 4월 중순 이후에 독립신문사의 교과서편찬위원회에 의해 그 편찬이 시작되었다.
- ③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편찬 실무를 담당한 인물들은 박은식, 조완구, 윤기섭, 김두봉, 정신, 차리석, 백기준 등과 함께 김승학이다.
- ④ 「亡命客行蹟錄」에 의하면, 김승학은 소련에서 열리는 전세계혁명단체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21년 9월 중순에 상해를 떠났고 1922년 3월에야 상해로 돌아왔으므로,<sup>18)</sup> 김승학

16) 이명화, 위의 논문, 455쪽.

17) 金承學 著/김병기 정리, 「亡命客行蹟錄」 『한국독립운동사연구』12, 1998, 427~431쪽.

18) 金承學 著/김병기 정리, 위의 글, 430~431쪽.

이 『倍達族歷史』 등의 교과서 편찬 실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倍達族歷史』가 출간되는 시점에 김승학은 상해에 없었다.

⑤ 교과서편찬위원회에 의해 초등과 교과서가 완성은 되었지만 경비 문제로 출간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倍達族歷史』 등만이 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⑥ 『神檀民史』의 간행을 광고한 『독립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희산(希山) 김승학은 독립신문사와 삼일인쇄소의 사장으로서 1923년 7월 무렵 발행된 『神檀民史』의 편수(編修) 및 발행인이었다.

⑦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김승학은 여러 사정으로 봉쇄되었던 독립신문사와 삼일인쇄소를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교과서편찬위원회를 주도하여 1922년의 『倍達族歷史』의 간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1923년 7월 무렵 김교헌이 완성한 『神檀民史』가 발간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 4. 『倍達族歷史』의 간행 주체 및 저자

현재 볼 수 있는 『倍達族歷史』의 판본(板本)에는 김헌(金獻)이 편집했고, 그 출판의 시점은 “대한민국4년 1월 15일”이라고 기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獨立新聞)』에도 『倍達族歷史』가 편집인 김헌의 명의로 1922년 1월 5일에 발행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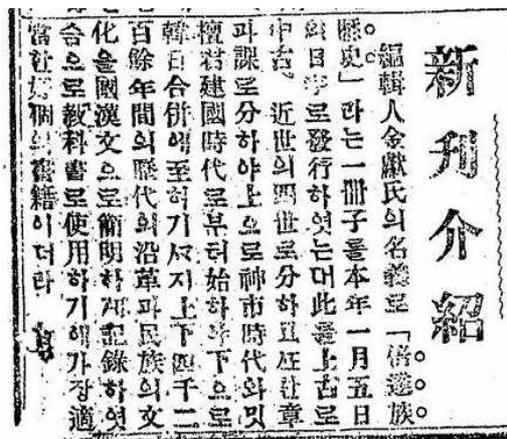


그림 1.] 『倍達族歷史』의 출간을 전하는 『독립신문』의 기사<sup>19)</sup>

위의 기사에서 김헌을 저자가 아닌 편집인으로 하여, “編輯人 金獻氏의 名義”로 『倍達族歷史』를 출간하였다고 밝힌 점이 특히 주목된다. 사전적으로 ‘명의(名義)’는 “어떤 일에 공식적으로

19) 『新刊介紹』 『獨立新聞』(1922. 3. 31)

내세우는 문서상의 이름 혹은 어떤 집단이나 기관 또는 개인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이름”이므로, 일반적으로 “누구의 명의로 출판한다.”고 말할 때, 그 ‘누구’가 꼭 그 책의 저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倍達族歷史』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사에 부설된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神檀民史』가 1904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면서, 『倍達族歷史』는 “『神檀民史』를 간략하게 줄거리만 간추려서 만든 축소판”이라는 연구도 있다.<sup>20)</sup> 그러나 『神檀民史』의 제2편 제5장에 백제의 금동불상이 언급되는데, 이 금동불상의 발견 연대가 1915년이고, 당연히 『神檀民史』는 1915년 이후의 시기에 저술된 것이며, 또한 1914년에 완성된 『神檀實記』와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볼 때, 『神檀民史』는 현재 전해지는 판본처럼 1923년에 처음 완성 및 간행되었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sup>21)</sup> 그런데 『神檀民史』에 서술된 역사서술은 전적으로 대중교의 역사관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神檀民史』의 완성 시점은 1909년의 대중교 증광(重光) 이전인 1904년일 수가 없고, 『神檀民史』가 1910년 대중교가 제정한 개천(開天) 연호를 쓰고 있는 점으로 보거나, 또는 여러 서지(書誌) 정보를 비교하면 현재로서는 『神檀民史』가 1923년에 완성 및 출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923년 7월 21일자 『독립신문』의 『神檀民史』 간행 관련 광고에도 “茂園金教獻先生은 史學의 獨步이심을 全民族이 推許하는바 自來 十餘星霜을 우리 歷史에 全精彈神하여 今에 神檀民史라는 秩巨述備의 無二宗史가 璧完되었기”에 출간했다고 밝히고 있다.<sup>22)</sup> 이 기사를 보면 『神檀民史』는 “今 즉 1923년 7월 무렵에 완성되어 출간된 것이다.

이처럼 『神檀民史』의 출간 시점을 1923년으로 판단했을 때, 1946년에 중간(重刊)된 『神檀民史』의 「중판서언(重板序言)」에 “宗師의 著作하신 史書로 倍達族歷史는 去繁取要하여 小學生의 教科用으로 되어 刊行하였던 것이오.”라는 부분을, 마치 『倍達族歷史』가 『神檀民史』를 요약하여 출간한 것처럼 해석 2분명하게 나타난다. 김교헌이 1923년에 작성한 「범례」에는 “원편(原編)의 기사는 개천갑자(開天甲子)에서 시작하여 4351년 갑오경장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속편(續編)에 기록하기로 한다. 원편에서 빠졌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증편(增編)에, 원편과 속편에 다 쓰지 못할 것을 보편(補編)에 기록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23)</sup> 이 「범례」를 보면, 1923년에 완성되어 현재 전해지는 『神檀民史』는 일종의 ‘미완(未完)’의 책인 것이다. 『神檀民史』의 저자인 김교헌은 그 책에 이어, 1895년의 갑오경장 이후 시기를 서술하는 『속편』과 『神檀民史』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증편』 그리고 전반적인 보완을 거친 『보편』을 작성하려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저자인 김교헌은 1923년 11월 18일 사망하였고, 『神檀民史』에 뒤이은 여러 책들의 저작 및 출판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미완의 책인 『神檀民史』를 요약한 책으로서의 『倍達

20) 金正坤, 「金教獻 民族史學의 精神의 背景」 『國學研究』 第4輯, 1998, 14~19쪽.

21) 李道學, 「大倮教와 近代民族主義史學」 『國學研究』 第1輯, 1988, 66~69쪽.

22) 「神檀民史刊行廣告」 『獨立新聞』(1923. 7. 21)

23) 金教獻 著 高東永 譯, 「범례(凡例)」 『신단민사』, 흥부리, 1986, 3쪽.

族歷史』가 출판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倍達族歷史』의 간행 주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분명하게 파악된다.<sup>24)</sup> 대종교는 1910년 9월 27일에 개천(開天) 연호(年號) 제정을 포함한 <의식규례(儀式(規例))>를 공포하였는데,<sup>25)</sup> 이에 따라 그 이후 작성된 대종교의 문건이나 저작에 대부분 개천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倍達族歷史』가 편집자 개인이나 혹은 대종교 측에서 출간한 것이라면, 그 출판 일은 당연히 개천 연호에 따라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倍達族歷史』의 맨 뒷면에 “대한민국 4년 1월 15일”이라고 임시정부의 문서에 기록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倍達族歷史』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역사교과서로 작성한 책으로 판단된다. 위에 소개한 [자료 1]에 보이듯,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기사에 “教科書로 使用하기에 가장 適當한” 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倍達族歷史』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역사교과서로 간행되었음이 분명한 것이다.<sup>26)</sup>

### Ⅲ. 『倍達族歷史』 발간의 역사적 의미

책 이름에서의 배달(倍達)이란 용어는 1909년 초에 설립된 대종교(大宗教)란 종교단체의 문건인 「단군교포명서(檀君教佈明書)」와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檀君教五大宗旨佈明書)」를 거치며 정립된, 말 그대로 철저히 대종교적인 용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종교란 종교적 색채가 짙은 이 배달이란 용어는 1910년대 초부터 우리민족 사이에 널리 퍼졌으며, 1910년대 말 이후에는 그 종교적 색채를 넘어서서 우리민족 구성원 전체가 우리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근대의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을 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 ‘저항적 민족주의’를 발견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단군(檀君)을 발견하였다. 독립운동에 민족 구성원 다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단군이란 민족적 동원력이 강한 역사적 소재를 찾았던 것이다.<sup>27)</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 1910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의 우리민족에게 그 민족정신과 역사의 구심점으로서의 단군에 대한 존숭(尊崇)은 종교 등 그 어떤 이념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또 배타적일 수 있는 종교와 그 어떤 이념을 넘어서서, “우리민족은 단군의 자손인 배달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은 1910년 이후의 망국(亡國)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독립과 자주국가 건설의 꿈을 배태(胚胎)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민족적 역량을 형성시키는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다.

24) 金正坤, 「金教獻 民族史學의 精神의 背景」 『國學研究』 제4輯, 1998, 19쪽.

25) 大宗教總本司 編, 『大宗教重光六十年史』, 大宗教總本司, 1971, 참조.

26) 임찬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출간 『배달족역사(倍達族歷史)』의 대종교적 역사관」 『국학연구』 제23집, 2019, 참조.

27) 임찬경, 「근대 독립운동과 역사연구 출발점으로서의 단군인식 검토」 『仙道文化』 제23권, 2017, 참조.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되고, 1922년 1월 그 정부가 국정(國定) 역사교과서를 처음으로 간행하게 되었을 때, 그 책의 이름에 배달이란 민족의 명칭을 넣은 『倍達族歷史』를 간행할 수 있었다.

### 1. 『倍達族歷史』는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완전히 극복한 최초의 역사교과서

1922년 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간한 『倍達族歷史』는 우리역사에서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완전히 극복한 최초의 역사교과서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883년 함경남도 원산의 원산학사(元山學舍)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근대적인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의해 관학(官學)이 설립되고 또 민간의 선각자들에 의한 사립학교들이 연이어 설립되었다. 학교의 설립에 따른 교과서의 운영을 위해, 교과서 저술과 간행도 연이어졌다. 갑오개혁에 따른 학교의 교과 구성에서 국사는 필수 과목이 되었고, 그 이후 각 시기의 정부에서는 국사교과서를 간행하였다.

1894년에서 1910년까지 간행된 국사교과서들은 30여 종(種)에 이른다. 이들 국사교과서들은 그 시기와 특점에 의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갑오개혁 시기 간행된 국사교과서의 특징

1894년 음력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의 갑오개혁 시기에 간행된 교과서는 『朝鮮歷代史略』, 『朝鮮歷史』, 『朝鮮略史』 등 3종이다. 모두 학부(學部) 편집국에서 저술 및 간행하였다. 갑오개혁으로 형성된 정부의 입장에서, 고대사에서 단군의 건국을 강조했고, 국사 교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려 의도했다. 1392년 건국한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 왕조의 개국 연호로서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기원(紀元)'으로 연대를 표시했다. 홍만중(洪萬鍾)의 『東國歷代總目』을 저본(底本)으로 했고, 고려시대의 일부분은 『麗史提綱』을 참고했다.<sup>28)</sup> 상고사의 정통(正統)을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로 서술했다.

#### 2) 광무개혁 시기 학부에서 간행된 국사교과서의 특징

1897년 8월 이후인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시기에서 1906년 통감부의 검인정 제도 시행 이전에 간행된 『東國歷代史略』, 『大韓歷代史略』, 『普通教科東國歷史』는 학부(學部)에서 편찬하였다. 이 시기의 『東史輯略』, 『歷史輯略』, 『大東歷史』, 『中等教科東國史略』, 『普通教科大東歷史略』, 『新訂東國歷史』, 『國朝史』 등은 사찬(私撰)이다. 이들 국사교과서는 갑오개혁 시기에 간행된 국사교과서를 총망라하여 편년체로 정리한 수준이다. 단군(檀君), 기자(箕子), 위만(衛滿)의 삼조선(三

28) 梁正鉉, 「近代 改革期 歷史教育의 展開와 歷史教材의 構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1, 61~62쪽.

朝鮮) 설과 마한 정통론으로 고대사를 서술했다. 왕의 재위년(在位年)에 중국의 연호, 일본의 년기(年紀), 서기(西紀)를 함께 표기했다. 서술에서 일본사 관련 서술도 있고,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 관련 역사 서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한제국의 정체성에 맞게 ‘대한’, ‘대동(大東)’, ‘본국(本國)’, ‘동국(東國)’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sup>29)</sup>

### 3) 통감부 시기 간행 국사교과서의 특징

검인정 제도가 실시된 1906년 이후부터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일제의 반식민지가 된 상황이므로 국사 교육은 폐지 혹은 축소되었다. 1908년 「교과용도서검정규정」 시행 이후 검정(檢定)에서 통과된 국사교과서는 『初等大東歷史』, 『初等本國略史』, 『初等本國歷史』, 『新撰初等歷史』 등 4종뿐이다. 이 시기의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분에서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실체를 인정하는 서술도 보인다. 고대와 근대의 일본에 의한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서술도 보인다. 이 시기의 검정 국사교과서는 조선의 식민지화로 가는 단계의 역사 서술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의 교과서들도 단군-기자(箕子)-위만-삼한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 서술체계를 유지했다.<sup>30)</sup>

위에 언급했듯, 1894년의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에 따른 국사교과서 편찬이 연이어졌다. 이들 교과서는 자주화(自主化)와 근대적 개혁을 염원하는 당시의 사회적 지향(志向)을 담아내려 했다. 그러나 1894년에서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국사교과서들은 그 편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조선시대 역사서들이 지닌 ‘사대성(事大性)’과 당대의 ‘식민성(植民性)’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이들 교과서를 살펴본 신채호가 “내가 현재 여러 학교 교과용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가치 있는 역사가 거의 없도다.”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 이유이다.

내가 현재 여러 학교 교과용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가치 있는 역사가 거의 없도다. 제1장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한족(漢族)의 일부분인 듯하며, 제2장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선비족(鮮卑族)의 일부분인 듯하며, 나중에 전편을 다 살펴보면 때로는 말갈족(靺鞨族)의 일부분인 듯하다가, 때로는 몽고족(蒙古族)의 일부분인 듯하며, 때로는 여진족(女眞族)의 일부분인 듯하다가, 때로는 일본족의 일부분인 듯하니, 오호(嗚呼)라, 과연 이와 같다고 하면, 우리 몇 만 방리(方里)의 토지가 곧 남만북적(南蠻北狄)의 수라장이며, 우리 사천여년의 산업이 곧 아침에는 양(梁, \*필자 주: 중국 전국시대 제후국의 하나) 저녁에는 초(楚, \*필자 주: 중국 전국시대 제후국의 하나)의 경매물이라 할지니, 그러할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sup>31)</sup>

29) 金麗沘, 「韓國開化期の 國史教科書와 歷史認識」,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참조.

30) 金興洙, 「韓國 近代國史教育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참조.

31) 申采浩, 『讀史新論』 「叙論」 『大韓每日申報』(1908. 8. 27).

신채호는 당시 통용되던 대한제국의 여러 국사교과서들이 우리민족의 역사가 최소한 어떤 민족의 역사인지조차 제대로 서술하지 못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신채호는 우리민족의 출발점인 그 근원과 그 발전 과정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과서들을 통해서는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가르쳐질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신채호가 볼 때, 그 당시 볼 수 있던 국사교과서들이 우리의 역사 주체(主體)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채호는 1931년 서술한 『朝鮮史』에서 “歷史는 我와 非我的 鬪爭의 記錄이니라.”라고 규정했다.<sup>32)</sup> 역사를 서술하는 주체인 ‘아(我)’가 확실히 설정되어야 비로소 ‘비아(非我)’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역사가 온전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채호가 당시의 국사교과서들을 모두 살펴보니, 그 교과서들에는 ‘아(我)’라는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못했었다. ‘아(我)’가 주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하니, 사대와 식민의 왜곡된 역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1894년에서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국사교과서들은 대부분 단군-기자-마한(삼한)-신라(삼국)-고려-조선으로 구성되는, 조선시대의 소위 ‘정통론(正統論)’에 따른 역사서술 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95년에 당시 교육을 담당하던 학부(學部)에서 간행한 국사교과서인 『朝鮮歷代史略』은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삼한(마한) - 신라(통일 이후)’라는 소위 조선시대 ‘정통론(正統論)’의 역사서술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1897년의 광무개혁과 1905년의 을사늑약을 거친 이후인 1906년에 당시의 대표적 교과서로 편찬된 『新訂東國歷史』와 1908년에 편찬한 『初等本國歷史』와 1910년에 펴낸 『新撰初等歷史』에 이르러서도, 역시 ‘단군조선-기자조선’이란 역사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역사서술 방식으로서의 ‘정통론’이란 조선시대 중후기의 학자들이 역사를 구성하는 일정한 틀로서의 서술논리를 말한다. 이러한 정통론에서의 조선역사는 단군을 앞세우더라도 결국은 기자(箕子)로부터 시작되어, 기자(箕子)를 중심에 세워, 그 정통을 계승하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사대적(事大的)이었다. 정약용 『아방강역고』의 첫 부분인 「조선고(朝鮮考)」도 “조선이란 이름은 평양에서 생겼는데, 실은 기자(箕子)가 도읍한 본지(本地)를 말한다.”며 기자(箕子)로부터 우리역사 서술을 시작한다. 『동사강목』은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을 정통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동사강목』 본문의 역사서술은 기자(箕子) 원년(元年)으로부터 시작한다.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정통론은 중화(中華) 혹은 소중화(小中華) 혹은 사대(事大)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근본적으로 사대주의(事大主義) 입장에 선 것이란 점이다. 정통론이란 실제로 ‘중화계승의식’의 역사학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sup>33)</sup>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라는 사대적 역사서술 방식인 ‘정통론’에 따른 역사 서술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 1894년에서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국사교과서들은 오래 유지되며 고질화된 그 이전의 역사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교과서들은 당시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

32) 申采浩, 『朝鮮史(一)』「第一編 總論 一. 史의 定義와 朝鮮史의 範圍」(『朝鮮日報』1931.6.10).

33) 許太榕, 「17세기 말~18세기 초 中華繼承意識의 形成과 正統論의 강화」『震檀學報』103, 2007, 75쪽

제가 침략의 역사논리로 조작해내는 식민사관도 의도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했다.

역설적이지만, 갑오개혁 이후 정부의 학부(學部)에서 편찬하는 국사교과서도 실제 그 편찬 과정에서부터 일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교과서 편찬에 일본인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교과서의 구성 체제도 일본의 교과서를 모방하고 있었다.<sup>34)</sup> 이런 상황은 그 당시의 교과서들이 일제의 식민사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일제의 통감부에 의한 검인정 제도가 강제되면서 국사교과서의 식민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1910년 이후 국사교과서를 발간할 수 없는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근대적 학교 제도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국사교과서도 다수 편찬되었지만, 그 교과서들은 대부분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역사서술의 한계는 1922년 『倍達族歷史』를 간행하면서 완전히 극복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자주와 독립의 기치를 내걸고 건국되었으며, 1922년에 그 정부의 정체성에 맞는 첫 번째 역사교과서로 『倍達族歷史』를 간행하였는데, 이 교과서에서 기존의 사대와 식민의 역사서술을 비로소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倍達族歷史』는 오래고 고질적인 사대의 역사서술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소위 ‘정통론’을 폐기하였다. 『倍達族歷史』는 신인(神人)이 세상에 내려온 때부터 건국하기까지 124년을 신시시대(神市時代)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단군이 처음 건국한 ‘배달국’으로부터 배달시대(倍達時代)를 설정하였으며, 그 다음이 부여시대(扶餘時代)로 이어진다. 종래의 ‘정통론’에 의하면, 단군시대 다음에 기자시대(箕子時代)가 설정되었었다. 그러나 『倍達族歷史』는 이 기자시대(箕子時代)를 완전히 폐기시켰다. 대신 기자(箕子) 관련 사실은 부여시대(扶餘時代)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己卯年에 殷(중국)이 망하자 殷의 신하 箕子が 周를 피하여 5천 명의 유민을 이끌고 遼水の 西平壤(지금의 廣寧)의 비어 있는 땅으로 옮겨 살았다. 지명으로 국호를 삼아 朝鮮(平壤의 通稱)이라 하니, 이것은 처음으로 다른 족속이 귀화한 일이다. 그 자손이 점점 강하여져서 도읍을 遼水の 東平壤(지금의 遼陽)으로 옮겼다.<sup>35)</sup>

기자(箕子) 관련 사실을 배달족 이외의 다른 족속이 귀화해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그 이전까지 기자(箕子)를 통해 우리 역사를 ‘소중화(小中華)’에 편입시키는 사대적 역사서술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다.

34) 金興洙, 「韓國 近代國史教育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195쪽.

35) 大韓民國臨時政府 教科書編纂委員會, 『倍達族歷史』,三一印書館, 1922, 3-1쪽.

## 2. 『倍達族歷史』는 우리역사에서 자주적 민족사를 체계화한 첫 민족사교과서

우리역사에서 사대와 식민의 역사서술을 완전하게 극복한 첫 번째 역사교과서란 의미를 지닌 『倍達族歷史』는 자주적 민족사(民族史)로 서술된, 우리역사에서 첫 번째로 간행된 민족사교과서란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倍達族歷史』의 본문 각 목차에 ‘배달족교과서’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책은 배달족의 민족사를 가르치는 역사 교육의 교재인 것이다.

우리역사에서 민족사는 한말(韓末) 시기부터 저술되기 시작한다. 민족사는 역사 단위의 주체인 주족(主族)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사를 구성하는 첫 시도로 신채호의 『독사신론』(1908)이 언급된다. 신채호는 부여(扶餘)를 주족(主族)으로 설정하고, 국가 단위로는 단군조선-부여-고구려-발해를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민족공동체의 역사 즉 민족사를 구성하려 시도했다.<sup>36)</sup>

이러한 민족사 저술은 그 당시에 민족이란 개념이 정립되고, 또 그 개념을 통한 역사서술이 절실히 요구되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란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또 민족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근대의 일이다. 조선시대가 끝난 시점 혹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20세기 초라는 시점까지도 한반도의 지식인들인 유학자들에게 우리의 고대 이래의 고유문화를 그 자체로서 긍정하는 태도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의 고유문화 자체를 내세우는 태도는 한말(韓末) 일제 초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sup>37)</sup> 1908년 무렵에 이르러, 국수(國粹 : 한 나라나 국민의 고유한 역사, 문화, 국민성 등에 나타난 우수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종래의 전통유학이 지녔던 중화주의(中華主義)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족적·문화적 독자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는 한국민족의 개념이 비로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민족이란 개념의 뒤늦은 정립과 함께, 당시의 선각자들은 서둘러 민족주의를 받아들였다. 당시의 침략적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 ‘저항적 민족주의’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침략을 통해 민족의 생존을 짓밟아오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 민족주의를 발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한 즉 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말하건대, 민족주의(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의)를 힘써 드러내는 그것이니라. 이 민족주의는 실로 민족 보전(保全)의 유일한 방법이라. ...오호라! 민족을 보전코자하는 자가 이 민족주의를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36) 류시현, 「일제강점기 민족사의 구성과 기자(조선) 인식 - 최남선의 기자(조선) 인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65, 고려사학회, 2016, 196쪽.

37) 趙誠乙, 「洪大容의 역사 인식」 『震檀學報』 79, 1995, 230~231쪽.

38)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 2001, 178쪽.

이러한 까닭으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웅장하고 굳센 빛을 발하면 어떠한 극렬하고 잔악한 제국주의라도 감히 침입하지 못하느니, 요컨대 제국주의는 민족주의가 박약한 나라에만 침입하느니라.

비단 같고 꽃 같은 한반도가 오늘에 이르러 어둠 속에 휩쓸려 악마의 소굴에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한국인의 민족주의가 강건하지 못한 까닭이니, 바라건대 한국동포는 민족주의를 크게 분발하여 「우리 민족의 나라는 우리 민족이 주장한다」 하는 말로 호신부(護身符)를 삼아 민족을 보전할지어다.<sup>39)</sup>

신채호는 1910년에 발표한 또 다른 글에서, 당시 세계의 추세를 “제국주의의 세계, … 민족주의의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다.<sup>40)</sup>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할 점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신채호는 제국주의도 물론 그 자체 안에 민족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제국주의 내부의 민족주의는 지배 계급의 계급적 지배를 강화하거나 혹은 국민을 동원하여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지배이데올로기<sup>41)</sup>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제국주의의 민족주의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또 폭력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교하여, 제국주의에 의해 침략 당하는 국가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맞서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로서, 그 저항에는 제국주의 침략은 물론 자기 국가 내부의 반민족주의적인 온갖 세력과도 맞서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족주의로써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또 내부의 반민족주의적인 온갖 것들과 맞서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역사 연구와 저술이었다. 역사로써 민족을 일깨워, 독립운동에 나서게 할 필요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 역사는 바로 단군의 후예인 부여족을 ‘주족(主族)’으로 세운 민족사였음을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대의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국가의 ‘주족(主族)’인 단군 후예의 발달한 실적이 명백하거늘, 어떤 이유로 우리 선민(先民)을 왜곡함이 이에 이르렀느냐. 금일에 민족주의로 온 나라의 완고한 꿈을 일깨우며, 국가 관념으로 청년의 새로운 두뇌를 단련시켜, 우수함은 살아남고 열등하면 망하는 갈림길에서 함께 나서서, 한 가닥의 실처럼 아직 남아있는 국가의 명맥(命脈)을 지켜내고자 할진대, 역사를 버리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39) 申采浩, 「帝國主義와 民族主義」 『大韓每日申報』(1909. 5. 28).

40) 申采浩, 「二十世紀 新國民」 『大韓每日申報』(1910.2.22~3.3).

41) 지배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되는 자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노골적인 사실관계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지배하는 측의 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배되는 측이 그 지배를 어쩔 수 없는 것 혹은 자진하여 선(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논리나 사상 같은 것이 없으면 지배는 역사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인상지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등을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呂博東, 「日本近代天皇制의 統治構造와 지배이데올로기」 『일본학지』10,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991, 64~65쪽).

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것과 같은 역사를 역사라 한다면 역사가 없는 것과 같지 않다.<sup>42)</sup>

신채호는 비록 완전하게 서술되어 있지 못한 현재 우리의 고대사조차도 그것을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과 그 후예가 만든 역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왜 우리 민족의 중심인 단군과 그 후예들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가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신채호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후예에 의해 발달되어온 민족의 역사로써 민족주의를 일으켜, 완고한 꿈에 빠져있는 전체 민족을 깨워, 망해가는 국가를 되살려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 특히 ‘민족사’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는 유력한 사상적 무기의 하나이며, 대내적으로 반민중적·반민족적 봉건세력을 비판하여 해체시키는 문화 도구이며, 또한 민족 성원을 각성(覺醒)시켜 독립운동 전선(戰線)에 나서게 하는 교육과 선전의 핵심이며,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건설하려는 독립된 자주 국가를 건설하는 청사진(靑寫眞)이 담긴 것이었다.<sup>43)</sup>

이러한 ‘민족사’의 구성을 위해, 우선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기원 및 역사적 실체를 탐색했고, 단군을 이은 부여(扶餘)를 ‘주족(主族)’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사대(事大)와 식민(植民)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는 물론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그리고 통감부 시기의 국사교과서에까지 서술 원칙으로 작용했던 소위 ‘정통론(正統論)’의 역사 체계를 극복해야 했고, 이런 극복의 결과가 바로 부여를 ‘주족(主族)’으로 설정한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체계를 확립한 것이었다.

1922년에 간행된 『倍達族歷史』에는 그 이전까지의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 전통을 완전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그 이전까지의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삼한(마한) - 신라(통일 이후)’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정통론’의 역사 서술 체계를 폐기하고, 단군을 잇는 부여를 ‘주족(主族)’으로 세워 ‘부여-고구려-발해’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민족사’ 체계를 설정한 것이다.

1919년 9월 11일에 개정된 「大韓民國臨時憲法」의 전문에 “我 大韓民國은 我國이 獨立國임과 我 民族이 自主民임을 宣言하였도다. (중략)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여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습하여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위하여 組織된 大韓民國”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 임시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주와 독립의 기치로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해 건국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민족사’가 바로 『倍達族歷史』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倍達族歷史』에서 ‘주족(主族)’을 부여로 설정한 목적은, 이전까지의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민족사로서 완전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42) 申采浩, 『讀史新論』「叙論」『大韓每日申報』(1908. 8. 27).

43) 임찬경,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독립운동사학의 고대사 인식』,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0, 26쪽.

역사의 빛을 잡은 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하나의 종족을 먼저 밝히고, 그 민족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아, 그의 정치는 어떻게 잘 되고 못 되었으며, 그의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하였으며, 그의 군사상의 공적은 어떻게 발전하고 퇴보하였으며, 그의 풍습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가 외부의 각 종족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그가 다른 여러 나라와 어떻게 교섭하였는가를 서술하여야, 여기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정신(無精神)의 역사이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sup>44)</sup>

『倍達族歷史』는 부여를 ‘주족(主族)’으로 하여, 그 민족의 역사를 부여-고구려-발해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나아가 『倍達族歷史』는 부여-고구려-발해를 중심에 놓고, 왼쪽으로 선비(鮮卑)-거란(契丹)-요(遼)로 이어지는 역사와 오른쪽으로 음루(挹婁)-물길(勿吉)-말갈(靺鞨)-여진(女眞)-금(金)-청(淸)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모두 혈족(血族)의 역사로 포함시켜 ‘민족사’를 구성하였다.

#### IV. 결론

『倍達族歷史』는 대한민국 4년(1922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간한 역사책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출간한 국정(國定) 역사교과서인 셈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역사 교육의 교재로서 『배달족역사』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배달족역사』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 이후에 확립하려 했던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역사가 바로 『배달족역사』에 담겨있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기는커녕, 아직도 과거에 존재했던 사대(事大)와 식민(植民)의 역사조차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倍達族歷史』는 우리역사에서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완전히 극복한 최초의 역사교과서이다. 또한 『倍達族歷史』는 우리역사에서 자주적 민족사를 체계화한 첫 민족사교과서이다. 우리사회가 『倍達族歷史』에 주목하고, 또 그 역사관을 어떻게 현재에 계승하며, 분단극복과 통일의 과제를 안은 이 시대에 『倍達族歷史』와 같은 민족사로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깊이 검토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44) 申采浩, 『讀史新論』「叙論」『大韓每日申報』(1908. 8. 27).

## 참고문헌

### (원전)

- 『童蒙先習』

### (단행본)

- 金敎獻 著, 高東永 譯, 1986, 「범례(凡例)」, 『신단민사』, 흥부리.
- 大倣教總本司 編, 『大倣教重光六十年史』, 大倣教總本司, 1971.
- 大韓民國臨時政府 教科書編纂委員會, 『倍達族歷史』, 三一印書館, 1922.
- 『倍達公論』 第四號(三一紀念號), 大韓民國六(紀元四二五七)年四月十日發行.
- 一片丹生, 『讀史新論』, 在美韓人少年書會, 1911.

### (논문)

- 金承學 著, 김병기 정리, 「亡命客行蹟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1998.
- 金秉和, 「우리나라 近代教育의 構相과 그 制度 및 政策에 관한 研究」, 『師大論叢』 第16輯, 서울대학교, 1977.
- 金麗沘, 「韓國開化期의 國史教科書와 歷史認識」,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 金正坤, 「金敎獻 民族史學의 精神的 背景」, 『國學研究』 第4輯, 국학연구소, 1998.
- 金興洙, 「韓國 近代國史教育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金興洙, 「韓末 歷史教育 및 教科書에 관한 研究」, 『역사교육』 29, 역사교육연구회, 1981.
- 류시현, 「일제강점기 민족사의 구성과 기자(조선) 인식 - 최남선의 기자(조선) 인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65, 고려사학회, 2016.
-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 2001.
- 慎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제10호, 한국사연구회, 1974.
- 梁正鉉, 「近代 改革期 歷史教育의 展開와 歷史教材의 構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1.
- 呂博東, 「日本近代天皇制의 統治構造와 지배이데올로기」, 『일본학지』 10,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991.
- 李道學, 「大倣教와 近代民族主義史學」, 『國學研究』 第1輯, 국학연구소, 1988.
- 이명화,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教育政策과 活動」, 『역사와 실학』 12, 1999.
- 이현희, 「제2장 단군인식의 통사적 해석과 향후 과제」 『민족사상』 1(1), 2007.
- 임찬경, 「근대 독립운동과 역사연구 출발점으로서의 단군인식 검토」 『仙道文化』 제23권, 2017.
- 임찬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출간 『배달족역사(倍達族歷史)』의 대중교적 역사관」 『국학연구』 제

23집, 2019.

- 임찬경,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독립운동사학의 고대사 인식』,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0.
- 趙誠乙, 「洪大容의 역사 인식」 『震檀學報』79, 1995.
- 韓永愚, 『朝鮮前期 史學史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 許太榕, 「17세기 말~18세기 초 中華繼承意識의 형성과 正統論의 강화」 『震檀學報』103, 2007.

#### (신문기사)

- 「神檀民史刊行廣告」 『獨立新聞』(1923. 7. 21).
- 「新刊介紹」 『獨立新聞』(1922. 3. 31).
- 申采浩, 「讀史新論」 「叙論」 『大韓每日申報』(1908. 8. 27).
- 申采浩, 「帝國主義와 民族主義」 『大韓每日申報』(1909. 5. 28).
- 申采浩, 『朝鮮史(一)』 「第一編 總論 一. 史의 定議와 朝鮮史의 範圍」(『朝鮮日報』1931.6.10.).
- 申采浩, 「二十世紀 新國民」 『大韓每日申報』(1910.2.22. ~3.3).

#### (기타)

-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4. 11.
-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臨時政府章程〉, 1919. 4. 25.
- 間島總領事 鈴木要太郎, 「大正十五年六月中間島及接壤地方治安情況」, 1926. 7. 8.
-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建國綱領〉, 1941. 11. 28.

# 「1922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교과서 『倍達族歷史』발간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논평문

송옥진(대한학술원)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국가의 역사철학은 그 시대를 운영하는 지침과 같다. 문화적으로는 선진국 사회지만 사회적으로는 40년을 후퇴했다는 2024년 현재,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과 국가철학이 드라마와 영화, 음식 및 전통문화에 이어 전세계 속속들이 전파되어 만개한 꽃을 피우는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위상의 전개와 반대로 간도-대마도를 우리 영토에서 잇은 것은 물론 독도 및 울릉도에 대한 주변국의 영토 왜곡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사를 연구하는 대표기관의 수장인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독립기념관장의 자국에 대한 역사인식이 오히려 비전공자인 일반 시민들에게 검증되어야 할 정도로 국가철학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교과서인 “배달족역사”의 발간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는 더욱 뜻깊다. 특히 임찬경소장님의 논문은 그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임시정부가 초등역사교과서로 사용하기 제작된 역사서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던 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주변국과는 물론, 국내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역사전쟁을 아직도 진행중인 이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배달족역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1922년 간행한 역사교과서로 그 목차에 “배달족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독립을 고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일본이 이 책을 압수하려는 상황이었다는 것 외에 책이 출간된 배경과 의미 등의 연구는 그간 미약하였다.

저자는 초등역사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동몽선습童蒙先習』은 ‘경經’을 중심으로 한 데다 부차적인 ‘사(史)’의 내용 역시 사대적인 소중화 의식에 근거하여 단군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사대와 식민을 지속하기 위한 소중화 역사 인식 교육 지침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초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의 이후 많은 사립학교들의 설립되고 교과서 저술 및 강행이 이루어진 것이 별도의 역사교과서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갑오개혁에 따라 학교의 교과 구성에 국사가 필수과목이 되었고 각 시기의 정부에서도 국사교과서를 간행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1894년부터 1910년 사이 간행된 다양한 역사교과서 중에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김인정 제도 실시에 따라 발간된 교과서에서부터 일제의 한국사 왜곡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반식민지가 된 상황 이후 국사교과서 발간에는 일본미화, 일본의 조선침략 정당화, 우리역사의 자주성 부정

등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게 되면서 통감부는 검인정 제도를 통해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 및 통제하게 되었다. 1910년 한국강제병합조약이후 역사교육은 당연히 일본사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때부터 국사는 일본사를 의미, 우리역사인 조선사는 지역사의 위치로 전락되어 각급 학교에서 조선사교육이 완전히 철폐되고 중등학교에서 일본사 교육이 역사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책을 출판한 법적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었다. 1921년 김승학이 독립신문사와 삼일인쇄소를 부활시켜 독립신문사의 사장이 되어 박은식 주필, 차리석 편집장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부차적으로 교과서편찬위원회를 부설하였고 박은식, 조완구, 윤기섭, 김두봉, 정신, 차리석, 백기준 등과 함께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것이 1922년 1월 15일 『배달족역사』 출간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해 주체와 저자에 대해서는 편집인 김현의 명의로 편집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사에 부설된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글에서는 『배달족역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역사교과서로 간행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에서 필자가 제시한 『배달족역사』의 의의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오랜기간동안 고착화된 ‘소중화’라는 사대적 역사서술의 극복한 것에도 다른 하나는 자주적 민족사를 체계화한 최초의 시도로 ‘주족(主族)’인 부여족을 설정하여 식민의 역사서술을 민족사로서 완전하게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았다. 책 이름 『배달족역사』에서 사용된 ‘배달倍達’ 용어는 1909년 초 설립된 대중교 용어임에도 종교적 색채가 짙은 이 용어가 1910년 초부터 널리 사용되다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화 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배달족역사』가 사대와 식민의 역사서술을 완전히 극복한 최초의 역사교과서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신채호가 『조선사』에서 서술한 당시 역사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당시 국사교과서들(1894년~1910년 사이)이 우리민족의 역사가 최소한 어떤 민족의 역사인지조차 제대로 서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민족의 출발점인 근원과 발전과정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는 교과서들을 통해서서는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가르쳐질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당시 국사교과서는 우리의 역사 주체(主體)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배달족역사』는 고질적인 ‘정통론’을 폐기하여 신인(神人)이 세상에 내려온 때부터 건국하기까지 124년을 신시시대神市時代, 단군이 처음 건국한 ‘배달국’으로부터 배달시대倍達時代, 그 이후 부여시대夫餘時代로 기술하여 종래의 기사시대를 완전히 폐기시켜 기사 관련 사실을 배달족 이외 다른 족속이 귀화해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이전까지 기사를 통해 우리 역사를 소중화에 편입시키는 사대적 역사서술을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는 민족사를 구성하는 첫 시도인 신채호의 『독사신론』(1908년)에는 부여를 주족으로 설정하고 국가 단위로 단군조선-부여-고구려-발해를 중심으로 연결시켰다. 신채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기원 및 역사적 실체를 탐색하여 독립된 자주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결을 같이 하는 『배달족역사』는 기존 정통론인 ‘단군조선-기자조선-삼한(마한)-신라(통일 이후)’를 중심으로 하는 서술체계를 완전히 탈피하여 단군을 잇는 부여를 중심으로 ‘부여-고구려-발해’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민족사 체계를 설정하였다.

『배달족역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출간한 국정교과서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편찬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한 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국가철학에서도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현재에 계승함이 타당하며 『배달족역사』의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깊이 동감한다. 반면, 본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 배달족역사 발간의 두 가지 의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배달족역사』는 신시시대에서부터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인이 내려와 개천한 갑자년 상달 10월, 즉 환웅이 천부인3개를 가지고 내려온 때를 개천기원으로 잡아 124년간 교화를 행하고 단군시대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하여 개천연호에서 환웅교화 124년을 빼면 단군기원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안함로의 삼성기나 원동중의 삼성기, 태백일사 등에서 서술하고 있는 환웅관련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단군 이전 124년이라는 신시 기간을 산정한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기존 정통론을 극복하기 위해 단군-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민족사 체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북방 역사가 주된 역사서술에서 배제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배타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읍루와 선비, 요(거란), 금, 만주와 청의 역사는 이미 우리 역사에서 떨어진 지가 오래되어 배달족역사에 기록된 것 자체가 의아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배달족역사』의 내용이 간략한 때문이기도 한데 이러한 배달족역사와 관련하여 신단민사처럼 보완할 수 있는 역사서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노력에도 이후 국사교과서가 다시 기존의 정통론으로 회귀하게 된 이유를 무엇으로 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 세계환단학회 논문 공모

세계환단학회는 학제적인 방법론으로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고 인류 시원문화의 원형을 탐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2014년 6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학술발표회를 가진 바 있으며, 매년 춘계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통을 바로잡고 인류보편의 흥익이념 및 광명의 역사정신을 세상에 드러낸 『환단고기』의 사학적, 문화적 가치를 환히 드러내고자 공식 학술지인 세계환단학회지를 연2회(6월, 12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흥산문화 발굴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 연구하는 사학풍토가 조성되면서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우리의 역사에 관한 사실이 300건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이미 그중의 20여건은 최근의 천문학, 고고학, 해양학, 국제정치학, 군사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계환단학회는 환단고기에 기술된 우리의 역사진실과 인류의 원형문화, 철학, 사상, 언어, 풍속 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공유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지원하는 소정의 지원금으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00만원의 원고료(우수논문은 200만원)을 지급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세계환단학회장

※논문작성 및 투고방법: 세계환단학회 홈페이지([www.hwandan.org](http://www.hwandan.org)) 참조